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능기부 활동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2. 11. 27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능기부 활동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2. 11. 27

연구진 Researcher

책임연구원

최 상 명 교수 (우석대 행정학과)

공동연구원

주 성 수 교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최 민 희 부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본 보고서는
서울시가 발주하고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능기부 활동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의
〈최종보고서〉입니다.

학술용역관리·책임자 :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성명 **김 경 호**

희망복지지원과장 성명 **강 필 영**

희망복지기획팀장 성명 **김 귀 동**

담당자 성명 **김 수 철**

〈연구결과 요약〉

“서울시 재능기부 활동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서울시 자원봉사자 가운데 재능기부 활동 참여자는 전국 평균 수준(15.5%)보다 1%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한 경로는 직장과 학교가 40%로 가장 많고, 종교단체 24%, 지인의 권유 17%, 언론매체 7%, 수요처의 홍보 6%, 인터넷 4% 등이다. 또 재능기부 활동 유형으로는 아동학습지도(24%)와 평생교육 등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의료(12%), 집수리(10%), 요리(9%), 공연(9%), 전문상담(5%) 등으로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 일감과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재능기부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재능기부 활성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공급도 부족한 편이지만, 일감 개발과 수요처 개발이 중요하다. 재능기부 희망자들을 모집하기에 앞서 이들의 재능기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대상들을 파악한 다음 모집을 해서 교육훈련을 통해 배치하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존의 모범 프로젝트의 확대와 생애주기별 프로젝트 추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서울 동행 프로젝트”를 확대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습지도와 멘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제도를 도입해볼 수 있고, 또 대학에서 음악, 미술, 무용, 외국어 등 무수한 재능기부활동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추진해볼 만하다. 또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교생의 초등학교 지도 프로그램을 추가해볼 수 있다.

또 베이비부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니어봉사단’을 추진해, 평생 직장에서 익힌 전문기술과 재능을 이웃돕기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은 홀로 방치된 노인이나 아동 보호, 전문상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프로보노 활동, 비영리단체 지원, 집수리 등의 기술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그밖에도 서울시민 누구나 재능기부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홍보관을 개설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또 주민센터 등의 풀뿌리 행정조직에서 재능기부를 포함한 기부와 자원봉사 등의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희망나눔’ 접수를 받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능기부 활동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목차〉

1. 재능기부의 의미와 유형	07
1) 재능기부와 전문봉사활동	09
2) 직업별 전문봉사(재능기부) 유형	11
2. 주요국의 재능기부 현황	15
1) 유럽의 재능기부	17
2) 미국의 재능기부	17
3) 서구와 한국 비교	18
3. 전국 재능기부 현황	25
1) 16개 시도 현황	27
2) 재능기부 유형별 재능기부자 특성	30
4. 서울시 재능기부 현황	33
1) 전국과 서울시 비교	35
2) 서울시 재능기부자 특성	36
3) 재능기부 유형별 재능기부자 특성	40
5. 재능기부 유형별 분석	43
1) 재능나눔 캠페인 DB 분석	45
2) 자원봉사센터 자료 분석	61
6. 재능기부 활동의 관리와 제도적 현황과 문제	71
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재능기부 관리 시스템	73

2) 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 관리 시스템	76
3)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 관리 시스템	77
4) 서울시 재능기부 관리시스템 제안	78
7. 서울시 재능기부의 수요와 공급 분석	83
1) 재능기부의 수요 분석	85
2) 재능기부의 공급 분석	91
3) 재능기부 수요-공급 분석 요약	101
8. 서울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105
1) “동행 프로젝트” 확대	107
2) 마을공동체 재능기부 모형	111
3) 희망온돌 프로젝트 확대 : 서울희망나눔	114
4) 생애주기별 재능기부 모형	117
5) 서울시 재능기부 프로젝트 비교	119
6)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확대와 제도적 개선	123
〈참고문헌〉	126
〈별첨〉 1365 자원봉사 포털 “서울시 재능기부” 분석결과	127

〈표 목차〉

〈표 1-1〉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별 재능기부(전문자원봉사) 예시	11
〈표 1-2〉 프로보노와 재능기부의 차이점	13
〈표 2-1〉 영국 자원봉사자의 모금 우선의 자원봉사활동 : 연령별 비교	17
〈표 2-2〉 미국 자원봉사자의 성/연령별 전문 봉사활동: 참여율(%)	18
〈표 2-3〉 미국인 직업에 따른 전문봉사활동의 수행 수준	19
〈표 2-4〉 미국인 직업 유형별 재능기부 Top #1 활동	20
〈표 2-5〉 한국인 자원봉사자의 역할	21
〈표 2-6〉 전국 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단(전문자원봉사단) 현황	22
〈표 2-7〉 전국 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전문봉사) 자원봉사자 현황	24
〈표 3-1〉 재능기부자와 일반봉사자 비교 : 전국 16개 시도, 2011년	27
〈표 3-2〉 지난 1년간 주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가?	28
〈표 3-3〉 자원봉사활동은 주, 월, 반기, 분기활동을 했는가?	29
〈표 3-4〉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 여부	29
〈표 3-5〉 재능기부 활동의 참여 경로 : 활동 유형별, 2011년	30
〈표 3-6〉 재능기부 활동의 정기적 활동 : 활동 유형별, 2011년	31
〈표 3-7〉 재능기부 활동 회수(1-21회 이상) : 활동 유형별, 2011년	31
〈표 5-1〉 ‘재능을 나누시다’ 캠페인의 프로젝트별 사례	47
〈표 5-2〉 협력단체 재능나눔 연계활동 사례(복지관)	48
〈표 5-3〉 협력단체 재능나눔 연계활동 사례(기업)	48
〈표 5-4〉 협력단체 재능나눔연계활동사례(광역센터)	48
〈표 5-5〉 협력단체 재능나눔 연계활동 사례(기초센터)	49
〈표 5-6〉 협력단체 재능나눔 연계활동 사례(직능단체 및 공공기관)	49
〈표 5-7〉 서울지역 5대 유형별 재능기부 신청현황	50
〈표 5-8〉 서울지역 학력별 재능기부 신청현황	51
〈표 5-9〉 서울지역 직업별 재능기부 신청현황	52
〈표 5-10〉 서울지역 성별 재능기부 신청현황	52
〈표 5-11〉 서울지역 연령별 재능기부 신청현황	52
〈표 5-12〉 서울지역 5대 유형별 재능기부받기 신청현황	53
〈표 5-13〉 서울지역 재능기부 수요처 현황	53
〈표 5-14〉 재능을 나누시다 프로젝트명	54
〈표 5-15〉 주요 캠페인 참여현황	55

〈표 5-16〉 2011년 ‘재능을 나눴시다’ 주요사업 현황	58
〈표 5-17〉 2011년 주요 연계사업 현황	58
〈표 5-18〉 2012년 ‘재능을 나눴시다’ 주요사업(안) 현황	59
〈표 5-19〉 2012년 주요 연계사업 현황	59
〈표 5-20〉 2012 서울시 25개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활동 현황	61
〈표 5-21〉 강남구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63
〈표 5-22〉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64
〈표 5-23〉 강동구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65
〈표 5-24〉 노원구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66
〈표 5-25〉 중구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66
〈표 6-1〉 자원봉사자 직무흐름도	80
〈표 7-1〉 서울시 재능기부자 특성 : 활동 유형별, 2011년	86
〈표 7-2〉 서울시 재능기부자의 활동유형별 참여경로	87
〈표 7-3〉 재능기부 공급자로서 직장이 갖고 있는 장점들	89
〈표 7-4〉 재능기부 공급자로서 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들	90
〈표 7-5〉 재능기부 공급자로서 종교단체의 역할	91
〈표 7-6〉 서울시 재능기부 수요처 : 1365자원봉사 포털 모집정보 분석	95
〈표 7-7〉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재능봉사 활동 유형 분류	96
〈표 7-8〉 서울시 재능기부 유형별 수요처 복지기관	98
〈표 7-9〉 자치구 사회복지기관의 수요요청 재능기부 유형	99
〈표 7-10〉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현황	100
〈표 8-1〉 서울동행 프로젝트 사업실적 : 수요처와 참여 대학생	108
〈표 8-2〉 “서울동행 프로젝트” 재능기부 활동분야	108
〈표 8-3〉 서울시 재능기부 생애주기별 모형 : 수요, 공급, 중개 기관	118
〈표 8-4〉 서울시 재능기부 프로젝트 장단점 비교	120

〈그림 목차〉

〈그림 2-1〉 전국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재능나눔봉사단 현황	23
〈그림 3-1〉 주기적 활동 : 재능기부자와 일반봉사자 비교	28
〈그림 3-2〉 향후 지속활동 의향 있음 : 재능기부자와 일반봉사자 비교	29
〈그림 4-1〉 재능기부자 참여도 : 전국과 서울시 비교	35
〈그림 4-2〉 자원봉사 참여율과 재능기부 참여률 : 전국과 서울시 비교	35
〈그림 4-3〉 서울시 재능기부자 : 성별	36
〈그림 4-4〉 서울시 재능기부자 : 혼인상태	36
〈그림 4-5〉 서울시 재능기부자 : 연령별	37
〈그림 4-6〉 서울시 재능기부자 : 교육수준	37
〈그림 4-7〉 서울시 재능기부자 : 가구소득	38
〈그림 4-8〉 서울시 재능기부자 : 직업별	38
〈그림 4-9〉 서울시 재능기부자 : 참여 경로	39
〈그림 4-10〉 서울시 재능기부 유형별 향후 지속활동 의향	39
〈그림 5-1〉 ‘재능을 나눴시다’ 홍보 포스터	45
〈그림 5-2〉 ‘재능을 나눴시다’ 캠페인 조선일보 기사	45
〈그림 5-3〉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재능을 나눴시다’ 프로젝트명	46
〈그림 5-4〉 캠페인 참가방법 및 대상	47
〈그림 5-5〉 서울지역 5대 유형별 재능기부신청 변동추이	50
〈그림 5-6〉 서울지역 5대 유형별 재능기부받기 현황	54
〈그림 5-7〉 2012 서울시 25개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활동	62
〈그림 5-8〉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63
〈그림 5-9〉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65
〈그림 5-10〉 강동구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65
〈그림 5-11〉 노원구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66
〈그림 5-12〉 중구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67
〈그림 6-1〉 협력단체와의 업무흐름도	74
〈그림 6-2〉 재능나눔운동본부와 협력단체의 역할	75
〈그림 6-3〉 재능기부활동 관리프로세스	79
〈그림 7-1〉 서울시 재능기부 수요 유형 : 1365 자원봉사 포털 분석	92
〈그림 7-2〉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재능봉사활동 사업 추진체계	96
〈그림 7-3〉 서울시 사회복지기관의 재능기부 수요 유형	97



1. 재능기부의 의미와 유형

- 1) 재능기부와 전문봉사활동
- 2) 직업별 전문봉사(재능기부) 유형

1. 재능기부의 의미와 유형

재능기부 또는 전문자원봉사(professional volunteering) 활동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 전반적인 추세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다양한 전문 분야로 나뉘어 활성화되고 있고, 전문 직업인의 참여가 늘어나며 봉사활동이 전문화되고 있으며, 또 의료 등 전문 봉사단체들이 등장해서 전문 봉사활동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개인의 측면에서도 단순 봉사활동의 단계를 거쳐 점차 전문 봉사활동으로 업그레이드되어가는 추세를 주목해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보다 전문화된 봉사활동을 통해 더 큰 자기성취감과 정신적 보람을 갖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1) 재능기부와 전문봉사활동

재능기부는 재능과 시간을 나누는 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한 유형이다. 자원봉사활동은 편의상 일반 봉사활동과 전문 봉사활동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재능기부는 전문 봉사활동에 해당된다. 국내외적으로 아직 재능기부나 전문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전문 봉사활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주성수 2005: 46-48).

전문 봉사활동과 일반 봉사활동, 양자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양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전문 봉사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1) 재능에 기초한 자원봉사활동

첫째, 봉사활동 하는 일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봉사활동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가 하는 구분이다. 그럼에도 일부 봉사활동은 전문 봉사활동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봉사활동은 일반과 전문 봉사활동 구분이 잘 안될 수도 있다.

외국어 통역과 번역은 분명 전문 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환경 봉사활동의 경우 단순 환경보호 활동은 일반 봉사활동이지만 스쿠버 дай버들의 수중 환경오염 조사활동은 전문 봉사활동으로 구분된다.

(2) 직업분류에 의한 재능기부

따라서 두 번째 구분은 전문가에 의한 봉사활동을 전문 봉사활동으로 구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교육자 등 전문직의 봉사활동을 전문 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전문 직업인이 거리청소와 같은 단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 봉사활동이 될 수는 없다. 반대로 전문 직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수지침 의료봉사활동과 같은 자신의 특기를 발휘해서 전문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측면은 이용과 미용 등 전문기술을 이용한 봉사활동도 중요한 전문 봉사활동의 일부를 차지한다. 여성자원활동의 전문영역이란, 직업으로서의 전문직을 가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여 활동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전문지식과 기술은 대부분 사회교육 등의 학습을 통해 채득되기 때문에 사회교육,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자원봉사단체들이 연계되면 여성들의 전문 봉사활동을 도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3) 경력에 기초한 재능기부

셋째는 자원봉사 경력자가 전문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활동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게 되어 일반 자원봉사자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한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봉사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호스피스와 같은 경우 초기에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들이 교육훈련을 주로 담당했는데, 이제는 장기 자원봉사자들이 교육훈련을 맡는 일이 많아졌다. 고참 경험자들이 담당하는 전문 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선경험자의 재능기부

넷째는 선경험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활동하는 전문봉사활동도 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경험에서 터득한 지혜나 정보나 용기를 주며 전문봉사자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폭력에 가담한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과거에 같은 경험을 했던 스포츠맨들이 청소년 선도에 자원봉사자로 나서,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문봉사자 역할을 맡는다.

(5) 전문단체의 의한 재능기부

마지막은 자원봉사단체 자체가 전문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호스피스 봉사단, 한방봉사단, 문화봉사단, 해양오염감시단, 박물관봉사단, 수지침봉사단, 집수리봉사단, 컴퓨터봉사단, 음악봉사단, 외국어봉사단 등 다양한 전문 봉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소외층을 위한 전문서비스 활동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의료, 문화예술, 스포츠 등 더 많은 분야에서 전문 봉사단체들이 새로 조직되면서 전문 봉사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가 늘어나면서 외국어 통역, 관광안내 등 행사지원을 위한 전문 봉사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또 지방자치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참여가 늘고 있다.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가 일제히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커뮤니티 파트너십 센터 2004). 지역마다 각종 문화축제 행사들이 늘어나면서 전문 자원봉사자 활동을 크게 기대한다. 도자기축제, 나비축제, 꽃축제 등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의 정기적인 축제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희망하며 활동하고 있다.

2) 직업별 전문봉사(재능기부) 유형

따라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도 기술, 의료, 컴퓨터, 외국어통역 등 전문봉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가는 추세에 있다.

자원봉사센터와 단체들은 다양한 전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계의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두루 충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경우도 학과 전공과 관련된 전문화된 봉사활동을 할 때 일에 흥미를 갖고 자신있게 잘 해낼 것이며, 또 장기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도 사회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춘 집단이므로, 그 장점을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고, 자원봉사단체들은 이런 전문 직장인 충원의 전략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볼 만하다.

(1) 국제노동기구의 직업별 재능기부 분류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2011)는 직업별 전문자원봉사활동을 <표 1-1>과 같이 예시해준다. 사실상 전문봉사활동의 영역은 개인의 직업에 적합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보는 시각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직업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이나 다양한 전문봉사활동이 있다고 소개한다.

<표 1-1>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별 재능기부(전문자원봉사) 예시

-
1. 선출직 의원, 고위 관리 및 관리직
 - 비영리조직, 협회, 유니온, 소조직의 리더 역할 또는 관리직 역할
 - 조직의 이사회의 이사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 정책과 연구 관리자 역할
 2. 전문직
 - 지역사회 의 긴급대응계획 수립
 -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나 갈등해결 서비스 제공
 - 공적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프로그램 또는 조직의 관리
 - 전문적인 사회사업과 카운슬링 서비스 제공
 3. 기술직과 기술전문직
 -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 행사의 기획, 관리, 조직의 리더 역할
 - 멘토 역할
 - 코치, 심판, 스포츠 팀 감독
 - 강의, 훈련, 튜터링
 4. 사무직
 - 연구용 정보의 기록을 위한 대상자 인터뷰 진행
 - 사무 서비스, 정리, 복사
 - 스포츠나 오락 행사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5. 서비스와 영업 분야

- 타인을 위한 식사 준비 또는 서빙
 - 장례식 지원.
 - 사회적 대의(cause)를 알리기 위해 방문을 통한 사람 접촉
 - 아동보호의 지원과 단기간 포스터 케어(foster care)
 - 타인에 대한 개인적 케어(목욕, 요리)
6. 농어업 숙련 노동자
- 지역사회 의 식수와 묘목으로 공공 녹지조성
 - 지역사회 추수의 운송, 수집, 조직 지원
7. 수공업 관련 상업자
- 타인의 주거 시설의 건설, 보수
 - 자전거 수리
8. 공장과 기계 운전자
- 타인을 돕는 쇼핑
 - 운송수단 제공
9. 단순노동직
- 쓰레기 청소, 분리수거
 - 공공 행사 후의 청소와 정리

자료: ILO 2011.

(2) 사회적 경제의 프로보노(pro bono)

또 최근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전문봉사자들의 활동이 점차 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조직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새로운 생산요인이 되며 새로운 시장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 경제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게 없지만 이들의 참여로 이전에는 유용할 수 없거나 시장에서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가능해졌다(주성수 2010).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한 허드렛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이나 간호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기업가’로서 프로보노 활동도 한다. 복지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과 치료 서비스에 무수한 소비자들이 몰리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문화예술이나 레포츠 단체들에서도 전문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지혜를 일반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활동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 공공근로나 자활공동체 사업처럼 공공급여 제공을 받고 시간제 또는 기간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용 가치는 더욱 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는 새로운 생산요인이 되며, 새로운 시장 관계도 형성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에 의해 제공되던 서비스가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용역’으로 위임되고, 또 이들 사이에 시장개척의 경쟁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시장관계가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서비스 전달의 질을 높여 고객 만족을 갖다 주는 기업가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프로보노 전문봉사활동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직원들의 재능기부와 차이가 있다(CECP 2011).

첫째는 실행(commitment)이다.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인력 제공, 프로그램의 품질 및 완성도 확보,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제공 등 책임이 있다.

둘째는 전문 서비스이다. 참여 직원들은 자신의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핵심 직무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핵심 직무역량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는 프로보노 봉사활동보다는 자원봉사에 해당한다.

셋째는 간접 서비스이다. 모든 서비스는 연방세법 조항 501(c)(3)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프로보노 봉사활동과 직원봉사활동의 근본적인 차이를 감안해, CGS 설문에서 프로보노 봉사활동은 비현금 기부로 구분, 공정시장가액(FMV)으로 평가한다.

이상과 같이 미국 기업사회공헌위원회(CECP)는 프로보노 활동이 재능기부와 다른 차이점은 전자가 회사의 공식적인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또는 일부 팀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인 반면에 후자는 다분히 전문 재능을 가진 개인들이 자신들의 특기나 재능을 개인적 차원에서 봉사활동으로 기부하는 것이라 구분해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표 1-2>와 같이 프로보노와 재능기부를 구분해볼 수 있다.

<표 1-2> 프로보노와 재능기부의 차이점

프로보노	재능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자가 비영리조직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 마케팅 회사가 비영리의 신규 프로그램을 위한 마케팅 전략 디자인 • 물류유통 전문회사가 푸드뱅크의 배송과 재고 시스템 향상 지원 • HR 회사가 비영리기관의 인력개발 및 성과 평가 설계 지원 • 기업 인사팀이 사회적기업의 인사 시스템을 감사 • 금융팀이 사회적기업을 위해 경영회계 시스템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간부가 비영리기관 간부에게 일상적 조언을 주는 것 • 매니저가 경영전략 경연대회를 위해 고등학생들을 코치하는 것 • 회계사가 자율적으로 여유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 세금전문가가 낮은 수입의 개인에게 적합하게 돈을 버는 법을 알려줌

자료: 세스넷, 2012.



2. 주요국의 재능기부 현황

- 1) 유럽의 재능 기부
- 2) 미국의 재능 기부
- 3) 서구와 한국 비교

2. 주요국의 재능기부 현황

1) 유럽의 재능기부

먼저 유럽 9개국의 평균을 보면, 모금활동과 제3섹터 위원회 활동이 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질병치료, 빈민구호 등 소외층 옹호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모금활동이 서구 자원봉사의 가장 손꼽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카운슬링(11%)과 정신치료(11%) 등 전문 복지서비스 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유럽 전역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전문 활동이 비교적 많다(Gaskin & Smith 1997).

영국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모금활동이 우선이다. 활동분야는 교육기관(31%), 종교기관(24%), 스포츠(22%), 보건과 장애인(22%), 아동과 청소년(18%), 지역사회와 시민단체(17%), 취미오락과 사교(13%) 순서로 나타나지만, 이곳에서 가장 많은 역할이 모금과 기금관리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한 개인이 하나의 조직보다 복수의 조직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가 하나의 조직에서만 활동하는 경우는 전체 자원봉사자의 41%, 두 개 23%, 3-5개 30%, 6개 이상 6%이다. 또한 기관에서 공식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자원봉사자는 모금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한다. 하나의 활동만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28%이며, 2가지 활동 18%, 3가지 활동 15%, 4가지 활동 11%, 5가지 이상 활동 24% 등이다.

〈표 2-1〉 영국 자원봉사자의 모금 우선의 자원봉사활동 : 연령별 비교

	전체 봉사자	16~ 24~	25~ 34~	35~ 44~	45~ 54~	55~ 64~	65+
모금 및 기금관리 활동	65%	61%	65%	65%	70%	63%	64%
행사의 조직 또는 보조	50	54	53	51	57	43	44
비영리조직 위원회 위원	28	32	19	22	30	30	37
교육 활동	25	52	29	21	24	21	12
비서, 행정, 사무보조	21	14	18	19	23	25	23
대표 활동	19	27	17	16	23	18	17
운송 활동	19	6	20	19	27	14	22
타인 방문	17	19	13	8	16	18	26
자문, 정보, 상담 제공	16	15	24	11	17	17	15
친교 활동	15	26	18	11	11	15	14
캠페인 활동	14	16	11	13	18	17	12
기타 보조 활동	35	42	41	37	30	31	33

참고: 복수응답: 정기 또는 비정기 "공식 자원봉사자" 전체.
자료: UK Cabinet Office 2008: 30, 31.

2) 미국의 재능기부

(1) 자원봉사자의 전문활동

미국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1999년의 조사에서는 모금활동(16%), 상담(11%), 행사조직(10%) 등이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활동이며, 복지수혜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활동이 가장 많은 24%를 차지한다. 이어서 청소년 관련(11%), 방문과 친교(9%) 등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봉사단(CNCS) 자료에는 2008-2010 기간의 주요 활동은 모금 26.5%, 음식 모집/배분 23.5%로 금전과 물품 모금활동에 절반의 자원봉사활동이 몰려 있다. 다음으로 일반노동 20%, 튜터/학습지원 18.5%로 조사되었다.

또 미국 노동통계국의 2011년 자료는 보다 자세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보여준다(표 2-2). 코치, 심판, 튜터 등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영역의 전문봉사자 역할이 두드러지며, 또 모금활동과 안내와 의견 활동, 노력봉사 등 단체의 행사에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자료는 비공식적인 개인 활동을 제외하고 단체를 통한 '공식적' 자원봉사 활동만을 추산한 자료이다.

〈표 2-2〉 미국 자원봉사자의 성/연령별 전문 봉사활동: 참여율(%)

	전체	남성	여성	16-24	25-34	35-44	45-54	55-64	65세+
코치/심판/튜터	15.6	17.7	14.0	15.8	19.3	21.9	16.0	10.6	7.5
청소년 멘터	6.0	5.7	6.1	8.7	7.6	7.5	5.6	4.1	2.3
안내, 의견, 정보	4.0	5.1	3.2	2.8	2.6	2.2	4.0	5.4	7.6
음식 수집, 배분	9.9	7.9	11.4	8.7	7.8	8.6	10.4	11.1	13.1
옷/물품 수집/수선/배분	3.3	1.9	4.3	3.4	3.0	2.6	2.9	2.9	5.3
모금과 모금 위한 판매	10.9	9.3	12.1	10.4	11.7	12.2	12.4	10.1	7.7
카운슬링, 보건, 구호	3.2	3.7	2.8	3.0	4.1	2.9	3.3	3.3	2.6
일반 행정지원 업무	5.1	3.0	6.6	4.5	4.1	4.3	4.5	5.6	7.8
위원회/전문자문 활동	7.2	8.2	6.4	1.4	5.0	6.5	8.5	11.2	9.3
음악, 예술 공연	4.0	3.8	4.2	5.4	4.4	3.2	3.4	4.4	4.2
노력봉사/차량제공	8.4	11.5	6.0	10.7	7.9	7.6	8.0	8.8	7.9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1.

(2) 직업별 재능기부 활동

나아가 미국에서 조사한 직업별 전문봉사활동의 현황 분석을 참고해볼 만하다. 먼저 〈표 2-3〉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직업적 기술과 재능을 자원봉사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직업에 적합한 활동을 주된 자원봉사활동으로 수행하는 직업은 법률직으로 23%로 비교적 높다. 이에 대해 미국 국가봉사단(CNCS 2008)은 미국변호사협회가 “변호사는 연간 50시간 이상의 공익 법률서비스에 프로 보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강령을 채택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법률직 종사자들은 직업군에서 가장 높은 자원봉사 참여율(47%)을 보여준다. 다른 직업의 경우 사무/행정직은 7%에 지나지 않았고, 예술/디자인 등의 직업과 의료직에서도 각기 11%에 지나지 않았다.

또 전문봉사활동이 일부 수행된 비율은 적게는 16%(사무/행정직)에서 많게는 35%(교육/훈련직)에 이른다.

〈표 2-3〉 미국인 직업에 따른 전문봉사활동의 수행 수준

직업 분류	직업관련 전문봉사활동	전문봉사가 주된 활동	전문봉사가 일부 활동
1. 예술, 디자인, 오락, 스포츠, 미디어	예술, 공연, 기타 예술 관련 활동	11.4%	20.7%
2. 교육, 훈련, 도서	튜터, 강사	19.7%	35.0%
3. 음식 조리, 서빙	식품 수집/조리/배분/서빙	15.1%	29.7%
4. 의료 전문직, 기술직	상담, 치료, 응급서비스	11.4%	18.3%
5. 법률 전문직	관리지원, 이사/위원 활동	23.3%	36.1%
6. 관리직	관리지원, 이사/위원 활동	15.5%	27.4%
7. 사무, 행정직	일반 사무지원	6.9%	16.2%
8. 영업, 판매직	모금, 모금용 판매활동	14.2%	31.9%

자료: CNCS 2008.

끝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전문기술을 잘 활용하는 전문 직업인은 다른 일반 자원봉사자에 비해 더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가? 미국의 2005-7년 기간의 조사 결과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측면에서 전문봉사자와 일반 봉사자 사이에는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의 직업 분류에서 관리직에서는 지속활동 비율이 전문봉사자 82.3%, 일반 봉사자 69.5%, 사무/행정직에서 61.2%로 큰 차이가 있다(CNCS 2008). 그렇지만 나머지 6개 직업군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직업 유형별로 참여하는 재능기부의 활동 중 가장 많은 Top #1에 해당되는 활동을 보면(표 2-4), 모금활동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튜터, 강사, 멘토링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2-4〉 미국인 직업 유형별 재능기부 Top #1 활동

직업 유형	직업 유형별 top #1 재능나눔 활동	
〈관리와 전문직〉		
관리	모금활동 또는 모금을 위한 판매활동	30.8%
비즈니스와 재무 관리	모금활동 또는 모금을 위한 판매활동	33.4%
컴퓨터와 수학	모금활동 또는 모금을 위한 판매활동	25.0%
건축과 엔지니어링	일반 기술과 교통수송	26.7%
생명, 물리, 사회	모금활동 또는 모금을 위한 판매활동	27.9%
지역사회와 사회서비스	튜터, 강사, 청소년 멘토링	29.0%
법률	전문 또는 관리직 (이사회, 위원회 등)	36.1%
교육, 훈련, 도서	튜터, 강사 35.0%	
예술, 디자인, 여가, 스포츠, 미디어	모금활동 또는 모금을 위한 판매활동	27.7%
보건의료, 보건의료기술	모금활동 또는 모금을 위한 판매활동	28.7%
〈서비스, 판매, 사무직〉		
보건의료 사무	모금활동 또는 모금을 위한 판매활동	30.2%
안전 보안 서비스	모금활동 또는 모금을 위한 판매활동	28.1%
음식 서빙	음식 모집, 배분, 서빙	29.7%
건축, 빌딩 보수유지	음식 모집, 배분, 서빙	27.0%
개인 케어와 서비스	모금활동 또는 모금을 위한 판매활동	28.0%
판매	모금활동 또는 모금을 위한 판매활동	31.9%
사무행정(노무/기술)	모금활동 또는 모금을 위한 판매활동	32.7%
농어임업	일반 기술과 교통수송	36.0%
건설과 광물	일반 기술과 교통수송	36.6%
설치, 보수, 수송	일반 기술과 교통수송	29.5%
생산	일반 기술과 교통수송	28.7%
수송/ 자재 운반	일반 기술과 교통수송	28.9%

자료: CNCS 2008.

이를 관리와 전문직, 서비스/판매/사무직, 노무/기술로 구분해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리와 사무직의 경우, 모금과 모금을 위한 판매활동이 거의 30% 가량으로 많은 편이다. 서비스/판매/사무직에서도 모금과 모금을 위한 판매활동이 30% 정도로 Top #1을 차지하며 또 음식 모집, 배분, 서빙도 중요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올라 있다. 노무와 기술직의 경우, 전체가 일반 기술과 교통수송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기업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장 최근의 자료로는 기업사회공헌위원회의 〈Giving in Numbers 2011〉를 참고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160개 기업들이 조사에 응했는데, 2010년, 프로보노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44개였으며, 이 중 28개 기업은 국내 프로그램만, 6개 기업은 국내/해외 프로그램을 모두 실시했다. 프로보노 봉사활동에 참여한 기업들을 업종별로 보면, IT(56%), 보건(52%), 금융(31%), 필수소비재(20%), 공공서비스(17%) 등으로 나타났다.

3) 서구와 한국 비교

이상과 같이 서구에서는 전문봉사활동이 비교적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미국 자원봉사자는 복지서비스 전문활동보다는 교육과 레포츠 분야의 코치/심판/튜터와 멘터 활동이 21.6%로 가장 중요한 전문봉사활동이다. 뒤이어 카운슬링, 보건, 구호(3.2%), 위원회/전문자문 활동(7.2%), 음악, 예술공연(4%) 등 전문활동(재능기부)이 절반에 가깝다(USBLS 2011).

유럽 7개국 조사에서는 상담과 정신건강 전문활동이 덴마크(12%), 벨기에(14%), 독일(18%),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21-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이에 비교해, 한국에서는 전문봉사활동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도 전문봉사활동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100명중 16명이 전문봉사활동을 하였다고 답하였다. 전문봉사활동으로는 이/미용 5%, 요리 10%, 의료 12%, 아동 학습지도 24%, 통/번역 3%, 공연 9%, 평생학습 8%, 전문상담 5%, 운전 9%, 주택수리 10% 등이다(통계청 2011 사회조사 DB).

(2) 블런티어21의 2011년 기부와 자원봉사 조사

또 블런티어21의 2011년 전국조사 결과를 보면(표 2-5), 단순 일손돕기가 가장 많고, 대인 서비스도 적지 않지만, 그밖에 교육, 상담, 스포츠와 여가 지도 등 재능기부(전문봉사)활동은 극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한국인 자원봉사자의 역할

활동내용	2011년	2008년
일손돕기	42.0%	39.2%
대인서비스	11.7	14.0
교통질서 계도, 방법	7.2	8.9
교육	7.2	6.5
재난구조, 소방, 안전예방	6.2	4.4
환경보전, 문화재보호	4.8	3.4
보건, 의료	3.3	5.8
상담	3.3	2.7
행정 사무보조	3.1	1.7
모금	2.9	1.7
기능 및 숙련 기술 지원	2.4	0
지역사회개발	1.9	2.4

캠페인	1.4	1.7
스포츠, 여가지도	0.7	1.4
문화예술해설, 공연	0.7	0.7
국제교류	0.5	0
위원회	0.5	0.7
조사연구	0.2	0.3

자료 : 불런티어 21, 2011.

(3)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2011년 현황조사

끝으로, 전국의 시도, 시군구 246개 자원봉사센터 현황조사에서 파악된 전국 재능기부 현황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행정안전부 2012).

〈표 2-6〉 전국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중인 재능기부단(전문자원봉사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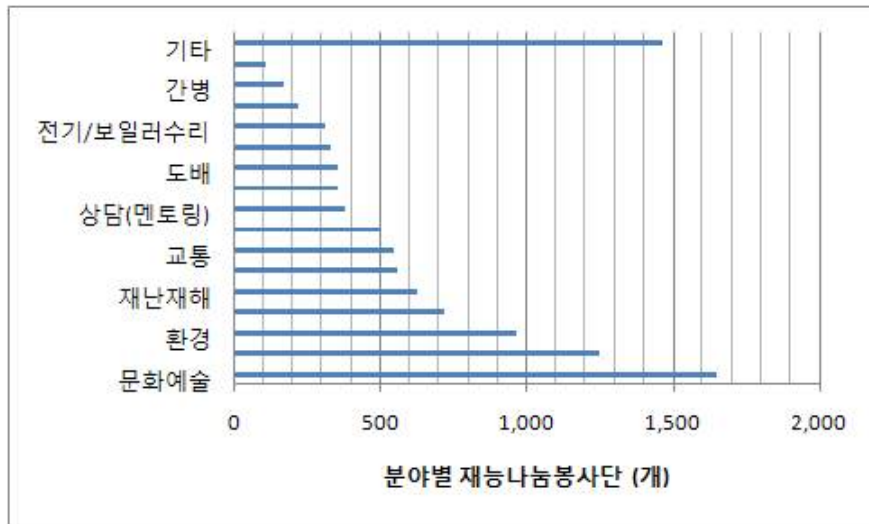
시도	구분	계	전기·보일러수리	도배	간병	무료진료	이미용	안마·마사지	풍선아트·종이접기	상담(멘토링) 등	교육	문화예술	재난재해	방법범죄	환경	교통	조리급식	외국어통역	기타
계	단체	10,470	307	354	166	329	558	354	217	378	715	1,646	626	1,244	964	545	502	104	1,461
서울	단체	925	17	29	5	42	43	34	20	38	57	139	40	34	47	88	68	15	209
부산	단체	553	8	25	7	12	25	14	9	16	57	98	31	62	70	36	32	13	38
대구	단체	669	19	11	24	28	43	19	20	22	56	107	44	106	28	19	23	6	94
인천	단체	287	6	11	6	7	16	17	14	6	16	64	10	37	37	14	11	5	10
광주	단체	81	5	2	1	3	9	10	4	2	5	15	2	4	5	4	1	0	9
대전	단체	280	2	5	3	4	13	8	1	6	10	35	43	94	12	17	11	4	12
울산	단체	211	7	15	2	15	15	14	5	9	25	59	15	3	3	3	2	3	16
경기	단체	2704	57	66	59	71	125	52	46	103	245	449	119	339	186	148	103	18	518
강원	단체	731	34	50	5	18	38	17	10	32	39	119	110	119	36	39	18	5	42
충북	단체	590	12	20	7	11	47	24	12	28	25	79	14	90	11	20	34	1	155
충남	단체	235	7	13	1	3	21	15	9	13	10	54	12	27	8	5	10	1	26
전북	단체	293	9	15	8	17	20	29	11	5	11	48	20	17	16	8	21	4	34
전남	단체	1,104	52	39	7	57	66	26	15	19	67	109	33	148	285	28	52	12	89
경북	단체	842	20	25	9	13	39	35	25	26	27	139	53	89	80	37	65	4	156
경남	단체	702	40	23	16	17	28	32	16	46	60	82	15	49	118	63	42	7	48
제주	단체	263	12	5	6	11	10	8	0	7	5	50	65	26	22	16	9	6	5

자료: 행정안전부, 2011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전국 자원봉사센터에서 조직되어 운영되는 재능기부단(전문봉사단)의 현황을 보면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체로는 전국에 1만개가 넘는 봉사단들이 있다(표 2-6).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천개를 넘는 가장 많은 봉사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서울에는 925개의 재능기부 봉사단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재능기부의 유형별로는 일상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재능기부 유형들이 많은데, 그 중 문화예술에 가장 많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문화예술 분야에 139개의 봉사단들이 활동하며, 다음으로 환경 88개, 조리급식 68개, 이미용 43개, 무료진료 42개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전국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재능나눔봉사단 현황



다음으로,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인원은 전국적으로 50만명이 넘는 인원으로, 서울시민은 5만7천명이 활동하고 있다.

재능기부 활동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경우 교통과 환경, 문화예술 순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표 2-7〉 전국 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전문봉사) 참여 자원봉사자 현황

시도	구분	계	전기·보일러수리	도배	간병	무료진료	이미용	안마·마사지	풍선아트·종이접기	상담(멘토링) 등	교육	문화예술	재난재해	방범범죄	환경	교통	조리급식	외국어통역	기타
계	인원	576,014	15,032	24,213	10,228	13,545	18,977	10,440	5,314	15,319	27,163	45,968	45,625	81,757	55,602	83,890	38,662	4,668	79,611
서울	인원	57,110	656	5,724	247	1,483	1,909	1,263	811	962	2,112	3,240	2,184	5,637	3,702	16,115	2,150	274	8,641
부산	인원	33,054	264	1,479	316	386	417	336	132	563	2,304	3,055	2,094	3,201	4,626	5,164	3,249	645	4,823
대구	인원	287	6	11	6	7	16	17	14	6	16	64	10	37	37	14	11	5	10
인천	인원	16,198	209	745	323	915	631	575	224	422	510	1,876	923	1,896	4,474	1,426	557	186	306
광주	인원	2,319	102	70	21	77	76	268	28	25	138	292	198	583	67	143	5	0	226
대전	인원	10,043	83	538	133	147	432	237	5	239	464	619	705	2,538	376	2,682	273	29	543
울산	인원	11,647	694	1,463	40	830	258	402	184	196	1,048	1,435	1,757	353	94	1,912	55	312	614
경기	인원	196,218	1,927	2,747	4,645	4,847	4,374	2,249	1,043	4,343	10,981	13,061	14,621	29,052	15,447	30,508	12,132	906	43,335
강원	인원	34,013	1,074	1,541	109	749	884	784	160	1,091	672	1,783	7,248	6,688	1,155	8,296	383	104	1,292
충북	인원	20,285	845	957	596	202	1,868	643	257	799	572	1,717	933	4,195	588	1,628	901	5	3,579
충남	인원	13,831	254	896	111	134	1,057	446	240	453	529	1,320	977	2,910	1,155	510	1,986	27	826
전북	인원	16,359	427	364	346	605	717	637	457	102	170	1,494	2,194	2,916	902	706	1,288	966	2,068
전남	인원	39,955	1,353	2,621	241	561	1,070	552	423	1,164	812	3,171	1,449	5,818	10,258	3,025	3,963	419	3,055
경북	인원	35,037	799	2,585	249	506	1,257	601	464	1,333	639	5,076	1,810	3,540	3,984	2,831	3,791	45	5,527
경남	인원	38,778	4,589	1,832	1,119	610	1,351	747	431	2,003	4,012	2,411	2,887	4,786	4,286	3,098	3,215	329	1,072
제주	인원	19,279	957	160	624	294	1,289	198	0	352	281	1,533	3,891	2,665	1,857	3,511	1,342	191	134

자료: 행정안전부, 2011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3. 전국 재능기부 현황

- 1) 16개 시도 현황
- 2) 재능기부 유형별 재능기부자 특성

3. 전국 재능기부 현황과 재능기부자 특성

1) 전국 16개 시도 현황

통계청(2011)의 사회조사 통계DB를 분석해보면, 재능기부(전문봉사) 활동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전문봉사활동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자원봉사자 가운데 16%가 전문봉사활동을 하였다고 답해, 대다수가 비전문 봉사활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설문결과인데, 자원봉사자 대다수가 자원봉사는 비전문활동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전문봉사활동으로는 이/미용 4.6%, 요리 9.7%, 의료 11.6%, 아동 학습지도 24.1%, 통/번역 2.8%, 공연 9.1%, 평생학습 7.7%, 전문상담 5.6%, 운전 9%, 주택수리 10.1%, 기타 5.7% 등이다.

(1) 16개 시도 비교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시와 울산시로, 서울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 2% 가량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능기부 참여율의 경우, 자원봉사자 중 재능기부 참여율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16.5%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평균 수준보다 1% 정도 높은 편이다. 대전시는 21%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뒤를 이어 전북은 19.5%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재능기부자를 100명으로 보면 서울시는 12.4명으로 경기도(12.6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재능기부자를 갖고 있다. 인구비례로 보면 재능기부자가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1〉 재능기부자와 일반봉사자 비교 : 전국 16개 시도, 2011년

	자원봉사 참여율	일반봉사자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중 재능기부자	재능기부자 100명 중
서울	19.3%	16.1%	3.2%	16.5%	12.4명
부산	19.8	16.6	3.2	16.3	6.8
대구	20.1	18.1	2.0	9.9	6.3
인천	19.4	16.0	3.4	17.4	6.4
광주	24.9	21.3	3.6	14.4	5.2
대전	20.4	16.1	4.3	21.0	5.4
울산	23.9	20.5	3.4	14.3	4.5
경기	20.8	17.6	3.2	14.2	12.6
강원	20.0	16.7	3.3	16.5	5.2
충북	19.1	15.6	3.5	18.2	5.5
충남	22.8	18.9	3.9	17.2	5.0
전북	18.4	14.8	3.6	19.5	5.5
전남	22.5	19.4	3.1	13.6	5.2
경북	24.6	22.0	2.6	10.7	5.2

경남	22.4	19.2	3.2	14.3	5.7
제주	22.5	19.0	3.5	14.4	3.3
(평균)	21.1	17.8	3.3	15.5	전국 100명

자료: 통계청 2011 사회조사 통계DB.

(2) 재능기부자의 활동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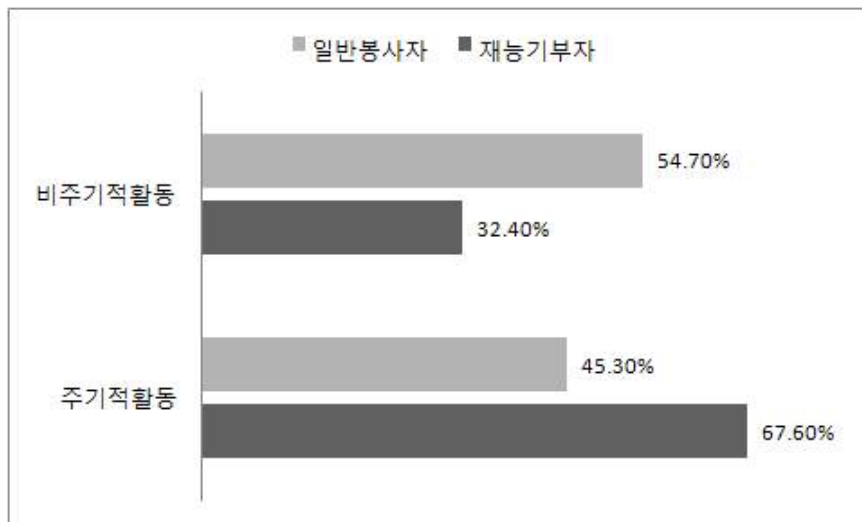
재능기부자와 일반봉사자는 활동 주기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재능기부자가 더 정기적으로 주기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지난 1년간 주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가?

	주기적 활동자	비주기적 활동자
재능기부자	67.6%	32.4%
일반봉사자	45.3%	54.7%

N=8002. 유의도 p<.000

〈그림 3-1〉 주기적 활동 : 재능기부자와 일반봉사자 비교



재능기부자의 활동기간은 주단위와 월단위가 많은 편이고, 일반봉사자는 더 드물게 반기, 분기 단위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자원봉사활동은 주, 월, 반기, 분기활동을 했는가?

	주단위	월단위	반기단위	분기단위	기타
재능기부자	9.3%	22.5%	17.4%	15.4%	2.9%
일반봉사자	2.9%	10.1%	15.1%	15.6%	1.5%

N=8002. 유의도 p<.000

(3) 향후 지속 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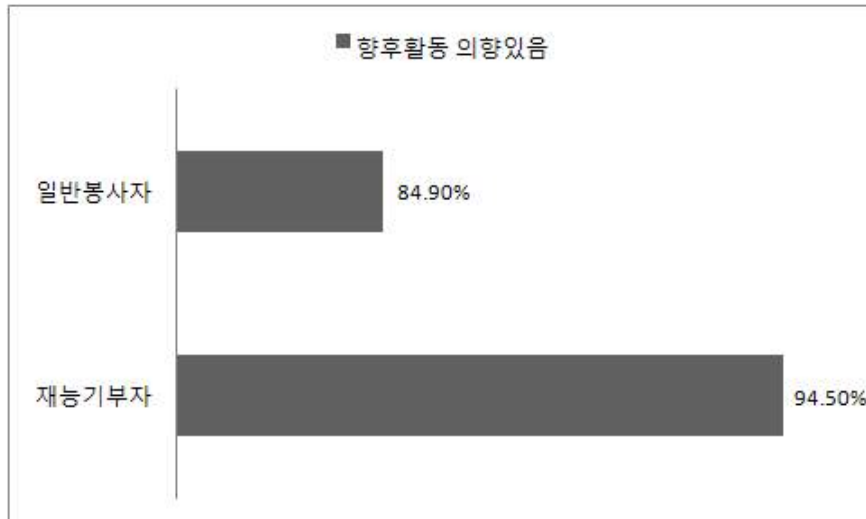
향후에도 활동을 지속할 것인지, 의향을 묻은 결과, 재능기부자가 일반봉사자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표 3-4〉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 여부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재능기부자	94.5%	5.5%
일반봉사자	84.9%	15.1%

N=8002. 유의도 p<.000

〈그림 3-2〉 향후 지속활동 의향 있음 : 재능기부자와 일반봉사자 비교



2) 재능기부 유형별 재능기부자 특성

(1) 참여 경로

재능기부자의 참여 경로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로는 직장이나 학교이다. 이를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나 아동학습 활동 절반 이상이 직장이나 학교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문상담이나 평생학습 활동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단체를 통한 활동이 가장 많은 재능기부 유형은 운전, 공연, 이미지용 활동 순서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인의 권유를 통한 경로에서는 통번역, 요리, 이미용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요처 홍보에서는 공연, 이미용, 평생학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밖에도 대중매체에서는 통번역과 주택수리, 인터넷을 통해서도 통번역과 아동학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3-5〉 재능기부 활동의 참여 경로 : 활동 유형별, 2011년

	이미용	요리	의료	아동학습	통번역	공연	평생학습	전문상담	운전	주택수리
직장/학교	27.5	33.9	53.5	51.7	30.0	31.0	44.3	46.4	26.0	36.2
종교단체	24.6	19.8	16.0	12.9	16.7	25.0	18.6	23.2	34.1	18.5
지인 권유	24.6	25.6	12.5	15.0	26.7	14.7	15.5	14.3	17.9	22.3
수요처홍보	17.4	9.1	9.7	7.0	10.0	20.7	15.5	10.7	13.8	13.1
대중매체	4.3	9.1	5.6	5.9	6.7	1.7	2.1	3.6	5.7	6.2
인터넷	0	0	0.7	7.0	10.0	0.9	2.1	0	1.6	2.3
기타	1.4	2.5	2.1	0.3	0.0	6.0	2.1	1.8	0.8	1.5

자료: 통계청 2011 사회조사 통계DB.

(2) 재능기부의 정기적 활동 : 활동 유형별

재능기부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렇다는 긍정의 답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참여의 정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 빈번한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활동 유형에 따라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유형 중에서 주단위나 월단위 활동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들로는 이미용과 아동학습으로 나타나, 이 둘은 가장 활성화된 재능기부 활동으로 꼽아볼 만하다.

〈표 3-6〉 재능기부 활동의 정기적 활동 : 활동 유형별, 2011년

	이미용	요리	의료	아동학습	통번역	공연	평생학습	전문상담	운전	주택수리
주기적 활동	69.6	64.6	63.2	66.4	63.3	68.1	63.9	69.6	70.7	72.3
주단위	8.7	7.4	4.2	12.6	6.7	9.5	9.3	7.1	13.8	5.4
월단위	36.2	23.1	15.3	23.1	16.7	23.3	23.7	17.9	22.0	18.5
분기단위	11.6	16.5	18.8	17.8	23.3	23.3	12.4	6.1	13.8	20.0
반기단위	1.4	3.3	2.8	1.7	6.7	1.7	3.1	8.9	4.9	3.1

자료: 통계청 2011 사회조사 통계DB.

(3) 재능기부 연간 활동 회수 : 활동 유형별

재능기부 활동 회수를 살펴보면, 활동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이미용의 경우, 연간 11-15가 가장 많아 전체 77.5%를 차지하고, 요리의 경우는 1-3회도 40% 이상 많지만, 6-12회도 3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3-7〉 재능기부 활동 회수(1-21회 이상) : 활동 유형별, 2011년

	이미용	요리	의료	아동학습	통번역	공연	평생학습	전문상담	운전	주택수리
1회	9.8	16.3	17.9	11.8	25.0	9.0	13.4	12.1	9.3	19.7
2회	14.7	12.0	20.5	15.3	18.7	11.5	22.4	18.2	15.1	28.2
3회	9.8	13.0	8.0	6.5	6.2	11.5	4.5	15.2	7.0	5.6
4회	4.9	6.5	12.5	7.4	12.5	10.2	7.5	12.1	10.5	14.1
5회	4.9	4.3	5.3	8.3	25.0	7.7	3.0	6.1	9.3	2.8
6-10회	9.8	18.5	14.3	10.5	6.2	23.0	14.9	15.2	11.6	11.3
11-12회	30.0	16.3	4.4	9.6	6.2	9.0	11.9	6.1	10.5	9.9
13-15회	47.5	2.2	0.9	17.5	0.0	0.0	6.0	0.0	0.0	1.4
16-20회	6.5	2.2	5.3	9.2	0.0	2.5	6.0	3.0	3.5	2.8
21회+	13.0	8.7	10.7	19.6	0.0	15.4	10.4	12.1	23.2	4.2

자료: 통계청 2011 사회조사 통계DB.



4. 서울시 재능기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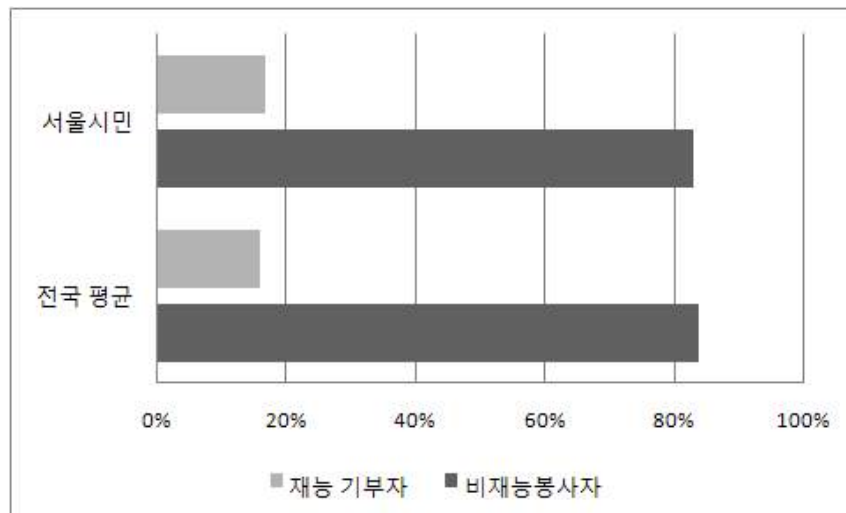
- 1) 전국과 서울시 비교
- 2) 서울시 재능기부자 특성
- 3) 재능기부 유형별 재능기부자 특성

4. 서울시 재능기부 현황과 재능기부자 특성

1) 전국과 서울시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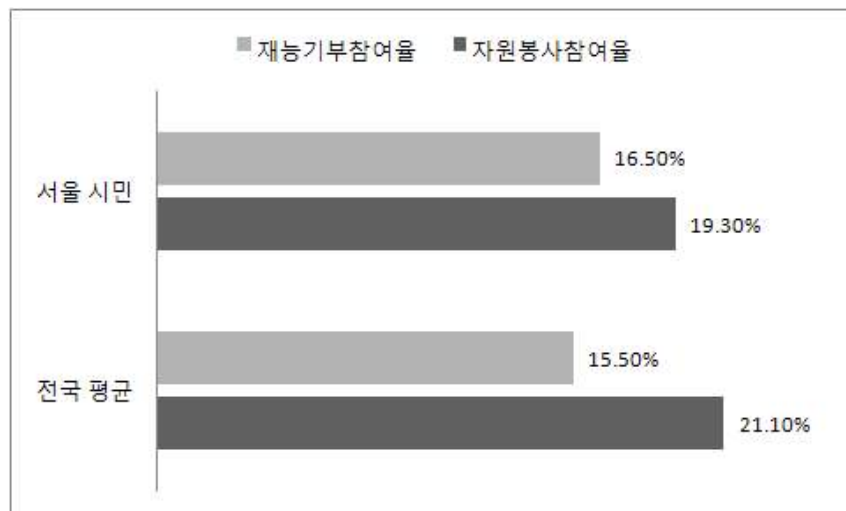
전국 평균에 비교해보면, 서울시 재능기부자의 참여도는 전국 평균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다. 자원봉사자 중 재능기부자 비중은 전국 평균이 15.5%인데, 그 비중이 서울시의 경우 16.5%로 전국 평균보다 1% 높은 수준에 있다.

〈그림 4-1〉 재능기부자 참여도 : 전국과 서울시 비교



한편 서울시는 자원봉사 참여율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 2% 낮은 수준에 있지만, 재능기부 참여율에서 전국 평균보다 1%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그림 4-2〉 자원봉사 참여율과 재능기부 참여율 : 전국과 서울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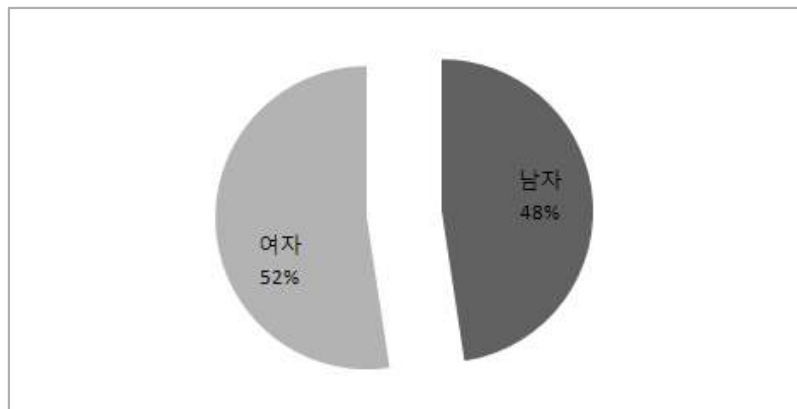
2) 서울시 재능기부자의 일반적 특성

통계청이 2011년에 조사한 “사회조사”의 통계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전국 38,012명 가운데 서울시민은 4,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서울시 재능기부자의 성별

재능기부자 중 남자 48%, 여자 52%로, 여자가 다소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다. 일반 자원봉사자 참여도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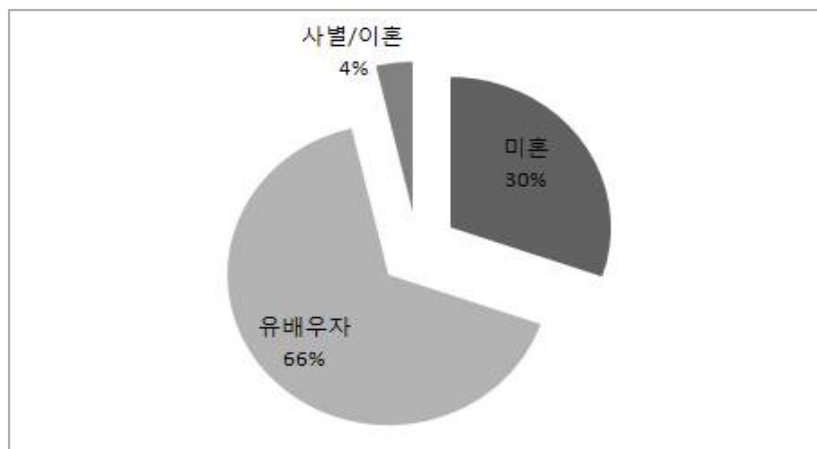
〈그림 4-3〉 서울시 재능기부자 : 성별



(2) 서울시 재능기부자의 혼인상태

재능기부자 중 유배우자들이 미혼자나 사별/이혼자에 비해 훨씬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다. 미혼의 젊은층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기혼자들의 재능기부가 훨씬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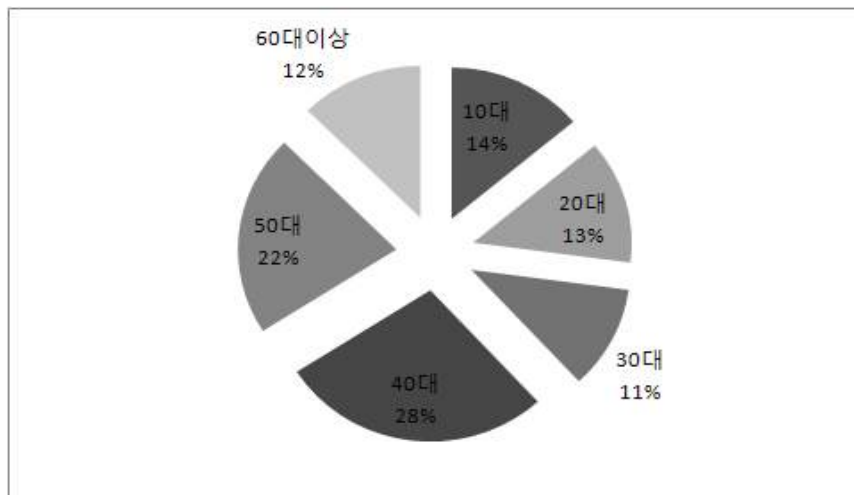
〈그림 4-4〉 서울시 재능기부자 : 혼인상태



(3) 서울시 재능기부자의 연령

재능기부자의 연령에서는 40대가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10대, 20대, 30대 젊은층과 60대 이상의 고령층 참여도가 가장 낮다.

〈그림 4-5〉 서울시 재능기부자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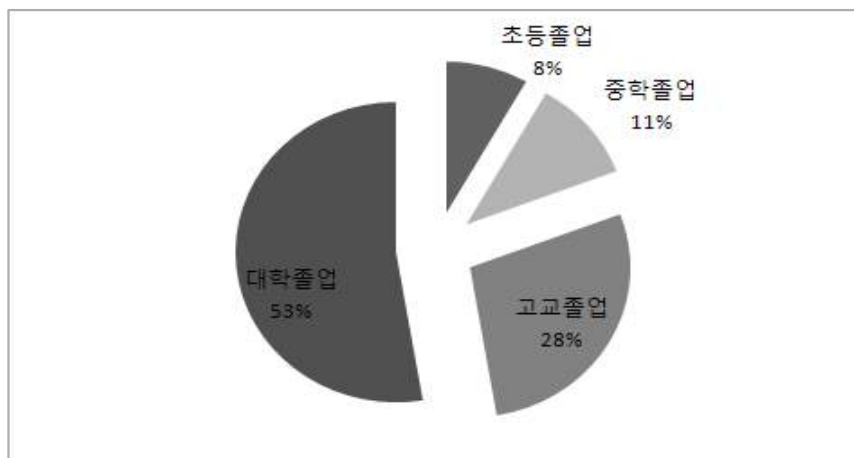


(4) 서울시 재능기부자의 교육수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재능기부에서도 재능기부자의 교육수준에서는 초등졸업 -> 중학졸업 -> 고교졸업 -> 대학졸업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비례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능기부의 특성상 교육수준이 재능기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재능기부 활동 유형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4-6〉 서울시 재능기부자 :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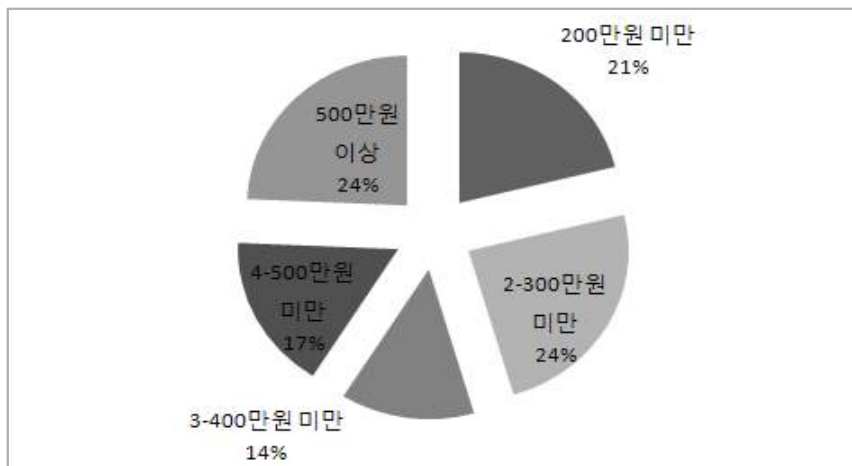


(5) 서울시 재능기부자의 가구소득 수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소득 수준이 높으면 자원봉사참여율도 높아진다. 재능기부의 경우는 재능기부자의 가구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참여도가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교육수준에 따른 노블리스 오블리주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월 가구소득 200-300만원 수준의 중저소득층의 참여도와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24%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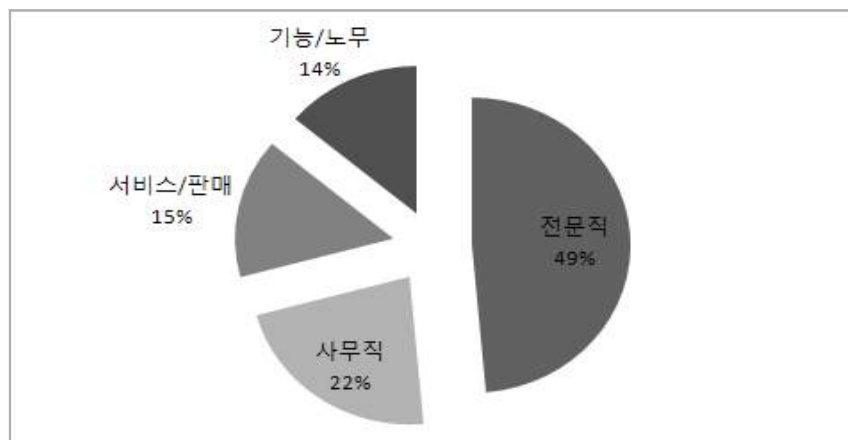
〈그림 4-7〉 서울시 재능기부자 : 가구소득



(6) 서울시 재능기부자의 직업 유형

전문직이 전체 절반 가량의 높은 참여 비중을 차지한다. 재능기부의 특성상 전문직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사무직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 전문직과 사무직 등의 기업 단위의 재능기부 활동이 중요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8〉 서울시 재능기부자 :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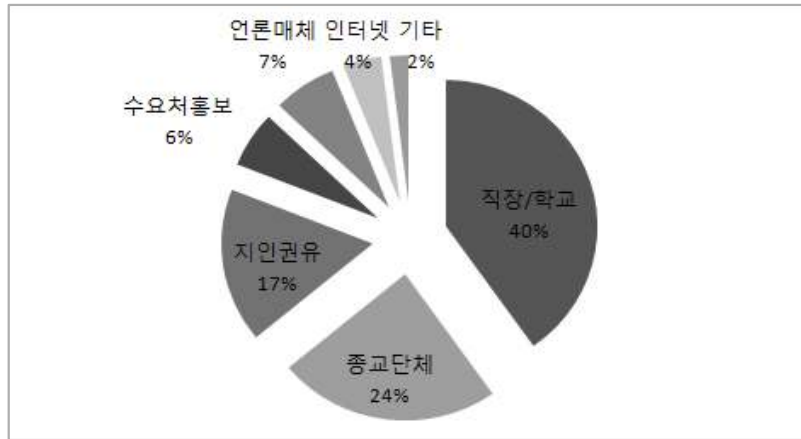


(7) 서울시 재능기부자의 참여 경로

재능기부자들이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경로 중 직장이나 학교를 통한 경로가 가장 중요하고, 종교 단체도 뒤를 이었다.

그밖에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 등의 지인의 권유에 의한 참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하며, 기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수요처의 홍보에 의한 참여나 언론매체의 홍보를 보 고 참여하는 사례, 인터넷을 통한 참여 등이 뒤를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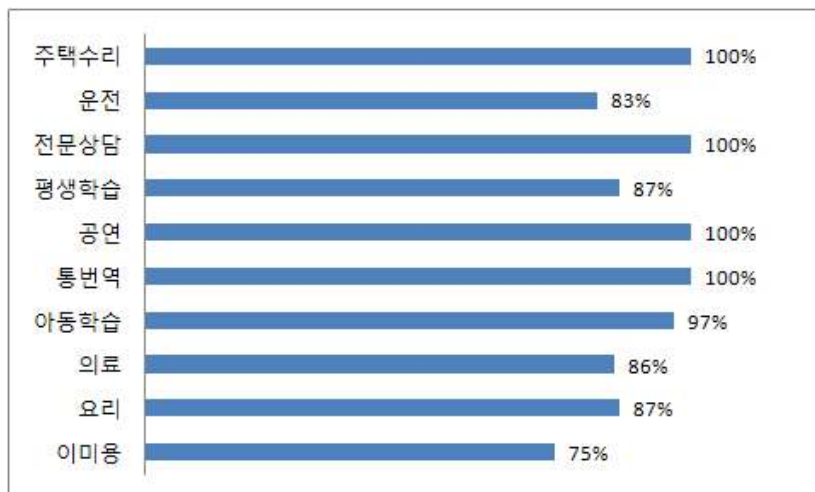
〈그림 4-9〉 서울시 재능기부자 : 참여 경로



(8) 재능기부 유형별 향후 활동 의향

향후에도 활동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를 11개 재능기부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그림 4-10〉과 같다. 완벽한 100% 참여 의향을 밝힌 영역들은 통/번역, 공연, 전문상담, 주택수리 등이며, 다른 영역들도 일반 자원봉사자의 참여 의향보다 훨씬 높은 참여 의향도를 보여준다.

〈그림 4-10〉 서울시 재능기부 유형별 향후 지속활동 의향



3) 서울시 재능기부 유형별 재능기부자 특성

앞서 제시한 10가지 재능기부 유형별로 재능기부자의 특성을 성별, 혼인상태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직업별, 참여경로별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이미용 재능기부자

이미용 재능기부자는 여성(75%)이 남성(25%)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미혼자(75%)가 유배우자(25%)보다 더 많으며, 연령별로는 젊은층보다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없으며, 소득수준도 월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75%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직업분류에서는 표의 일반 직업 분류에 없는 자영업이나 무직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직장/학교/단체를 통해서, 또는 종교단체나 언론매체를 통해 참여하였다.

(2) 요리 재능기부자

요리 재능기부자는 여성(63%)이 남성(37%)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미혼자(27%)보다는 유배우자(73%) 참여가 훨씬 많으며, 연령별로는 10대, 20대, 30대, 60대 이상이 각기 25%로 구성되어 있다.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초졸 이하 저학력자 참여가 가장 많으며, 소득수준에는 계층간 차이 없이 고루 참여하고 있다. 직업분류에서는 표의 일반 직업 분류에 없는 자영업이나 무직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직장/학교/단체를 통해서, 또는 종교단체나 언론매체를 통해 참여하였다.

(3) 의료 재능기부자

의료전문 재능기부자는 여성(86%)이 남성(14%)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미혼자(28%)보다는 유배우자(64%) 참여가 훨씬 많으며,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다.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고졸 학력자 참여가 가장 많으며, 소득수준에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참여가 가장 많다. 직업분류에서는 전문직이 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은 종교단체나 지인의 권유로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4) 아동학습 재능기부자

아동학습 재능기부자는 여성(85%)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미혼자(49%)가 유배우자(48%)와 비슷한 참여율을 보여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고, 10대와 20대 참여가 뒤를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이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고졸과 초졸 학력자 참여도 높은

편이다. 소득수준에는 계층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고른 참여를 보여주며, 직업분류에서는 전문직이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직업 분류에 없는 자영업이나 전업주부 등의 참여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습 재능기부자들은 지인권유(4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종교단체나 언론매체를 통한 참여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5) 통번역 재능기부자

통번역 재능기부자는 여성(80%)이 남성(20%)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미혼자(80%)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20대가 60%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고졸 학력자 참여가 가장 많으며, 소득수준에는 200만원 이상의 저소득층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 등으로 볼 수 있다. 직업분류에서는 전문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은 종교단체, 지인권유, 언론매체,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하였다.

(6) 공연 재능기부자

공연 재능기부자는 여성(78%)이 남성(22%)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미혼자(44%)와 유배우자(44%) 참여가 같은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10대와 40대가 가장 많지만 다른 연령층 참여도 적지 않게 고른 편이다.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고졸 학력자 참여가 가장 많지만 중졸과 초졸의 저학력층 참여도 적지 않다. 소득수준에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참여가 가장 많지만 다른 소득층 참여도 적지 않다. 직업분류에서는 전문직이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직업 분류에 없는 자영업이나 전업주부 등의 참여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연 재능기부자들은 종교단체나 지인의 권유로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7) 평생학습 재능기부자

평생학습 재능기부자는 남성(62%)이 여성(38%)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미혼자(27%)보다는 유배우자(73%) 참여가 훨씬 많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고졸 학력자 참여가 가장 많지만 초졸의 저학력층 참여도 적지 않다. 소득수준에는 계층간 구분이 없을 정도로 고루 참여하고 있다. 직업분류에서는 전문직이 절반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은 지인의 권유로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8) 전문상담 재능기부자

전문상담 재능기부자는 남성(73%)이 대부분이며, 미혼자(28%)보다는 유배우자(64%) 참여가 훨씬 많으며,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다.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대부분이며, 소득수준에는 계층간 구분없이 고루 참여하고 있다. 직업분류에서는 사무직이 전문직보다 더 많이 참여하며, 전문상담 재능기부자들은 주로 지인의 권유로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9) 운전 재능기부자

운전 재능기부자는 남성(58%)이 여성(42%)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들의 대부분은 유배우자(92%)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다.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고졸 학력자 참여가 가장 많으며, 소득수준에는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계층간 참여의 차이는 크지 않다. 직업분류에서는 전문직과 기능노무직이 가장 많지만 직업분류에 없는 자영업자나 은퇴자, 전업주부 등도 적지 않다는 것으로 엿볼 수 있다. 운전 재능기부자들은 종교단체나 지인의 권유, 언론매체를 통해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10) 집수리 재능기부자

집수리 재능기부자는 대부분이 남성(85%)으로, 모두가 유배우자이며,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고졸 학력자 참여가 가장 많으며, 소득수준에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 고루 참여하고 있다. 직업분류에서는 전문직과 기능노무직이 가장 많으며, 이들은 지인의 권유, 종교단체, 언론매체를 통해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5. 재능기부 유형별 분석

- 1) 재능나눔 캠페인 DB 분석
- 2) 자원봉사센터 자료 분석

5. 재능기부 유형별 분석

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재능나눔 캠페인 DB분석

□ 재능나눔 캠페인 개요

한국자원봉사협의회(한봉협)는 자원봉사 참여율을 증진시키고자 지난 2010년부터 봉사자와 수요자의 욕구를 고려한 자원봉사의 뉴트랜드로 ‘재능을나눔시다’ 캠페인을 펼쳤다. 자신의 기술, 지식 등 전문성과 재능을 기부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조선일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주최하였으며 250여 개의 협력단체가 동참했다.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확대하고자 한봉협내에 봉사와나눔운동분부를 별도로 운영하였으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재원마련과 홍보 역할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담당하고 조선일보는 ‘재능을 나눔시다’ 캠페인 기획기사를 연재하여 참여의 극대화에 기여했다.

〈그림 5-1〉 ‘재능을 나눔시다’ 홍보 포스터



〈그림 5-2〉 ‘재능을 나눔시다’ 캠페인 조선일보 기사



□ 재능나눔 5대유형 현황

(1) 유형별 정의

재능나눔운동본부는 캠페인의 활성화를 위해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과 재능을 기부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를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캠페인성 프로젝트명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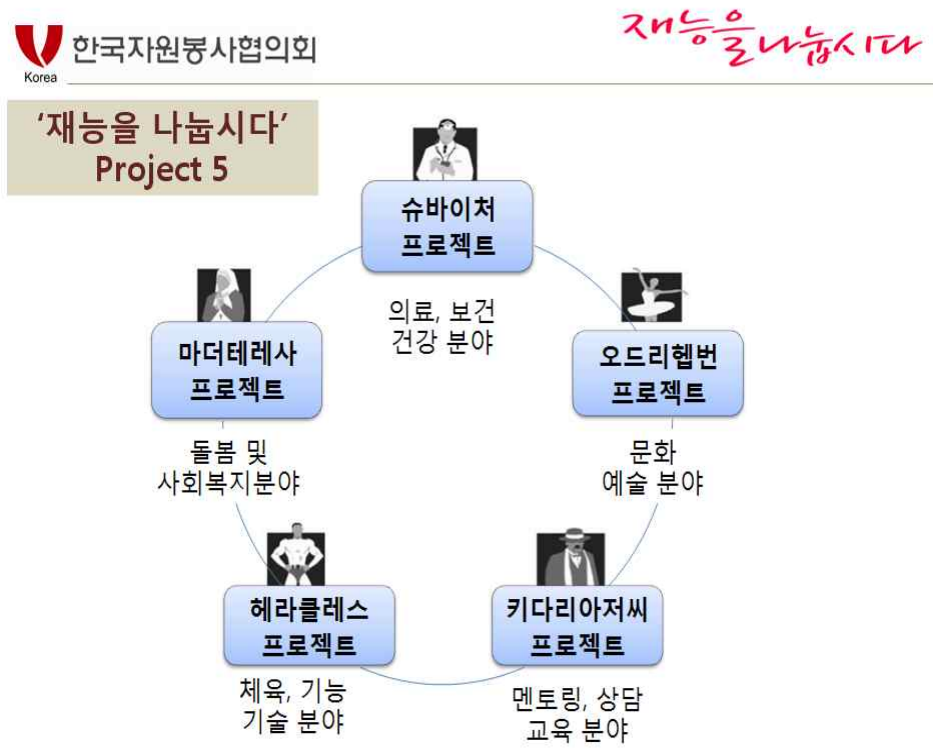
의료와 보건 등 건강 관련 분야는 슈바이처프로젝트, 공연활동 및 관람기회와 사진 및 영상 등 문화와 예술 분야는 오드리헵번프로젝트, 기관을 방문해 봉사 및 물품, 후원금을 지원하는 보호와 돌봄은 마더테레사프로젝트, 결연 및 멘토, 상담과 교육 부분은 키다리아저씨프로젝트, 집수리, 도배 등 기능·기술 및 체육활동은 헤라클레스프로젝트로 구분했다.

2010년 캠페인 결과, 재능기부처와 수혜처는 협력단체로서 동참하였고 봉사ونا눔운동본부와 협력단체는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와 연계활동을 전개했다.

봉사ونا눔운동본부는 접수 및 상담, 홍보이벤트 기획, 봉사자와 수혜처 직접 연계활동, 언론에 기사자료 제공, 협력단체와의 워크샵 등 네트워크업무를 전담했다.

협력단체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단체, 복지재단, 기업 및 공공단체 등이 참여하여 봉사자 연계 및 사례발굴, 캠페인 후원 등 역할을 담당했다. 재능을나눔시다 홈페이지에서는 재능나눔운동을 안내하고, 재능을 기부받거나 재능을 기부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접수받고, 연계사례 제공 및 실무자와의 정례모임이나 소통의 장으로 활용했다.

〈그림 5-3〉 한국자원봉사협회의 ‘재능을 나눴시다’ 프로젝트명



〈그림 5-4〉 캠페인 참가방법 및 대상



(2) 재능기부 유형별 사례

재능을 나눴시다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개인 재능기부자도 참여율이 높았지만 복지관 및 시설, 자원봉사센터, 기업 등 기관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나 이들 기관들과는 협력단체 가입을 유도하여 연계, 사업공동기획 및 운영 등을 실시했다. 대국민 참여의 극대화를 위해 프로젝트별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했다. 협력단체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현황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효과적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하였다. 협력단체와 연계는 기관장의 관심도와 의지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자체 주요업무나 행사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는 협력관계가 원활히 유지되지 않았으며 또한 개인 기부 참여자의 조직화와 육성 등도 중요한 역할로 강조되었다.

〈표 5-1〉 '재능을 나눴시다' 캠페인의 프로젝트별 사례

프로젝트명	구분	활동내용
오드리햅번 (문화·예술)	예술	- 이제석 디자이너 포스터 디자인 - '지붕뚫고 하이킥'서신애의 포스터모델 기부 - 이상봉 디자이너의 재능나눔 티셔츠 디자인 및 판매수익금 기부
	문화	- 고양아람누리(고양문화재단), 국립극장 등 문화소외계층의 공연관람 기회제공 - 미래사회복지사와 음악인의 재능나눔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과동아리, 경희대음대 등 그룹홈 아동 대상 음악교육 실시 및 뮤지컬단 구성후 공연
슈바이처 (의료·건강)	건강	- 대한약사회의 전국 시군구 300여개 거점약국 선정해 소외계층 방문 건강상담 및 교육
헤라클래스 (체육·기술)	기술	- 두산중공업의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 - 인테리어25시봉사단의 꽃동네노숙자쉼터 리모델링 - 열린사회시민연합의 저소득가정 접수리
마더테레사 (돌봄·복지)	돌봄	- SPC그룹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의 푸드뱅크 및 저소득아동 제빵교육 및 생일파티 실시
키다리아저씨 (교육·상담)	상담	-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협의회 법률상담
	교육	- 한국생산성본부 IT재능나눔 컴퓨터교육
	강연	- 유명인사(멘토)의 한부모가정, 새터민 대상 찾아가 는 강연

〈표 5-2〉 협력단체 재능나눔 연계활동 사례(복지관)

협력단체명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기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성화에 적극적 참여 - 도봉구내 복지관과 시민단체와 지역네트워크 활발 - 주1회 신청자의 연계시간 1~2시간 소요 - 월1회 신청자는 적절한 봉사프로그램 발견어려움 - 담당자와 기관장의 지역네트워크 및 외부활동에 적극적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봉협: 도봉구지역 기부 및 기부받기 신청자 이관 및 프로그램 공동기획 - 복지관: 이관된 신청자 봉사프로그램과 연계
기관 진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도, 집수리활동, 연극치료, 무료급식 배달 - 홈페이지, 자체봉사자 홍보, VMS, 구센터 등 통한 모집 - 초기 면접진행(전화, 면대면) - 각 사업팀별 심층면접 - 자원봉사교육(분기별, 보수교육 수시진행) - 팀별 간담회 - 종합평가

〈표 5-3〉 협력단체 재능나눔 연계활동 사례(기업)

협력단체명	마이크임팩트
기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기획 전문 예비사회적 기업(소셜벤처) - 강연기부 관련 조선일보 기사를 통한 협력단체 신청 - 실무진 10명으로 프로젝트별로 활동 - 내부직원과 재능나눔 캠페인에 대한 공유 - 사회적기업 준비를 위한 언론노출 희망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봉협: 월별 강연테마 및 강연자 후보군 설정 - 마이크임팩트: 강연섭외 및 전체 진행 코디역할
기관진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장윤주, 김제동, 노홍철 등) 강사진구성 및 강연기획

〈표 5-4〉 협력단체 재능나눔연계활동사례(광역센터)

협력단체명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기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사업 관련 주요 사업 실시 - 개별 자치구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업무협조 원활 - 센터내 직접연계(특히 개인사례)는 매우 힘드나 담당자가 개별적 연계 시도 노력함 - 센터 특성상 수요처 발굴업무 하지 않아 재능나눔 신청자 연계에 한계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봉협: 서울시내 신청자 자치구별 데이터 이관 (연계 불가능한 건수 최소화하여 전달) - 센터: 자체 프로그램(통역) 연계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자치구로 이관
기관 진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센터 홈페이지 및 1365 전화 접수 - 자원봉사 기초교육 - 자원봉사 수첩 작성 등

〈표 5-5〉 협력단체 재능나눔 연계활동 사례(기초센터)

협력단체명	김해시자원봉사센터
기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성있는 자원봉사 관리 - 지역사회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설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원활 - 기관장이 재능나눔 캠페인 관심 많음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봉협: 신청자를 센터로 이관, 프로그램 공동기획 - 센터: 이관된 봉사자 연계 및 봉사활동 전개지원, 지역내 사례발굴 및 프로그램 공동기획
기관 진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이관된 봉사자 특기 소개 및 연계 - 센터홈페이지에 봉사자 특기사항 게재 및 홍보 - 조선일보 재능나눔 사례기사 센터내 소개 및 게시 - 지속적으로 센터 소식지 발송 - 지역사회 기관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자원봉사자 관리 및 상호 의견교류

〈표 5-6〉 협력단체 재능나눔 연계활동 사례(직능단체 및 공공기관)

협력단체명	한국생산성본부
기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지도사업, 인재개발, 기업인 자기계발, 생산성통계 작성, 학술조사 연구 및 발간사업 등 생산성 향상기여 - ITQ교육으로 소외계층 지원희망, 자체 전국25개 지역센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ITQ교육 지원 - 전문위원이 ITQ교육업무 총괄, 회장(최동규) 소외계층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정보화교육과 국가공인자격 취득지원에 적극적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봉협: 컴퓨터 무료교육 희망기관(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 소개 - 한국생산성본부: 지역의 25개 센터 ITQ전문 공인강사를 지원받아 기관에서 무료강의 실시
기관 진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ITQ교육 시행기관 선정 및 연계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8주과정 실시 컴퓨터기초, 아래한글, 파워포인트 및 자격시험응시 지원)

□ 재능기부 신청현황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전국단위의 재능나눔과 재능기부받기 신청을 재능나눔 홈페이지와 전화접수 방법으로 접수받았다. 신청현황 자료분석은 지역적 선택을 명확히 한 신청건수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수가 적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나 추이를 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능나눔 캠페인을 처음 실시한 2010년 서울지역의 재능기부 신청은 872건이었다. 그중 문화와 예술 분야가 310건(35.6%)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돌봄·복지 분야는 290건(33.3%), 교육·상담 분야 158건(18%), 체육·기능 분야는 66건(7.6%)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건·건강 분야는 48건(5.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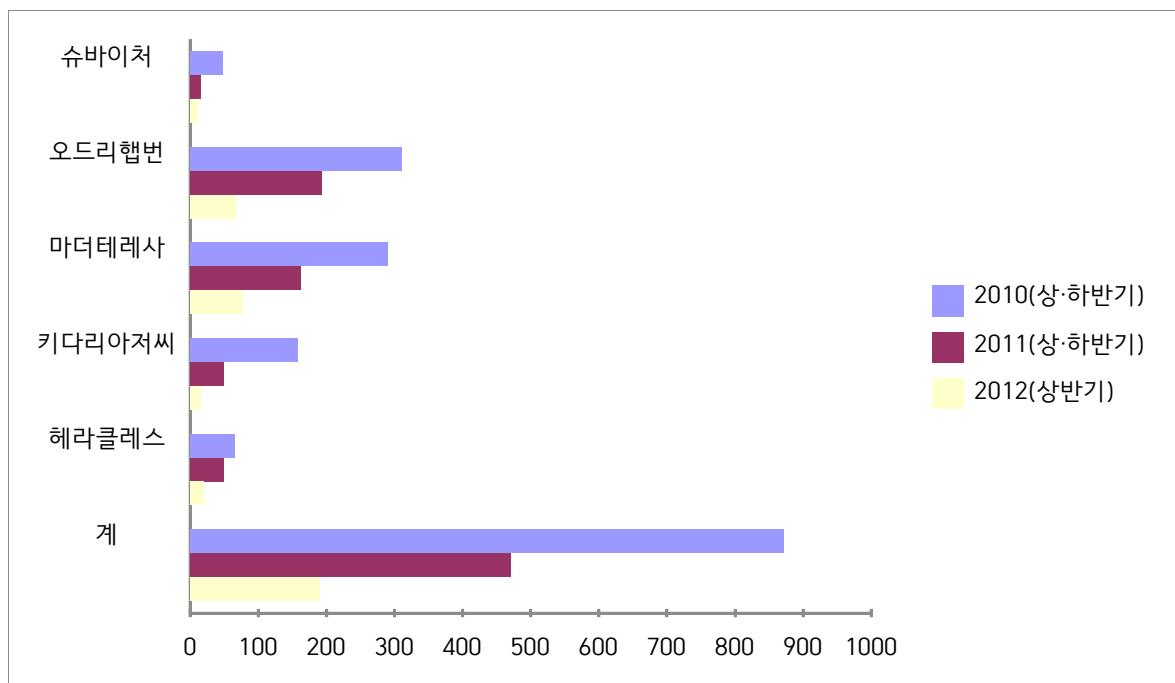
2010년에 이어 2011년과 2012년 상반기까지 유형별 재능기부 신청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돌봄·복지가 공통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상담, 체육·기능 분야로 나타났고 보건·건강 분야는 신청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 전문적인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년 분야별 신청순위는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재능나눔 캠페인을 처음 시작하면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켜 2010년 상반기에 재능나눔 신청건수가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표 5-7〉 서울지역 5대 유형별 재능기부 신청현황

단위: 건수(%)

유형	2010(상·하반기)	2011(상·하반기)	2012(상반기)
슈바이처 (보건·건강)	48(5.5%)	16(3.5%)	11(5.6%)
오드리햅번 (문화·예술)	310(35.6%)	193(40.9%)	67(35.2%)
마더테레사 (돌봄·복지)	290(33.3%)	162(34.4%)	77(40.3%)
키다리아저씨 (교육·상담)	158(18%)	50(10.6%)	16(8.4%)
헤라클레스 (체육·기능)	66(7.6%)	50(10.6%)	20(10.5%)
계	872	471	191

〈그림 5-5〉 서울지역 5대 유형별 재능기부신청 변동추이



학력별 재능기부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초대졸이상 이 4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졸이하는 33.6%, 대학원이상은 20%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에도 2011년과 같이 초대졸이상 > 고졸이하 > 대학원이상 순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1년 신청자 중에서 초대졸이상 신청자는 학생, 전문직, 사무직 등 다양한 직업군이 분포되었으며, 고졸이하는 대부분 학생이었다. 중학생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이 34.5%, 초등학생이 7.8%의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대학원이상의 신청자 중에는 전문직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직종이 14.5%를 차지해 전문직 종사자의 재능기부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 재능기부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에 학생이 각각 46.1%, 55%로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전문직이 두 번째로 많이 신청했다. 전체 직업별로는 학생 > 전문직 > 기타 > 사무직 > 자영업 > 무직 > 공무원 > 종교인 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 재능기부 신청자 중에서 학력별로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 살펴본 결과, 공무원은 대학원이상 이 대부분이었으며, 자영업, 사무직, 무직, 기타직종에서는 초대졸이상의 학력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전문직종에서는 초대졸이상 > 대학원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생의 분포도는 중학생 > 전문대이상 > 고등학생 > 대학원이상 > 초등학생 순으로 나타나, 중학생과 전문대이상이 많이 차지했고 상대적으로 대학원이상과 초등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 재능기부 신청현황에서는 2011년과 2012년 상반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에서 학생이 60.3%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기타직종이 13.2%, 사무직이 8.8%, 나머지 직종은 모두 5%이하로 나타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청율이 낮았는데 여성에 비해 학생을 제외하고는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에서는 학생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종사자가 25.4%, 기타 12.7%, 사무직이 9.5% 순이었으며, 나머지는 공무원, 무직, 자영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재능기부 신청현황은 2011년 20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50대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체 순위로는 2011년은 20대 > 10대 > 30대 > 40대 > 50대 순으로 나타났고, 2012년 상반기는 20대 > 30대 > 10대 > 40대 > 50대 순으로 나타나 20대의 재능기부 관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8〉 서울지역 학력별 재능기부 신청현황

단위: 명(%)

유형	2011(상·하반기)	2012(상반기)
고졸이하	116(33.6%)	35(23.6%)
초대졸이상	160(46.4%)	76(51.4%)
대학원이상	69(20%)	37(25%)
합계	345	148

〈표 5-9〉 서울지역 직업별 재능기부 신청현황

단위: 명(%)

구분	2011(상·하반기)	2012(상반기)
사무직	38(11%)	21(14.3%)
전문직	81(23.5%)	41(28%)
공무원	4(1.2%)	1(0.1%)
학생	159(46.1%)	55(37.5%)
자영업	10(2.9%)	3(2.1%)
종교인	1(0.1%)	1(0.7%)
무직	8(2.4%)	2(1.5%)
기타	44(12.8%)	23(15.8%)
합계	345	147

〈표 5-10〉 서울지역 성별 재능기부 신청현황

단위: 명(%)

유형	2011(상·하반기)	2012(상반기)
남성	68(20%)	37(26.8%)
여성	252(73%)	101(73.2%)
합계	320	138

〈표 5-11〉 서울지역 연령별 재능기부 신청현황

단위: 명(%)

유형	2011(상·하반기)	2012(상반기)
10대	70	23
20대	153(68.6%)	63(73.3%)
30대	65	28
40대	18	15
50대	7	6
합계	313	135

□ 서울지역 5대 유형별 재능기부 받기 신청현황

한편, 2010년 재능기부받기 신청은 552건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돌봄과 복지 부분이 176건(3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와 예술 부분은 164건(29.7%), 교육과 상담 부분은 100건(18.1%), 체육과 기능 부분은 74건(13.4%)순이며 보건과 건강 부분은 38건(6.9%)으로 가장 낮았다. 재능나눔 신청자 중에는 문화와 예술분야가 가장 많았으나, 재능을 기부받고자하는 수요처는 돌봄과 복지분야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재능을 나누고자 하는 건수와 재능을 기부받고자 하는 건수를 비교해보면 2010년 신청자간의 양적 차이는 크게 나타났는데 재능기부 신청자가 재능을 기부받고자 하는 건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2011년에는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다가 2012년 상반기 신청 접수결과, 재능을 기부받고자 하는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능나눔캠페인 초기에 범국민적으로 크게 붐이 일어나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를 연계할 구조적, 재정적 제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기부참여자를 연계시킬 수요처 발굴 등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 참여도는 점점 줄어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재능을 기부받고자 하는 수요처 중에서는 복지시설이 2011년, 2012년 상반기에 각각 132건(40.9%), 55건(3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개인 기부수요처가 2011년과 2012년에 각 108건(33.4%), 47건(23.5%)으로 나타났고 학교와 교육 기관은 13건(4.0%), 7건(4.2%)였으며 2011년에 자원봉사센터는 단 1건만 수요처로 신청했다.

〈표 5-12〉 서울지역 5대 유형별 재능기부받기 신청현황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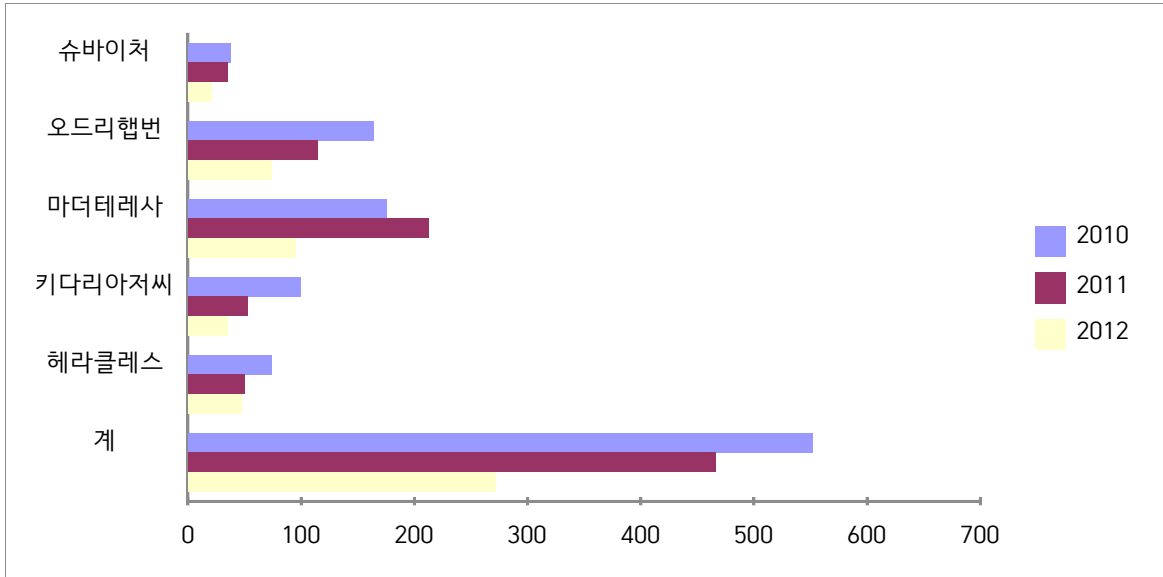
유형	2010	2011	2012
슈바이처(보건·건강)	38(6.9%)	35(7.5%)	21(7.7%)
오드리햅번(문화·예술)	164(29.7%)	115(24.7%)	74(27.3%)
마더테레사(돌봄·복지)	176(31.9%)	213(45.7%)	95(35%)
키다리아저씨(교육·상담)	100(18.1%)	53(11.4%)	35(12.9%)
헤라클레스(체육·기능)	74(13.4%)	50(10.7%)	47(17.3%)
계	552	466	272

〈표 5-13〉 서울지역 재능기부 수요처 현황

단위: 건수

수요처	2011	2012상반기
자원봉사센터	1(0.3%)	0
학교·교육	13(4.0%)	7(4.2%)
복지시설	132(40.9%)	55(33.1%)
도서관	9(2.8%)	4(2.4%)
병원·보건소	9(2.8%)	10(6.0%)
협회	6(1.9%)	3(1.8%)
평생학습관	1(0.3%)	1(0.6%)
사회적기업	1(0.3%)	0
개인	108(33.4%)	47(28.4%)
기타	43(13.3%)	39(23.5%)
계	323	166

〈그림 5-6〉 서울지역 5대 유형별 재능기부받기 현황



□ ‘재능을 나눴다’ 캠페인 실적

(1) 2010년 ‘재능을 나눴다’ 현황

① 사업 개요

- 주 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조선일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주 관 : 봉사나눔 운동본부(한국자원봉사협의회)
- 후 원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문화체육관광부 · SK텔레콤
- 기 간 : 2010년 1월~12월
- 내 용 : 자원봉사를 접하기 어려운 일반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인 및 유명인사의 이름을 프로젝트로 내세워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와 분야를 소개하여 흥미와 관심을 증대시켰다.

〈표 5-14〉 재능을 나눴다 프로젝트명

프로젝트명	오드리 햅번 프로젝트
의 도	미모와 끼를 사용한 재능 나눔
활동영역	예술 · 문화 · 환경
활동분야	공연활동/ 관람기회 제공/ 사진 · 영상 촬영 등

프로젝트명	마더 테레사 프로젝트
의 도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재능 나눔
활동영역	복지시설 봉사 및 후원
활동분야	기관방문 봉사/ 물품 및 후원금

프로젝트명	슈바이처 프로젝트
의도	특별한 재능을 활용한 재능나눔
활동영역	의료
활동분야	의료활동/ 의료활동을 위한 기부 / 의료활동 보조 / 기타 대체의학 활동
프로젝트명	키다리아저씨 프로젝트
의도	누군가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재능 나눔
활동영역	결연 · 멘토 · 상담 · 교육 등
활동분야	1:1 결연, 장학금/ 교육기회제공 / 심리상담 등
프로젝트명	헤라클라스 프로젝트
의도	전문기술을 활용한 모든 재능 나눔
활동영역	기능 · 기술
활동분야	제과제빵/ 집수리/ 도배/ 종이접기/ 미용/ 운전/ 배송 등

② 사업 목적

- 남녀노소, 사회지도층과 일반인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재능을 자원봉사로 연결시켜 자원봉사 문화 정착
- 재능나눔 봉사자의 조직화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문봉사활동 생성
- 자원봉사의 질적 성숙 도모
-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고조 및 확대

③ 참가대상

- ‘재능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
- 캠페인 시작과 더불어 ‘재능나눔 봉사자’ 접수 (재능나눔 운동본부 홈페이지)
-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개인, 기관, 단체 등 봉사처 및 수혜처도 접수

〈표 5-15〉 주요 캠페인 참여현황

기관명	연계/활용내용	계획	실적
조선일보	캠페인 공동주최(홍보)	계속	평균 주 3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캠페인 공동주최(기부금 관리) 참여자 확보(아너소사이어티 회원), 홍보, 활동지원협력	계속	19명
우주호와 음악친구들	봉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음악회 연주	350명	348명
이제석 광고연구소, 서신애	‘재능을 나눴시다’ 캠페인 포스터디자인 재능나눔 / 서신애 모델	전국 배포/2천장	전국 배포/ 5천장

spc 그룹	설맞이 프로그램 (보육시설 아동과 떡 만들기)	330명/ 지속	330명/ 지속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협의회	법률봉사 및 노력봉사	152명	152명
한국생산성본부	전국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IT교육	30명/ 지속	30명/ 지속
수빈아카데미	결혼이주민여성 취업교육 (구로건강가정지원센터 '메이크업 교육')	20명	20명
이상봉 디자이너 /유명 모델의 재능나눔	'재능나눔 티셔츠'제작	1000장	2000장
	아프리카 아동 지원 착한상품 '에코백' 제작	500장	500장
	'재능나눔 티셔츠'모델: 장동건, 홍명보, 김연아, 황정음, 이상화, 이승훈, 모태범, 2am, 진지희 등	5명	13명
박준 뷰티랩	소외계층 성인에게 미용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진행	10명	10명
각계 전문가 홍보대사로 재능나눔	각계 전문가의 재능나눔에 참여 : 엄홍길, 이봉주, 이상봉, 남경주, 박경철, 이순재, 우주호, 박미경, 정훈희, 네바다51, 대한약사회	10명 /지속	11팀 /지속
인테리어 25시봉사단	노숙인 쉼터 '서울꽃동네사랑의 집' 리모델링 집수리 봉사	5개 기관 집수리봉사	15개 기관 및 가정 집수리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모금방송) 현대인터넷쇼핑몰 Hmall의 '사랑나눔스타 경매'	유명인 20여명 참가	유명인 40여명 참가
대한빙상연맹	동계스포츠 선수의 재능나눔 참여협조	10명	11명
신세계백화점	아프리카 아동 지원 착한상품 '에코백' 제작 및 판매	500장	500장
대한약사회	약사들의 재능나눔: 전국 구단위를 거점약국으로 약물오남용교육, 수혜자 상담 등	50개/ 지속	250개 /지속
예술의 전당 외 27개 기관 및 단체	객석나눔 소외계층에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국립극장, 금호아트홀, 예술의 전당, 삼성리움미술관, AK아트홀, 고양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LG아트센터, 연극열전, 의정부예술의전당, 개미프로덕션, 영음예술기획, 마포아트센터, 국립부산국악원, KT문화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28개 기관 및 단체	20개 기관 /지속	28개 기관 /지속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외215개	재능나눔 프로그램 기획 및 활동 지원 협력, 활동사례제공, 홍보 등	30개	216개
MOU 체결기관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해운대. 교육청을 비롯한 16개 기관(관공서, 재단, 기업 등)	5개	16개

④ 성과 및 의의

- 우리사회 양극화 현상 및 사회분열 등 사회회통합 일환으로 봉사과 나눔문화를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민간대표기구로서 전개
- 나눔과 기부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민간단체, 공익재단, 기업 사회공헌 등이 공동참여하여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 기존의 많은 형식적 캠페인의 한계를 넘어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자 전국 규모의 전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방안 모색
- 2010년 '재능을 나눴시다' 캠페인 진행으로 구체적인 나눔과 봉사의 방법을 제시 및 참여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

(2) 2011년 '재능을 나눴시다' 사업 현황

① 사업 개요

- 주 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후 원 : 행정안전부, SK텔레콤
- 기 간 : 2011년 1월~12월

② 사업 목적

- 2010년에 이어 남녀노소, 사회지도층과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재능을 자원봉사로 연결시켜 자원봉사 문화 정착
- 사회지도층 및 기업 재능나눔 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 지역사회 재능나눔 활동단체 발굴 및 지원
- 지역, 기관 네트워크 형성 및 재능나눔 사업 연계 추진

③ 참가대상

- 캠페인 시작과 더불어 재능나눔 봉사자접수(재능나눔운동본부 홈페이지)
-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개인, 기관, 단체 등 봉사처 및 수혜처 접수
- 사회지도층 및 기업 대상

④ 재능나눔 프로그램

〈표 5-16〉 2011년 ‘재능을 나눴다’ 주요사업 현황

사업명	비고
연평도 평화의 섬 만들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 3.12~13(1박 2일) ○장소: 연평도(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대상: 독거어르신 6가구 ○내용: 집수리, 물품전달 등 ○참여대상: 봉사자 60명 참여(인추협, 본죽 본사랑, 코레일, 봉사단체 등 참여)
특수상황지역 재능나눔버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 8.18 ○장소: 군사경계지역(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대상: 대성동초등학교 학생 ○내용: 역사교육, 연극 활동 ○참여대상: 봉사자 50명
재능나눔 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10.25 ○장소: 예술의 전당 ○대상: 자원봉사자 및 시민대상 2,000명 ○내용: 자원봉사활동기금마련을 위한 음악회 실시
엄홍길 등반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11.12 ○장소: 도봉산 ○대상: 엄홍길, 시각장애인아동, 자원봉사자, 등산가 100여명 참여 ○내용: 엄홍길 대장과 산행을 통해 시각장애아동들과 자원봉사자가 만남을 통해 봉사와의 나눔, 꿈과희망 심어줌
재능나눔 포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12.2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대상: 기업사회공헌 담당자 100명 ○내용: 기업 사회공헌의 변화과정 및 재능나눔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
재능나눔 영상제작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12.1 ~12.31 ○장소: 지하철역 내부 ○대상: 서울시민 및 경기도민(1,2,3,4 호선 이용대상) ○내용: 재능나눔 참여독려 영상제작 및 홍보

〈표 5-17〉 2011년 주요 연계사업 현황

사업명	내용
중소기업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재능기부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협력내용: 중소기업중앙회의 인적·물적 자원후원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차세대신진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연계하여 재능기부 프로그램개발, 문화예술 지원처에 기부
2011 나라사랑 ITQ 새싹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기관: 한국생산성본부 ○협력내용: 전국단위 ITQ활동 무료지원
사랑의 객석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기관: 예술의전당, 개미프로덕션 등 공연관련 기관 및 공연장의 객석기부 진행
코레일 러브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기관: 한국철도공사 ○협력내용: 코레일 이용객들이 적합한 러브포인트를 소외층, 복지관의 열차이용 프로그램 활동시 좌석기부

⑤ 성과 및 의의

- 2010년 대국민 재능나눔 캠페인의 가시적 성과에 힘입어 전문화된 프로그램 실행
- 특수상황 및 특수지역의 전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 협력단체들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수요처와 연계활동을 통한 재능나눔의 지속성 극대화

(3) 2012년 '재능을 나눴다' 사업현황

① 사업 개요

- 주 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후 원 : 행정안전부
- 기 간 : 2012년 1월~12월

〈표 5-18〉 2012년 '재능을 나눴다' 주요사업(안) 현황

사업명	내용
재능나눔 홍보사업	○재능나눔 Viral 영상 제작 및 SNS 홍보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사업	○기간: 7월~11월 ○방법: 2개지역 시범사업실시 ○내용: 재능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사업
베이비부머 재능나눔 프로그램 모델 개발	○기간: :6월~12월 ○대상: 퇴직 및 퇴직전 베이비부머 ○내용: 유형별 모델 개발, 프로그램 운영방안, 자문위원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2012 재능나눔 공모사업	○기간: 4월~11월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10개 ○내용: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풀뿌리들의 재능나눔활동을 지원하고 우수기관 3기관 선정 후 발표

〈표 5-19〉 2012년 주요 연계사업 현황

사업명	내용
중소기업과 예술인이 함께 하는 재능기부 여행	○협력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협력내용: 중소기업중앙회의 인적·물적 자원후원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차세대신진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연계하여 재능기부 프로그램개발, 문화예술 지원처에 기부
사랑의 객석나눔	○협력기관: 예술의전당, 개미프로덕션 등 공연관련 기관 및 공연장의 객석기부 진행
코레일 러브포인트	○협력기관: 한국철도공사 ○협력내용: 코레일 이용객들이 적합한 러브포인트를 소외층돌봄기관들의 열차이용 프로그램 활동시 좌석기부

□ ‘재능을 나눴시다’ 캠페인 추진현황 분석

한봉협은 전국적인 재능나눔 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도권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쳤다. 재능기부자와 수요처에 대한 연계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전체 재능나눔 신청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많았다. 반면, 재능기부받기 신청자는 지방 거주자가 많이 분포되었다. 2010년 재능기부자와 수요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국내 최초로 재능나눔의 범국민적 붐 조성을 위한 언론보도 전략이 홍보효과로 크게 나타난 결과이다. 하지만 2011년부터 재능기부받기가 많아진 이유는 지속적 봉사활동이 어려운 신청자가 많아 연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특히 재능을 기부받고자 하는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은 지속적인 봉사를 원하지만, 한 달에 1~2회 봉사활동 하기를 희망하는 봉사자들이 많았다. 2010년에 비해 재능을 기부받고자 하는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이유는 재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재능기부참여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또한 프로젝트별, 지역별, 자원봉사 활동 내용 간에 괴리가 많았다. 재능나눔 신청자와 재능기부받기 신청자의 신청내용이 광범위하고 원하는 내용이 상이해 연계가 어려웠다. 재능나눔 연계는 쌍방의 요구 조건이 까다롭고 세부적인 요소를 파악하여 연계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재능을 나눴시다’ 캠페인 추진결과 분석

자원봉사 관리에 있어 인정과 보상 측면이든 관리의 효율적 측면이든 봉사시간 관리시스템은 자원봉사계의 큰 논란거리이다. 재능나눔 운동은 자원봉사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범국민 캠페인으로서 실제로 한봉협을 통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간인증을 거의 요구하지 않았으며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시간관리를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또한 재능기부 참여자 중 학생들의 재능기부 희망율이 높았는데 이들 대부분 재능기부에 대한 시간적립을 요구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봉사학점 이수를 위한 목적보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정과 보상 프로그램 개발이 과제이다.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에 기인한 자기만족감을 더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순수성 발현에 더 가까우므로,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현 자원봉사관리의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적관리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성과로는 언론과 자원봉사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캠페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으며, 한봉협 회원단체, 협력단체 등과 네트워크 형성 및 자원봉사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역할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마련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캠페인의 사후관리 시스템 미흡으로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재능나눔 연계는 재능기부자가 홈페이지에 자신의 특기, 재능, 해당분야(유형) 등 정보를 입력하고, 재능기부수요처 또한 수요에 대한 상세내용, 해당분야(유형) 등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이후 재능나눔운동본부의 연계담당자는 수요처와 유사한 내용의 재능기부자 현황을 정리하여 수요처로 발송하고 수요처에서는 이 현황을 보고 적절한 재능기부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활동여부를 조율하게 된다. 그러나 수요처에서 실제 활동결과를 피드백해주는 것이 쉽지 않고 관리자 또한 일일이 결과를 요구하

는게 쉽지 않아 재능기부 신청자의 활동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요처별로 실제활동 실적을 인구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사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으로 강조될 수 있다.

2) 자원봉사센터 자료분석

□ 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재능나눔) 활동현황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월, 25개 자치구자원봉사센터의 전문자원봉사단과 재능나눔 단체 실태파악을 한 결과, 전체 12개 분야에서 13,141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등 인구학적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지역별, 활동분야별 현황만 분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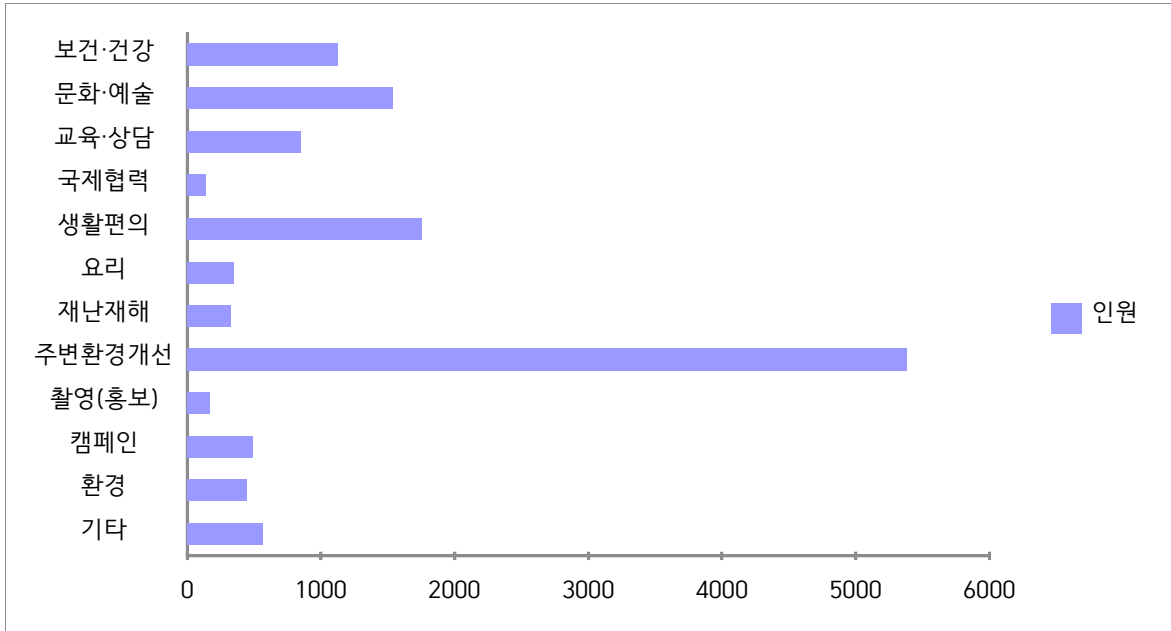
전체 참여자 중 활동분야별로 분석해 본 결과, 집수리, 도배, 장판 등 주변환경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자가 전체에서 41%인 5,384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이미용, 차량봉사, IT교육지원 등 생활편의 분야에서 13.3%인 1,752명이 참여했으며, 외국어통번역, 한국어교육 등 국제협력 분야가 1.1%인 141명으로 가장 적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2012 서울시 25개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활동 현황

단위: 명(%)

유형	활동내용	참여인원	비율
보건·건강	마사지,수지침,한방,치과,내과의료봉사	1,124	8.6
문화·예술	인형극, 전통놀이, 공연 등	1,537	11.7
교육·상담	교육 및 미술심리·전화·수감자상담	853	6.5
국제협력	외국어 통번역, 한국어교육	141	1.1
생활편의	이미용, 차량봉사, IT교육지원	1,752	13.3
요리	음식 조리, 배식	349	2.7
재난재해	설해, 수해복구, 긴급구호, 장애우 지원	327	2.5
주변환경개선	집수리, 도배, 장판, 청소	5,384	41
촬영(홍보)	취재, 사진촬영, 소식지제작	167	1.3
캠페인	환경, 재난재해 예방 및 홍보	492	3.7
환경	특강, 옴폼제작, 교육, 홍보	447	3.3
기타	공연 및 민원안내 등	568	4.3
합 계		13,141	100

〈그림 5-7〉 2012 서울시 25개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활동 현황



□ 자치구별 전문자원봉사단 현황

25개 자치구 중 지역별(동서남북)로 나누어 5개구의 전문자원봉사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는 참여자 260명(5개분야 7개팀) 중 교육분야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가 국제협력 분야였고 촬영(홍보) 분야가 세 번째로 나타났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는 전문자원봉사단의 활동이 25개 자치구중에 가장 많았으며, 환경개선 분야가 4,509명, 다음으로 생활편의 분야가 1,013명으로 나타났다. 강동구자원봉사센터는 전체 190명 중 환경 분야가 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예술분야가 45명으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노원구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문화·예술분야가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분야가 23명이었다. 중구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보건·의료 분야가 63명을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환경개선 분야가 30명으로 나타나 자치구별 전문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전문 분야에 대한 분류도 상이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관리서비스는 자원봉사(1365) 포털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나, 개인별 관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자원봉사 및 재능나눔은 단체활동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산시스템의 한계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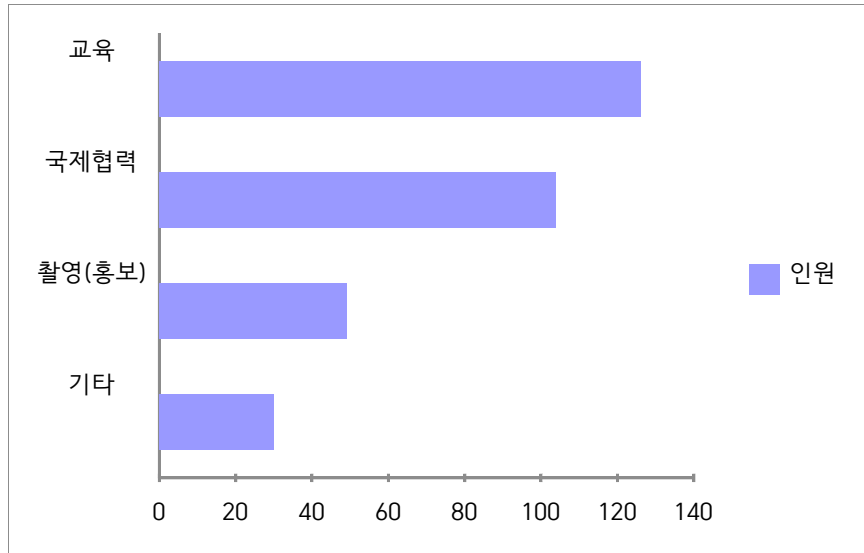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 전문자원봉사단의 활동결과에 따른 인구학적 통계분석이 어려운 관계로 구체적이고 폭넓게 유의미적 차이를 분석하는 데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자치구별 활동분야와 활동내용, 참여인원만을 참고하여 자치구별 전문자원봉사단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표 5-21〉 강남구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단위: 명

자치구		인원	활 동 내 용
강남구	교육	126	- 외국인 한글교육 - 중·고등학생, 성인, 단체 등 자원봉사 기본교육 실시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눔과 봉사에 대한 나눔교육 실시
	국제협력	104	- 관공서, 병원, 관광명소 등에서 외국인 대상 영어통역봉사활동 - 주한외교관과 1:1매칭,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한국생활 정착을 도움 - 핵안보정상회의, 여수엑스포 등 국제행사 통역
	촬영 (홍보)	49	-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현장 취재 및 촬영 / -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예정아 돌잔치, 가족사진 촬영
	기타	30	-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지방의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여 지방의원들의 의정수행역량 배가와 지방의회 운영수준 향상을 촉진
4개분야(7개팀) 260명			

〈그림 5-8〉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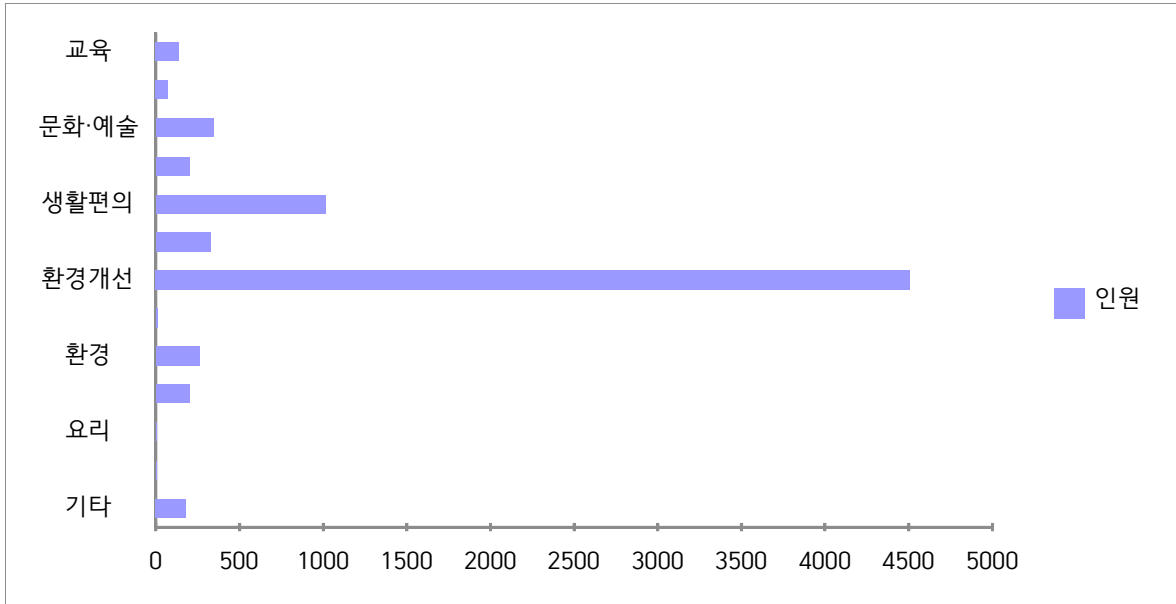
〈표 5-22〉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단위: 명

자치구	분야	인원	활동내용
서초구	교육	137	- 자원봉사기초교육강의(청소년 및 성인) - 취학 전 아동들에게 동화책 읽어주기 - 주1회 다문화가정 한자, 한글 방문교육 - 어린이 나눔교육(취학 전 아동) - 보육원 및 장애아동 배드민턴지도 - 보육원 및 저소득층 아동 태극권지도 - 복지시설, 저소득층아동에게 인라인, 농구, 축구, 헬스, 유아체육지도 등
	국제·협력	75	- 영어, 일어, 독일어, 중국어 통·번역
	문화·예술	344	- 댄스, 사물놀이, 합창 등 공연 - 관악합주(전직교장출신 9인조밴드), 트럼펫연주 - 올드팝 중창 - 풍선아트, 페이스패션페인팅, 케리커처 등
	보건·의료	200	- 발맞사지, 수지침, 약손요법 - 수지침, 압봉, 뜸, 부항 등 시술 - 치과진료
	생활편의	1,013	- 차량지원, 네일아트, 핸드온프로젝트, IT 교육
	재난재해	327	- 긴급구호 및 설해, 수해보구 - 북한 이탈주민
	환경개선	4,509	- 집수리, 도배, 페인트
	촬영(홍보)	12	- 센터 소식지 제작 및 캠페인 지원 - 어르신 영정사진 및 자원봉사행사 촬영 - 증명, 여권, 가족사진 촬영(스튜디오로 내방)
	환경	260	- 우면산 생태공원 안내 - 환경지킴이활동, 생태탐사교실강사 - 산림보호 및 자연보호 캠페인
	캠페인	200	- 캠페인활동
	요리	5	- 시설음식제공
	상담	5	- 상담 및 미술심리치료
	기타	179	- 상담(법원, 영사콜센터) 및 안내 등

13개분야(75개팀) 7,266명

〈그림 5-9〉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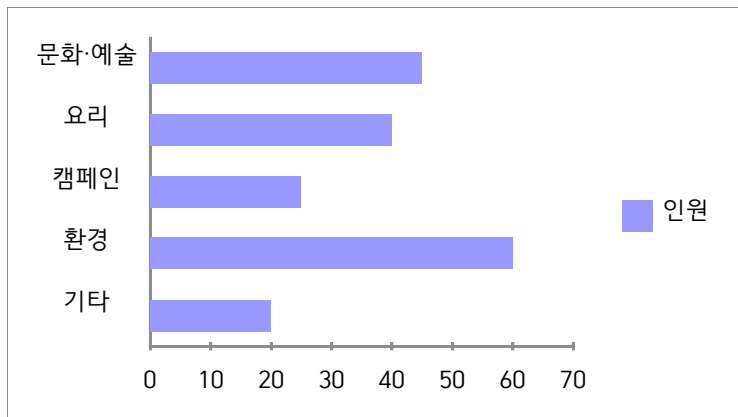


〈표 5-23〉 강동구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단위: 명

자치구	분야	인원	활동내용
강동구	문화·예술	45	- 자원봉사인형극 성학대예방인형극 - 전통놀이 홍보 및 보급
	요리	40	- 지역아동센터 간식조리
	캠페인	25	- 보이스피싱 예방 봉사활동
	환경	60	- 친환경 재활용품 제작 및 홍보활동
	기타	20	- 은퇴자 지역복지봉사 등
5개분야(6개팀) 190명			

〈그림 5-10〉 강동구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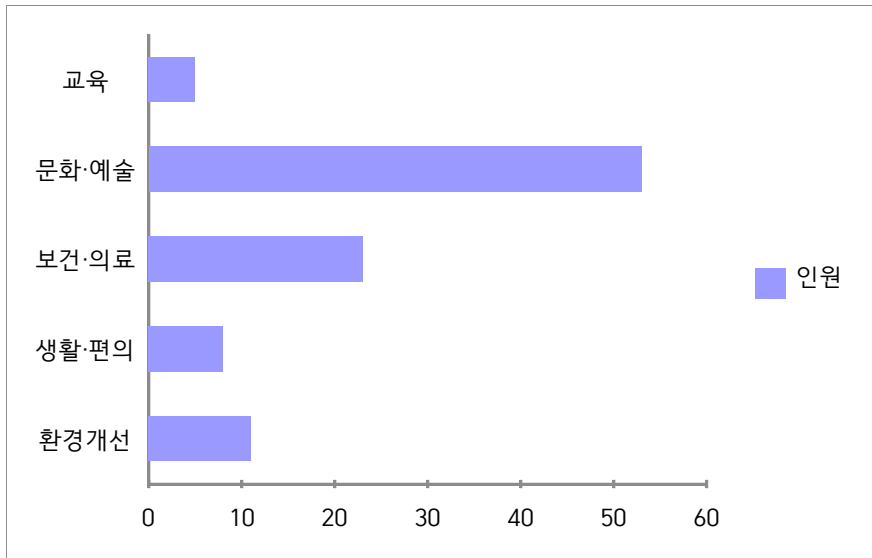


〈표 5-24〉 노원구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단위: 명

자치구	분야	인원	활 동 내 용
노원구	교육	5	- 수화통역, 교육
	문화·예술	53	- 풍선아트 등
	보건·의료	23	- 수지침, 발마사지
	생활·편의	8	- 복지시설, 병원 봉사
	환경개선	11	- 도배봉사
5개분야(7개팀) 100명			

〈그림 5-11〉 노원구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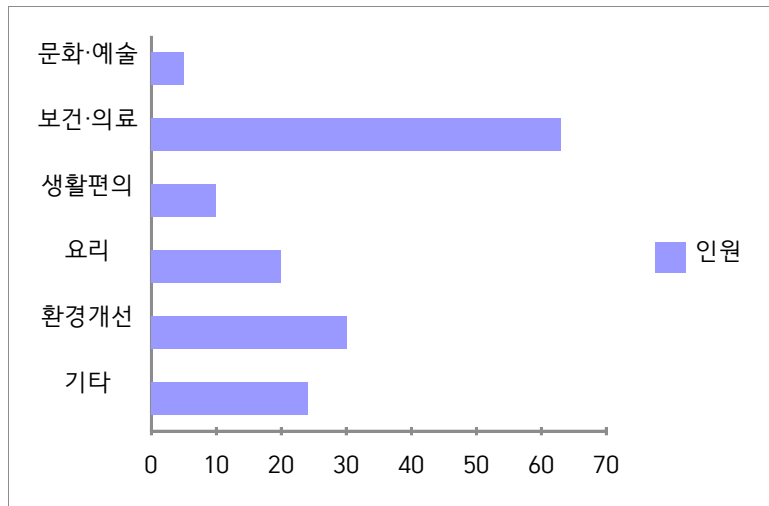


〈표 5-25〉 중구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단위: 명

자치구	분야	인원	활 동 내 용
중구	문화·예술	5	- 웃음치료
	보건·의료	63	- 어르신마사지, 발마사지, 수지침, 침뜸
	생활편의	10	- 이미용
	요리	20	- 제과제빵
	환경개선	30	- 시설 개보수
	기타	24	- 자전거수리, 행사보조
6개분야(12개팀) 152명			

〈그림 5-12〉 중구 전문자원봉사단 참여현황



□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역할

(1) 전문관리자 양성 및 배치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자는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홍보 등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원봉사자들을 이끌어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재능나눔이나 전문자원봉사단 관리자들을 자원봉사센터의 핵심리더로서 계획적, 전략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능기부자와 수요처의 욕구를 파악한 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계 및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세부적인 상담과 의사소통 능력 등이 요구된다. 또한 프로그램기획력 못지 않게 대인관계 기술, 홍보전략 등 최대한 많은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여 배치해야 한다. 이들이 전문관리자로서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지역내 자원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이 수반되어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아울러,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여 및 시민교육전문가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원봉사센터의 고유업무 강화

재능기부자들은 자신의 작은 재능이라도 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양한 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데 대한 자긍심이 높다. 자원봉사센터는 이들을 끊임없이 동기부여하고 지원해야하며 지역사회 문제발굴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재능기부자들은 단순 노력봉사자보다 자기효능감과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 나눔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에 힘써야한다. 하지만 많은 자치구 센터들은 관내 행사성 프로그램이나 행정업무 과다로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 박람회나 전문자원(재능나눔)봉사단 발대식 등 이러한 행사가 곧 새로운 자원봉사 유입과 연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사업운영에 대해 현장의 센터 관리자

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자치구로부터 자원봉사업무에 대한 고유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부여, 지속성 있는 활동, 인정과 보상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기획, 운영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모델이 개발되었다고 이를 수행할 센터의 역할이 재정비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힘들 것이다.

(3)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지난 2010년 한봉협이 재능나눔 운동의 개선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¹⁾ 응답자 중 체계적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전체의 28%로 가장 많았다. 조선일보 지면에 '재능을 나눴시다' 캠페인 기획기사가 2010년 1월 6일 처음 보도된 이래, 당월 하루 평균 홈페이지 접속자가 6,100여명, 봉사 신청자는 550여명이었다. 자원봉사와 기부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율이 매우 높았으나,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참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인력과 조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대응전략이 미비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을 구축하여 실행할 경우 재능기부의 모집과 연계, 사후관리 및 평가시스템에 수반되는 예측가능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대비할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정량적·정성적 평가프로그램 병행

재능기부활동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신청자수 및 연계건수 등 정량적 평가를 주로 하고 있다. 어떠한 활동과 과정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더 나은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정성적 평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센터 관리자 등의 자원봉사관리업무가 일정기간 동안 수행된 시간, 참여인원 등 양적평가에 대부분 치우쳐 있고 이를 보고하는 업무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있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기에 과정과 변화에 주목하여 활동전, 후의 봉사자와 수혜처의 변화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5) 지역사회조직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활동가들을 연계시켜주는 허브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NGO, NPO, 복지관, 학교, 도서관, 풀뿌리단체, 주민자치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협의체를 운영, 관리하면서 지역내 인적, 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각 기관들간의 자원봉사자 및 일감 중복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한국자원봉사협의회·한국자원봉사포럼(2010), 지속가능한 재능나눔운동의 발전모형연구, pp.129~130

(6) 사례발굴 및 홍보전략 개발

재능기부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 기여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 재능기부 사례와 지역사회 변화에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감동사례를 언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및 지면매체,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전략을 세워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센터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현재 지역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연구한 결과는 없으나, 지역내 사회복지관에 비해 자원봉사센터의 존재여부와 역할, 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재능기부자들을 자원봉사센터로의 원활한 유입과 지속관리를 위해 중요기능으로서 자리매김해야하며,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또한 절실히 요구되므로 우수한 사례발굴, 홍보전략 수립은 곧 자원봉사센터의 위상제고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6. 재능기부 활동의 관리와 제도적 현황과 문제

- 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재능기부 관리 시스템
- 2) 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 관리 시스템
- 3)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 관리 시스템
- 4) 서울시 재능기부 관리시스템 제안

6. 재능기부 활동의 관리와 제도적 현황과 문제

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재능기부 관리시스템

(1) 자원봉사자의 모집, 홍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를 위해 봉사과 나눔운동본부를 별도로 두고, 광역 및 기초자원봉사센터, 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 등 협력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었다. 자원봉사자는 언론, 홈페이지, 캠페인 및 이벤트를 통해 모집하거나, 협력단체가 재능나눔 봉사자를 발굴하여 캠페인 및 봉사처에 참여하도록 했다.

재능나눔 사업의 홍보효과는 홈페이지와 언론의 영향이 컸다. 협력단체들이 연계사례를 운동본부에 제공하면 모범적이고 참신한 사례들을 선별하여 조선일보는 기사화했으며, 각종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KBS, YTN, 현대홈쇼핑 등과 캠페인 및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여 모집 및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캠페인 소개 및 재능기부 반기와 재능기부하기 정보 및 협력단체들과 네트워크 공간으로도 활용했다.

기사홍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사례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한계로 인해 언론의 속성인 새롭고 참신한 감동과 모범사례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재능을나눔시다’ 캠페인 사업결과, 재능나눔 활동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재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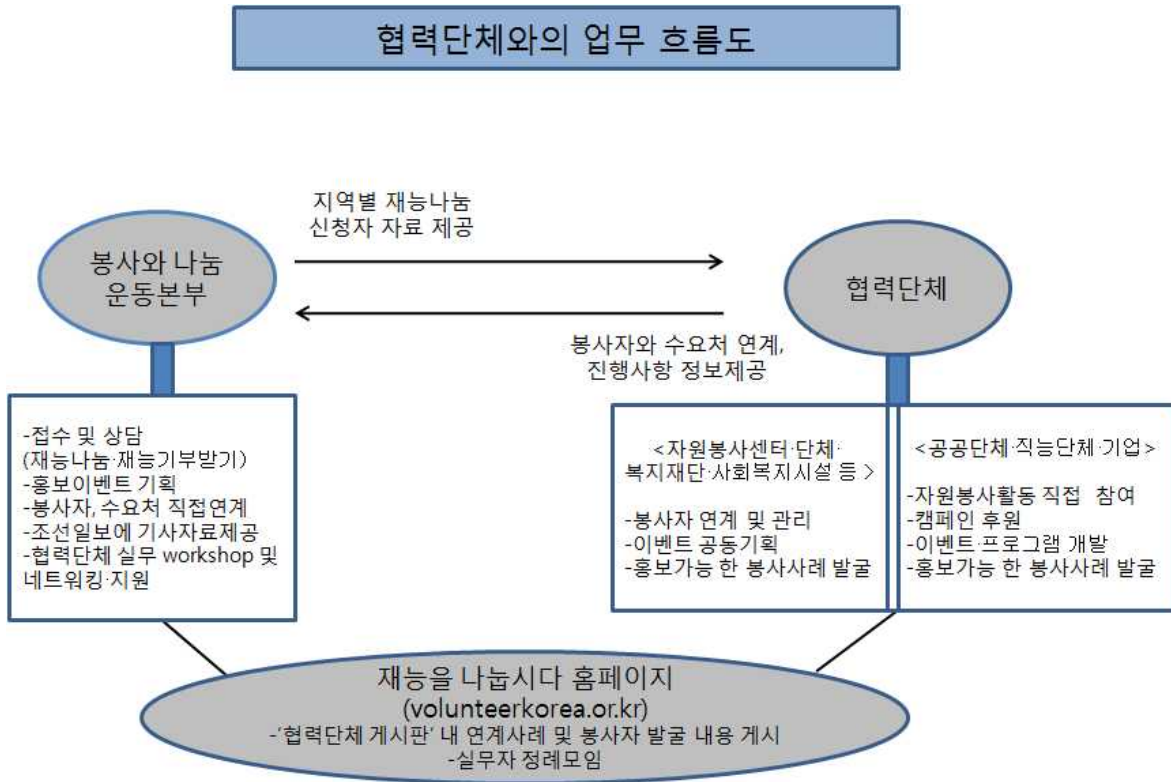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관리

협력단체 중 광역 및 기초자원봉사센터와 복지기관들은 재능나눔 신청자와 봉사처를 직접연결하여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했다. 봉사과나눔운동본부 내에서 신청 봉사자와 수요처를 직접연계하거나 지역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시·도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등 적합한 기관으로 재능나눔 및 재능기부받기 신청자명단을 이관하여 자원봉사자와 연계했다. 재능기부자들에 비해 수요처(재능기부받기)를 적극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며, 협력단체와의 멤버십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 업무협력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했다. 온라인 공간이 재능기부 활동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데는 필수 조건이었으나, 연계의 편리성에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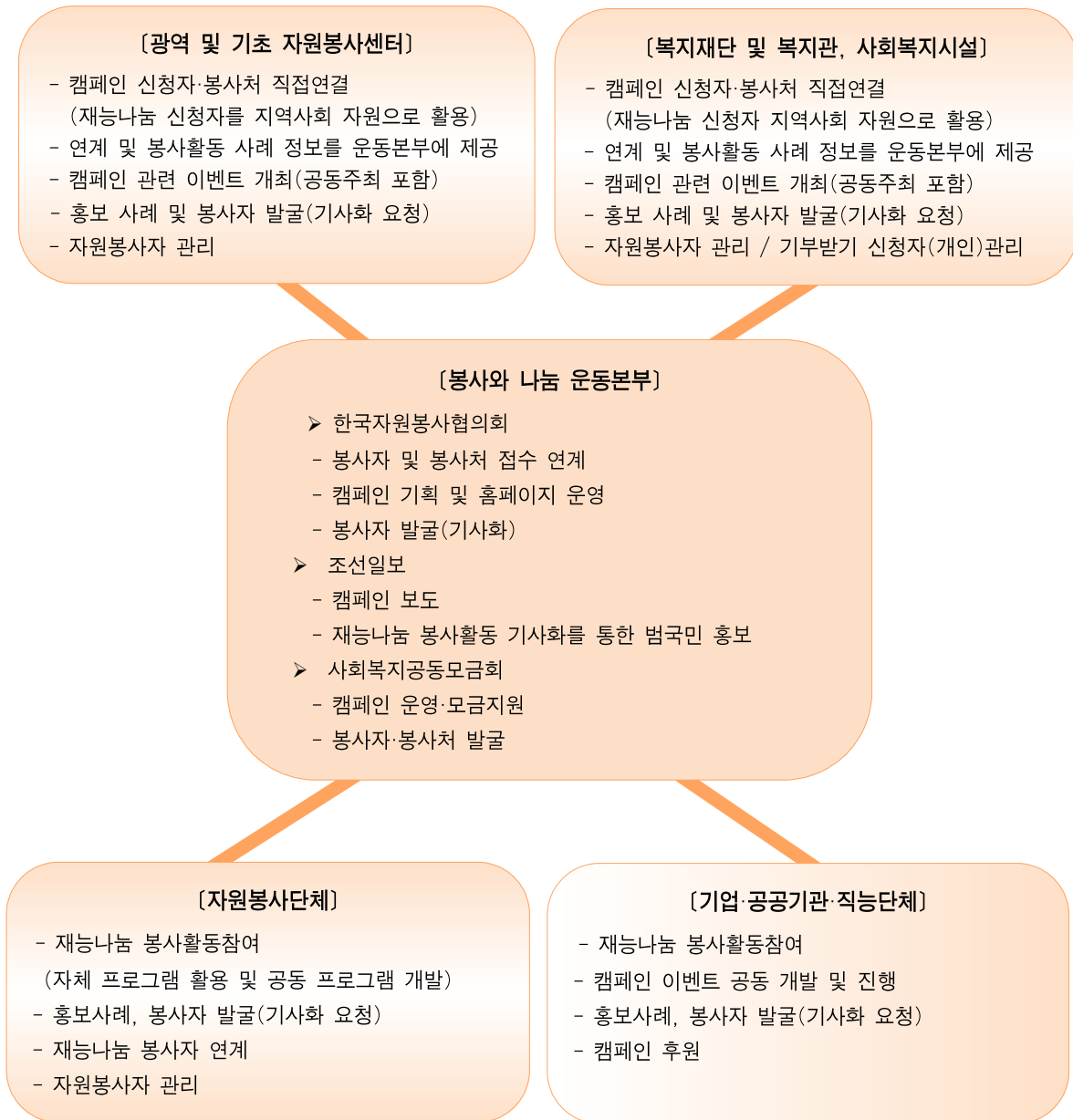
재능나눔 신청자들에게 협력단체의 상황이나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및 홍보했고, 외딴 지역 등 지역적인 요인으로 인해 꾸준한 활동을 하는 봉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봉사자를 연결하기도 하고, 원거리에 있는 협력단체에는 공연 이벤트 등 단기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했다.

운동본부의 캠페인 예산 중 심의를 거쳐 지원비를 책정하기도 했으며, 성격 및 활동이 각기 다른 협력단체들과 1대1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획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림 6-1〉 협력단체와의 업무흐름도



〈그림 6-2〉 재능나눔운동본부와 협력단체의 역할



(3)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지난 2010년 한봉협의 재능나눔 운동의 개선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²⁾ 응답자 중 체계적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전체의 28%로 가장 많았다. 조선일보 지면에 ‘재능을 나누시다’ 캠페인 기획기사가 2010년 1월 6일 처음 보도된 이래, 당월 하루 평균 홈페이지 접속자가 6,100여명, 봉사 신청자는 550여명이었다. 자원봉사와 기부에 대한 새로운 트랜

2) 한국자원봉사협의회·한국자원봉사포럼(2010), 지속가능한 재능나눔운동의 발전모형연구, pp.129~130

드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율이 매우 높았으나,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참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인력과 조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대응전략이 미비했다.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을 구축에는 재능기부의 모집과 연계, 사후관리 및 평가시스템에 수반되는 예측가능한 전략수립이 중요하다.

2) 자원봉사센터의 재능기부 관리시스템

(1)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홍보

자원봉사센터의 재능기부활동은 전문봉사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경우와 전문분야 활동가들이 활동처를 요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수요처에서 재능기부자들을 요청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단을 직접모집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동아리를 연계해준다. 반면,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처를 찾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등 지역내 일감을 찾아 재능기부활동을 연계한다. 자원봉사 참여는 자원봉사자 등록 및 상담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거나, 처음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가치 증진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을 시작하기 전 수요처로부터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자원봉사 일감내용과 봉사자의 역할 등을 배우는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일반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상담가 교육, 관리자교육 등이 있으며 봉사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활동중인 봉사자를 위한 재교육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수요처의 담당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수요처 담당자 교육도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 교육은 자원봉사의 가치 이해와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관리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자치구별로 월1회 진행되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며 교육시 상담을 통해 배치받고 활동처에서 주 1회 혹은 약속한 날짜에 활동을 하게 된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배치시 우선시 되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의지와 프로그램, 활동처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이다. 이를 파악해야 자원봉사자, 수요처, 수혜자 등 각각의 기본욕구 및 성향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서관리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종합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인들이 회원가입을 하여 해당지역을 선택하면 센터별 또는 종합적 실적관리를 하고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시도/시군구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 등록, 활동 및 교육자료 등을 등록 열람할 수 있으며, 포털시스템을 통해 타 센터의 자료 공유 및 업무협력도 가능하다. 자원봉사 일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수요처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하는 일감을 직접 등록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승인

을 받으면 된다. 수요처는 자원봉사활동이 종료되면 시도/시군구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 봉사활동 실적시간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활동이 끝나면 포털시스템을 통해 봉사실적을 조회할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출력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재능기부 활동은 대부분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데 반해, 전산시스템은 개인관리 및 실적관리 위주여서 연계 및 효율적 관리에는 미흡하다.

3)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 : 관리 시스템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재능기부 또는 전문자원봉사단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능기부 관리업무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면접방법은 개방형 질문 형태로 현재 재능기부 활동의 관리와 제도적 현황에 대해 서울시 자치구센터 재능나눔 관리자 9명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의 현황과 대안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상 많은 불편이 따른다. 서버가 너무 커 필요한 데이터 추출이 어렵고 정작 자원봉사 활동,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다.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들이 불편해하며 그에 따른 안내 및 응대도 느린 편이다. 중앙집중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측면이 강해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 순수성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실적관리 측면이 강하여 연계 목적의 시스템으로는 활용도가 낮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능기부 활동과 수요처를 연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인터넷 공간의 장점인 네트워킹 및 사용자중심의 시스템으로 보완하거나 다른 대안시스템이 필요하다.

(2) 재능기부 전문관리자 인프라 확충

재능기부 활동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관리자가 필요하다. 한 예로 기업 자원봉사자들은 대체적으로 기업의 실적 및 이미지 홍보를 위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처 중심의 활동이 되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다. 기업 고유의 전문성을 끌어내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관리자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베이비부머들의 사회참여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전문직 또는 고위직 은퇴자들이 사회적 참여 통로로 자원봉사와 재능기부활동을 희망하지만, 관리자들을 대하는 태도 등 현장에서 갈등문제도 있어 수요처에서 재능기부자는 환영하지만 은퇴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재능기부자들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전문관리자 양성이 필요하다.

(3) 센터의 운영형태에 따른 지역사회와 밀착정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연계 및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가 직영, 민간위탁, 법인 등 다양하여 지자체와 센터와의 관계에 따라 지역내 복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 및 밀착정도가 다르다.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협력정도에 따라 유기적 네트워크 정도도 차이가 많다. 재능기부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능기부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유기적 네트워킹은 중요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자치구센터들의 광역센터로서 지역사회 또는 서울시 전체의 유관 기관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허브기능을 해야 한다.

(4) 재능기부(전문자원봉사) 사업의 중복성 제고

자원봉사센터 이외에도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각종 센터 및 유관기관들이 조성되고 있다. 유사기구 및 조직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보다 중복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존의 기구를 보완 강화하여 좋은 모델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 각 사업들이 제각각 도입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이유로 추진되더라도 프로그램과 인적자원이 겹쳐 결국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유사한 서비스 내용을 부처별로 기관별로 중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서울시 재능기부 관리시스템 제안

(1) 서울시 재능기부의 명확한 목적과 목표수립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재능기부 사업은 먼저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목적과 대상이 분명한 재능기부 사업의 예로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세스넷, www.sesnet.or.kr) 프로보노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보노’ 사업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마일 재능뱅크(www.smilebank.kr)’프로젝트가 있다. 세스넷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업 대상의 전문성 기부로 회계 및 재무설계, 컨설팅 및 평가, 온오프라인 마케팅, 경영 및 법률지원, 자료 및 디자인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와 사회적자원을 조직하여 사회적기업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즉 수요는 사회적기업이며 공급은 기업운영에 따른 전문가 등으로 분명하게 선정되어 지원대상에 대한 니즈 파악과 프로보노 활동 기업들의 전문분야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스마일 재능뱅크’ 프로젝트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농촌활성화라는 공간적 대상과 목적이 분명하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에게 부족한 마을가꾸기, 경영, 유통, 건축,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재능기부자와 농어촌 주민의 도농간 교류가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재능기부 사업의

선결과제는 적용범위와 대상이 구체화된 목적과 목표수립이라 할 수 있다.

(2) 재능기부 활동의 관리프로세스

재능기부의 프로세스는 대체적으로 <그림 6-3>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울시 재능기부사업의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수립되었다면, 수요처의 니즈를 파악하여 재능기부 참여대상자를 모집하기에 훨씬 용이하다. 참여한 재능기부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과 참여범위, 활동내용이 검토되었다면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활동처에 대한 이해 등 사전활동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재능기부자들의 활동계획과 목표설정을 수립하여 활동처와 사전 협의하여 재능기부 활동을 실시한다. 수요처와의 협의를 통한 공동의 목표와 계획이 수립되어야 정기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능기부 활동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정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프로세스 성과를 모니터링해야한다. 활동에 따른 문제점 파악, 중도탈락 및 위기대응을 위해 필요하며, 활동 평가 시, 관주도의 사업평가는 일정기간 동안 수행된 시간, 참여인원 등 양적평가에 치우칠 우려가 커 이를 보고하는 업무에 많은 시간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재능기부 활동은 과정과 변화에 주목하여 활동 전, 후의 봉사자와 수혜처의 변화를 평가하는 활동과 과정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춰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정성적 평가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심리적 인정과 보상 프로그램을 수행해야한다.

<그림 6-3> 재능기부활동 관리프로세스



(3) 재능기부 전문관리자 양성 및 배치

재능기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전문관리자 배치이다. 재능기부 연계는 일반자원봉사자와 달리 수요처와 재능기부자들의 요구 조건이 구체적이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역사회 주민참여 확대와 지도자 발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자원봉사활동 위험 예방과 관리, 자원봉사 가치인정과 홍보, 모범 사례발굴과 보급, 정부, 기업, 민간의 파트너십 구축³⁾ 등이 있다. 재능나눔이나 전문자원봉사단 관리자들을 자원봉사센터의 핵심리더로서 계획적, 전략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능기부자와 수요처의 욕구를 파악한 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계 및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세부적인 상담과 의사소통 능력 등도 요구된다. 또한 프로그램기획력, 대인관계 기술, 홍보전략 등 최대한 많은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여 배치해야 한다. 이들이 전문관리자로서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지역내 자원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교

3) 2009, 자원봉사단체 관리자교육,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육이 수반되어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아울러,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여 및 시민교육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표 6-1〉 자원봉사관리사 직무흐름도

직무분류	세부내용
계획	비전, 목표 수립, 평가
프로그램 개발	자원 및 욕구조사, 실행기획
자원봉사 모집과 배치	자원봉사 모집, 선발, 배치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상담, 지도, 자원봉사자 인정
자원봉사자 교육과 개발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팀 개발
자원봉사활동 네트워크	조직간 네트워크, 활동홍보, 자원개발
자원봉사관리자의 개발	관리자 자기개발, 인적네트워크 개선
행정관리	행정관리 실무, 회계관리, 위원회 관리

출처: 볼런티어21, 자원봉사관리사 자격과정 개발 연구보고서, 2005.

(4) 재능기부연계 시스템 구축

재능기부 활동과 연계의 중요한 요소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과 지원이다. 먼저 온라인공간은 재능이 있는 개인,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재능을 신청하고, 개인 및 수요처는 재능을 기부받는 등 인터넷을 통한 쌍방의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1365포털을 강화할 것인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현 포털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재능기부뱅크를 별도로 구축할 경우, 동일한 인적자원의 이원화 및 센터 관리자의 행정업무 과다가 우려된다. 그러나 현재 포털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할 경우에는 부처간, 유사 시스템간 연계 및 통합사업으로 시스템 비대화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도 있다. 따라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효과 및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서울시 재능기부사업의 목적과 목표수립에 따라 재능뱅크시스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정보와 연계 시스템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내 관련 기관, 단체간 민관협력의 서울시 재능기부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지역내 핵심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재능기부가 연계되도록 지역사회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자원의 유입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재능기부 연계 시스템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활동가들을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NGO, NPO, 복지관, 학교, 도서관, 풀뿌리단체, 주민자치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협의체를 운영, 관리하면서 지역내 인적, 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재능기부연계 시스템은 사회변화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환류(feedbak) 기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5) 인정과 보상을 위한 인센티브제

자원봉사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나아가 공동체적 삶의 완성을 위한 공익적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자발적 행위이지만 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촉진하여 중도탈락을 막고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보다 사회·심리적 인정 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재능기부 활동가들이 처음 무보수로 참여했다가 그와 유사한 활동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소액의 실비가 지급되는 것을 보고 자원봉사센터에서의 활동을 접고 옮겨가는 사례들로 인해 현장 관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적 보상은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혜택과 보상을 요구하게 되므로,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전적 보상보다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참여동기 요인을 파악하여 자극시키고 격려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정서적 보상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거나 사회적 인정 보상으로 표창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측정하는 잣대가 봉사시간이라는 단편적 평가라는 점은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경제적 보상을 유인책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은 쉬울 수 있으나, 재능을 나누고 기부하는 행위에 대한 가치보다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 커져 인센티브를 위한 참여동기로 자원봉사의 순수 가치가 퇴색되기 십상이다. 대표적 경제적 보상으로 공공시설이 용료 감면,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 각종 할인권, 실비지급 등을 들 수 있는데, 실제 기초 자원봉사센터 현장에서는 다른 기초센터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양적 비교를 하며 센터 관리자들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각 기관의 소식지, 언론보도, 웹진 등을 통한 적극홍보 및 칭찬릴레이를 통한 인정과 보상 프로그램이나 재능기부자들간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해주어 인간적 유대관계를 지원해주는 공간마련 프로그램이 좋을 것이다. 세스넷(www.sesnet.or.kr)은 프로보노를 위한 인정프로그램으로 프로보노 네트워킹 파티(Share your talent day)를 열어주고 프로보노들간 인간관계 유지 및 동기부여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 밖에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활동 및 관련 행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강화하고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이달의 재능기부 선정을 통한 활동 격려, 사례집 발간, 온라인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등이 있다. 서로 동기부여와 자기만족감, 효능감을 만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질적 보상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다.

(6) 사례발굴 및 홍보전략 개발

재능기부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 기여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 재능기부 사례와 지역사회 변화에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방법은 중요하다. 사례를 언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및 지면매체,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전략을 세워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또한 절실히 요구되므로 우수한 사례발굴, 홍보전략 수립은 재능기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대국민 캠페인성 홍보방법으로는 언론홍보와 유명인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홍보전략이 있다. 그 예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재능을나눔시다' 캠페인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스마일재능뱅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재능기부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한 세스넷의 프로보노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보노 재능기부자들의 동참을 유도해야하므로 기업을 직접 찾아가 사업목적과 효과를 홍보했으며,

이것이 확산되어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즉 홍보전략도 역시 재능기부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7) 서울시 재능기부활성화의 과제와 제도적 보완점

재능기부자들은 자기효능감과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 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에 힘써야한다. 하지만 자치구 센터들이 관내 행사성 프로그램이나 행정업무 과다로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 박람회나 전문자원(재능나눔)봉사단 발대식 등 이러한 행사가 곧 새로운 자원봉사 유입과 연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사업운영에 대해 현장의 센터 관리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자치구로부터 자원봉사업무에 대한 고유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한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수요처 욕구에 대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등을 신속히 연계해 줄 수가 없어 시간적 제약이 따르다 보니, 순수하고 자발적 자원봉사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전문적 재능봉사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제안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점을 제시할 수 있다.

- 재능기부활성화의 적용범위 설정
- 사업중복 및 타당성 검토
- 전략적 자원연계를 위한 지역수요처 조사 및 관계망 구축
- 자원봉사(재능기부)관리업무 자율성 보장 및 확대
- 서울시-서울시센터-자치구센터의 역할정립
- 서울시-지역사회간 재능기부 협의체 구성
- 서울시 전역 재능기부 프로그램 종합정보센터

최근 다양한 재능기부, 재능나눔이 활성화 추세에 있지만 서울시가 추구하고 적용하고자하는 재능기부의 대상과 범위가 우선 설정되어야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의 중복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어야한다. 재능기부 활성화라는 방향은 비전이며 전략적 자원연계를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지역수요처를 조사하고 정보의 수집 및 연계를 위한 관계망이 구축되어야한다.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관리 업무는 지자체 운영의 특성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자발적인 참여 유발 및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능기부 또는 전문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자치구센터와 광역센터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과업으로 추진하려는 서울시와의 명확한 관계가 정립되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한다.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재능기부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서울시 재능기부 종합정보센터'를 운영,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7. 서울시 재능기부의 수요와 공급분석

- 1) 재능기부의 수요 분석
- 2) 재능기부의 공급 분석
- 3) 재능기부 수요-공급 분석 요약

7. 서울시 재능기부의 수요와 공급 분석

1) 재능기부의 공급 분석

재능기부의 공급 분석은 제5장에서 살펴보았던 재능기부자의 일반적 현황 분석부터 시작해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DB를 분석해보면, 서울시 재능기부자의 일반적 특성과 활동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재능기부자 공급 분석

(가) 재능기부자의 일반적 특성

- 성별 : 참여도는 여성(52.4%)이 남성(47.6%)보다 다소 앞섬.
- 혼인 : 미혼자보다 유배우자 참여가 높음.
- 연령 : 참여도는 40대와 50대가 절반을 차지, 20대와 30대 직장인, 10대와 60대 이상 저조
- 소득 : 직장을 가진 중간소득층(월 300-500만원) 참여도가 낮은 편.
- 학력 : 학력간 차이가 심해, 저학력-저참여, 고학력-고참여 추세.
- 직업 : 전문직 참여도가 가장 높고, 사무직도 중간수준이지만, 서비스/판매와 기능노무직 참여도는 낮음.

(나) 재능기부자의 활동유형별 특성

- 이미용 : 여성, 미혼자로 저소득층 참여가 가장 높음
- 요리 : 여성, 중장년층으로 소득과 학력 차이는 크지 않음
- 의료 : 여성, 중장년층, 고학력자, 고소득자가 많이 참여함
- 아동학습 : 여성, 10대와 20대 미혼자(대학생) 참여가 많음
- 통번역 : 여성 20대 미혼자 대학생 참여가 가장 많음
- 공연 : 여성 전문 공연자로 중고소득층 참여가 많음
- 평생학습 : 남성 40대 이후 중장년층 고학력층 참여가 많음
- 전문상담 : 남성 40대 고학력자로 전문직이나 사무직 참여가 많음
- 운전 : 남녀 고루 참여하며 유배우자 중장년층 참여가 많음
- 집수리 : 남성 유배우자 장년층 기능노무직 참여가 많음

〈표 7-1〉 서울시 재능기부자 특성 : 활동 유형별, 2011년

	전체	이미용	요리	의료	아동학습	통번역	공연	평생학습	전문상담	운전	주택수리
남자	47.6	25%	37%	14%	15%	20%	22%	62%	73%	58%	85%
여자	52.4	75%	63%	86%	85%	80%	78%	38%	27%	42%	15%
미혼	30.3	75%	27%	28%	49%	80%	44%	37%	27%	8%	0%
유배우자	66	25%	73%	64%	46%	20%	44%	63%	73%	92%	100%
사별/이혼	3.6	0%	0%	7%	5%	0%	12%	0%	0%	0%	0%
10대	14.2%	25%	7%	14%	23%	0%	22%	0%	0%	0%	0%
20대	13.5%	25%	7%	7%	23%	60%	11%	12%	7%	0%	0%
30대	11.3%	25%	0%	14%	10%	20%	11%	12%	13%	8%	8%
40대	28.4%	0%	20%	28%	26%	0%	22%	37%	53%	42%	23%
50대	22.0%	0%	20%	28%	18%	20%	11%	12%	7%	33%	46%
60대+	12.8%	25%	33%	7%	0%	0%	11%	12%	20%	16%	23%
초졸	7.7	25%	27%	0%	3%	20%	11%	12%	0%	8%	8%
중학	10.3	25%	13%	7%	20%	0%	22%	0%	0%	0%	0%
고교	26.3	50%	13%	36%	31%	20%	33%	25%	13%	25%	31%
대학	49.3	0%	47%	57%	46%	60%	33%	63%	87%	67%	61%
200만미만	21.1%	75%	33%	14%	28%	60%	11%	12%	13%	17%	0%
200-300만	24.3	0	7%	7%	18%	0%	22%	25%	26%	33%	23%
300-400만	13.5	0	27%	21%	13%	0%	11%	25%	20%	8%	8%
400-500만	16.7	25%	7%	28%	13%	0%	22%	25%	13%	41%	15%
500만+	24.3	0	27%	28%	28%	40%	33%	12%	26%	0%	54%
전문직	48.6	0%	0%	36%	20%	60%	22%	50%	33%	17%	31%
사무직	22.2	0%	0%	7%	7%	20%	0%	12%	40%	8%	15%
서비스판매	15.3	0%	0%	0%	10%	0%	0%	25%	7%	8%	8%
기능노무	13.9	0%	7%	7%	3%	0%	0%	0%	0%	17%	31%
직장/학교	40.4	25%	20%	14%	41%	40%	44%	0%	0%	42%	23%
종교단체	23.9	25%	20%	36%	15%	20%	33%	0%	13%	8%	8%
지인권유	17.1	0%	20%	36%	15%	10%	11%	75%	73%	17%	31%
수요처홍보	6.2	0%	7%	7%	3%	0%	0%	0%	6%	8%	15%
언론매체	6.8	50%	27%	7%	15%	10%	0%	25%	6%	25%	23%
인터넷	4.1	0%	0%	0%	10%	20%	0%	0%	0%	0%	8%
기타	2.0	0%	6%	0%	0%	0%	11%	0%	0%	0%	8%

자료: 통계청 2011 사회조사 통계DB 분석.

(2) 재능기부 참여경로 분석

재능기부자의 공급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재능기부자의 참여경로이다. 제5장에 소개된 통계청의 2011년 자료를 분석해보면, 직장/학교 및 단체(40.4%)를 통한 참여와 종교단체(23.9%)를 통한 참여가 가장 많다.

위의 <표 7-1>에 소개된 재능기부 활동유형별로 참여경로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이 재능기부 활동유형이 각기 다른 참여경로를 거쳐온 것을 알 수 있다(표 7-2).

먼저 직장/학교/단체를 통한 경로에서는 통번역, 아동학습, 공연 등의 교육문화 활동이 가장 돋보이며, 종교단체를 통해서서는 의료와 공연, 이미용과 요리 등 실생활지원 유형이 많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권유 의 경우, 평생학습, 전문상담이 가장 많으며, 수요처 홍보는 커다란 참여유도를 하지 못하지만 주택수리, 운전, 요리 등 기술 봉사에 치중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서서는 이미용과 요리가 가장 높고, 인터넷 경로는 참여자가 많지 않지만 통번역과 아동학습 참여가 주를 이루었다.

<표 7-2> 서울시 재능기부자의 활동유형별 참여경로

참여경로	재능기부 활동 유형 (우선순위별)
직장/학교	통번역, 아동학습, 공연, 운전, 이미용, 요리
종교단체	의료, 공연, 이미용, 요리, 아동학습
지인권유	평생학습, 전문상담, 의료, 집수리, 요리
수요처 홍보	주택수리, 운전, 요리, 의료
언론매체	이미용, 요리, 평생학습, 운전
인터넷	통번역, 아동학습

(3) 재능기부 공급처 분석

이상과 같이 재능기부의 공급에서는 재능기부라는 전문성 때문인지 직장인이나 대학생 참여가 가장 많으며, 또 직장이나 대학이 주요 공급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일반 기업

직장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최근 자원봉사 참여가 많아지면서 참여가 높여지고 있다.

전경련의 “2011년 기업과 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에서는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체 직원의 76%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수가 43%, 직원의 50% 이상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53.7%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사회봉사 참여율의 증가추세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담당 부서의 업무차원을 넘어서 전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 기업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A) 제일기획의 “Love Design”

제작본의 Art 직군이 디자인재능을 기부하여 지역사회를 돕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사 봉사활동 대상. 사회복지단체 및 사회적 기업, 아동 / 청소년 대상 활동 NGO 등에 로고 제작 지원하고 있음

(B) SK의 “프로보노 프로그램”

SK 구성원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한 역량은 공익을 위하여 조직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활동. 2009년부터 사업 착수, 2010년 총 128명 활동, 51개 기관 지원.

(C) 유한킴벌리 “자연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 - 학교 숲 만들기”

우리나라 9,700여 개의 학교 운동장은 약 5,400만 평에 이르지만 대부분 흙먼지가 날리고 담장과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음. 1998년부터는 학교 숲 만들기 운동 확산을 위해 숲 보호 시민단체인 ‘생명의 숲’과 함께 시범학교를 선정해, 임직원 재능기부 수행.

(나) 공기업

특히 최근에는 공기업들도 정부기관 평가의 영향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왔는데, 재능기부 또한 많은 공기업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1년 122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2682억원(12월 말, 기획재정부 추계)로 2010년도 1785억 원보다 897억 원이나 늘어 증가율이 50%도 넘는다(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1).

(A) KT의 “IT 서포터즈”

2007년부터 시작된 KT의 IT서포터즈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업의 대표적인 재능기부형 프로보노 사회공헌활동. IT 지식 기부를 통해 누구나 IT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KT 직원 봉사단. IT서포터즈의 활동은 크게 4대 정보소외계층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지원, 스마트 격차 해소, 인터넷 역기능 예방 교육 목적.

(B) 한국가스공사의 “온(溫)누리 열효율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이용,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바닥 난방, 벽체단열, 창호교체 등을 통해 열효율을 개선하는 한편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하는 저소득층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3개월분, 도시가스 사용자 제외)을 통해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자활공동체 등에 의한 집수리사업 시행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일반기업과 공기업 등의 직장이 갖고 있는 재능기부의 자원(자산)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들이 있다.

〈표 7-3〉 재능기부 공급자로서 직장이 갖고 있는 장점들

- 사회단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과 물적 자원을 갖고 있다.
-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이 자체 사회봉사단 등의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은 기업의 전문 '업'(業)을 살려 참여하는 직원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재능과 기술 봉사활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 일부 기업들은 자체 체계화된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춰 외부 기관과의 연계나 공조를 하지 않고 독자적인 사업 수행을 선호하고 있다.
- 이상의 일부 기업들을 제외한 많은 기업들은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도 외부 기관들과의 공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재능기부와 같은 활동 유형을 선호한다.
- 특히 기업들이 재능기부로 외부기관들과의 공조를 추진하고자 하는 활동유형은 기업의 전문성뿐 아니라 대상(소비자층)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잘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 서울시가 직접 기업과 프로그램 파트너십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 대학이나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

(다) 대학

대학은 190년대 중반 이래로 자체 사회봉사센터 조직과 교양교육 학점제 등의 완벽한 제도화를 통해 가장 조직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은 우수한 인적 자원(교수와 대학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외부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이런 장점들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간 대표적인 대학 주도의 재능기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A)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대학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활동”

이 사업은 대학 하계방학 농촌봉사 활동을 1999년도까지 교육부 주관 하에 지원되다가 2000년도부터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하계 대학생 의료 및 기술봉사 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전공학문과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였다.

그 후 2002년부터는 “대학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다양한 대학 전공학문과 연계된 학부/학과 단위의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2005년도부터는 이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에 뜻을 같이 한 포스코에서 공동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양적, 질적인 면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산·학·정 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08년도 이후 포스코의 지원이 끊겨 사업자체가 중단되었다.

2000년부터 40여개 대학들이 참여해, 매년 10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2008년까지 전체 1,043개 프로그램에 64,695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였다.

(B)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대학 과학나눔 봉사”

과학문화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 지역의 초,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기부의 확산에 도움을 준 사업으로, 대학생 과학 나눔 봉사단은 중단된 전공 연계 봉사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기부의 일환으로서 대학생들의 과학 지식과 열정을 함께 나누는 젊은이들의 봉사활동이다.

2009년 동계 12개팀 83명 참여,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소외 학생 664명 대상.
2009년 하계 80명, 도서지역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수혜학생 578명.
2010년 동계 120개 팀 844명, 농어촌, 도서벽지 초·중학교 수혜학생 4,050명
2010년 하계 50개 팀 349명, 50개 도서지역 지역아동센터 수혜학생 1,187명
2011년 동계 118개 팀 576명, 118개 초중학교, 복지시설 학생 2,691명
2011년 하계 93개 팀 628명, 93개 초등학교, 복지시설 학생 2,165명

(C) SK의 대학생 봉사활동 SUNNY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지속된 것으로, 교육·학술연구 지원 /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 전국의 8만 명의 대학생이 가입해 국내는 물론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0년에는 농민공학교 및 빈곤지역 소학교 학생들을 위해 영어, 미술 등의 교육활동 내증기부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밖에도 서울시와 서울시청 그리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서울동행 프로젝트”는 가장 성공적인 대학 주도의 재능기부 프로젝트로, 다음 장의 서울시 재능기부 프로젝트에서 특별히 분석해, 제2의 서울동행으로 중고생이 재능기부자로 참여하는 모형과 제3의 서울동행으로 6개월 이상 장기 봉사자의 참여로 예체능 교육과 멘터링 모형으로 제시한다.

이상과 같이 대학과 대학생이 재능기부의 공급자로 참여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들이 있어, 서울시 재능기부 모형 개발에 우선적으로 참고해볼 만하다.

〈표 7-4〉 재능기부 공급자로서 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들

- 대학과 대학생은 가장 우수한 재능과 특기를 갖고 있다.
- 대학과 대학생은 그간 가장 많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해 재능기부 효과가 가장 높아,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 대학과 대학생은 자체 우수한 재능기부 조직과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든든한 파트너십 관계를 확보할 수 있다.
- 대학생들은 재능과 특기로 조직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재능기부 활동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고, 대학생들의 참여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 대학은 재능기부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양호한 공간과 우수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 대학은 전문 재능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 프로그램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 대학은 기업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 노하우를 갖고 있어, 대학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기업의 동참 가능성은 높아진다.
- 또한 서울의 동행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요처가 중고교 등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리가 용이하다.
- 특히 재능기부를 받는 수요자(학교나 학생들) 만족도가 매우 높아, 이 때문에도 공급자인 대학과 대학생의 만족도 또한 높으며 참여 열기가 매우 강해서,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

(다) 종교단체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를 통한 참여도 중요한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해온 동단위의 자원봉사캠프로 종교기관이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주요 프로그램공모를 통해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원봉사캠프들 중에는 교회 등 종교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자원봉사 공급처 개발에 종교단체의 자원봉사 캠프 활성화 방안을 탐구해볼 수 있다.

종교단체들은 우수한 재능기부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표 7-5〉 재능기부 공급자로서 종교단체의 역할

- 종교단체에는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가진 기부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 종교단체는 다양한 재능자가 많기 때문에 복합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종교단체의 재능기부자들은 이타심과 사명감이 높은 편이다.
- 종교단체가 자원봉사캠프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 참여도와 활용도가 높다.
- 종교단체는 재능기부 활동에 필요한 재정 역량을 갖추고 있다.
- 종교단체는 지역사회 관계와 유대가 긴밀해서 지역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 종교단체는 그럼에도 선교 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활동의 한계가 있다.

(라) 자원봉사 캠프

서울시에는 자원봉사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주민센터 등에 풀뿌리조직인 자원봉사캠프가 무수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조사한 2012년 9월말 현재, 595개에 이르는 자원봉사캠프들이 있고, 캠프에서 활동중인 자원봉사상담가들은 지난 4년간의 양성교육을 통해 3,575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상담가들의 주요 역할은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역할뿐 아니라 자원봉사모집활동, 2) 자원봉사자 모집 상담, 3) 자원봉사자 배치 및 활동관리, 4) 자원봉사 수요처 및 일간 개발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캠프는 서울시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모집과 배치 등의 공급처 역할뿐 아니라 직접 사업을 수행하며 수요처 역할 등을 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서울시 재능기부 전달체계에서 가장 하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자원봉사캠프 설치 현황을 보면(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2), 주민센터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밖에도 지역의 복지기관(51개 상담가 121명)학교(45개 124명), 종교단체(33개 199명), 시민사회단체(32개 162명), 아파트단지(19개 44명), 의료기관(7개 22명) 등이다.

2) 서울시 재능기부의 수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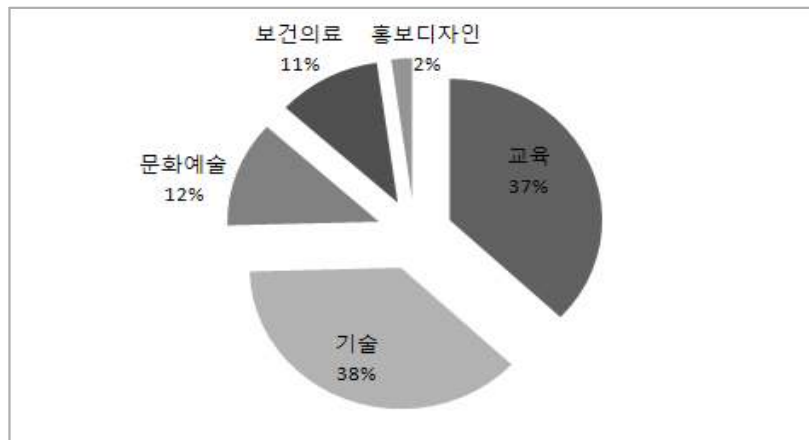
재능기부자가 활동하는 장소 또는 대상이 되는 수요처는 매우 다양하다. 통계청의 2011년 자료에서는 수요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수요처 정보를 제공하는 1365 자원봉사포털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봉사 DB 분석을 통해 수요처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본다.

(1) 1365 자원봉사 포털의 DB

먼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는 전국 각지의 자원봉사자 모집 DB 가운데 서울시 자원봉사자 모집을 재능기부 활동만을 분류해 분석해볼 수 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의 자원봉사 모집 자료에서는 1) 재능기부 활동의 내용과 유형, 2) 재능기부 활동처, 3) 중개기관, 4) 활동기간 정보를 제공해준다. 1365 포털에서 두 차례(2012. 9월 12-15일, 10월 28-30일)에 걸쳐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508건과 2차 378건, 전체 885건 중 181건으로, 1) 교육, 2) 기술, 3) 문화예술, 4) 보건의료, 5) 홍보디자인으로 조사되었다(그림 7-1).

〈그림 7-1〉 서울시 재능기부 수요 유형 : 1365 자원봉사 포털 분석



이상을 재능기부 활동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7-6〉과 같이 주요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재능기부 유형에 대해서는 뒤에 소개되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2012)의 5대 유형분류를 참고하였다.

(가) 수요처의 재능기부 유형

(A) 교육

전체 교육 수요 가운데,

- 학습지도가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주로 대학생 등 고학력자가 초중고교생을 주대상으로 하지만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외층도 적지 않음(일부의 경우 고교생이 후배 학습지도),
- 학습지도 교과는 주로 영어, 수학, 외국 등이 많고 컴퓨터 등 기술 교과도 적지 않음.
- 다음으로 일반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B) 기술

전체 기술 수요 가운데,

- 이미용 재능기부가 30% 이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 도배와 장판 등 집수리,
- 밑반찬 조리 등의 요리 재능기부,
- 사진, 서예, 생활체조,
- 종이접기, 풍선아트 등의 간단한 교육을 수요한 다음 진행되는 재능기부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캠프에서는 전문기술 교육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교육후 기술봉사활동이 일반화되어 있다. 일례로 금천구 시흥3동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성교육,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뿐 아니라 미술활동(단순색칠, 종이접기, 클레이아트, 미술치료 등), 원예활동(텃밭 가꾸기, 꽃꽂이, 원예 관련 활동), 기타: 비누공예, 풍선아트, 도자기공예 등, 체력단련관련봉사: 태권도, 음악줄넘기,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교통, 소방, 위생 부분 안전관련 교육 및 지도, 안전장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C) 문화예술

전체 문화예술 수요 가운데,

- 문화유적지의 문화해설자 재능기부가 가장 많았고,
- 그밖에 다양한 공연, 무용, 악기연주, 합창, 오케스트라 활동이 있다.

(D) 보건의료

전체 보건의료 가운데,

- 미술, 심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 재능기부가 가장 많으며,
- 정서적 지원활동이 되는 멘터링 등도 대상을 주로 독거노인 등 다양.
- 치과 등 노인 수요가 많은 재능기부 요청도 적지 않음.

(E) 홍보디자인

전체 4건에 불과한 홍보 디자인 분야의 경우,

- 소식지 제작, 컴퓨터 포맷 및 윈도우 재설치,
- 아동센터 로고 제작, 포토샵 일러스트 방송편집 등이 있다.

(나) 서울시 재능기부 수요처

서울시 재능기부 수요처를 활동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표 <7-6>과 같다.

(A) 교육

교육 수요처는 지역아동센터가 1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종합복지관, 청소년독서실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같은 10.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자원봉사센터가 각기 6%, 주민센터(동캠프), 정신보건센터, 방과후교실, 두리하나(탈북청소년지원기관)이 각기 4.5%이다.

(B) 기술

기술 수요처로는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수요처보다는 중개처로 센터내의 다양한 전문봉사단 활동을 위한 재능기부자를 모집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복지관과 복지시설, 노인지원센터와 요양시설 등 수혜자가 많은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기술 재능기부를 요청하고 있다. 그밖에도 데이케어센터, 주간/단기보호센터 등 재정적으로 취약한 복지기관에서 기술 재능기부를 기다리며, 정신보건센터도 재능기부자의 참여를 많이 기대한다.

(C) 문화예술

문화예술 유형에서는 국제교류문화진흥원가 서울시 전역의 문화유적지에서 외국인이나 관광객을 위한 문화해설사 재능기부자를 많이 요청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개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관광, 통번역 등의 전문봉사활동을 위한 재능기부자를 요청한다.

(D) 보건의료

보건의료에서는 노인지원센터/치매센터/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기관의 요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의 복지기관 요청이 많으며, 자원봉사센터도 중개기관으로서 멘토링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 활동을 위한 전문봉사단을 갖추고 있다.

(E) 홍보디자인

홍보디자인 분야는 지역아동센터가 필요로 하는 로고제작, 포토숍 일러스트 등의 수요가 많으면,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소식지 제작에 재능기부자를 활용하고 있다.

〈표 7-6〉 서울시 재능기부 수요처 : 1365 자원봉사 포털의 모집 정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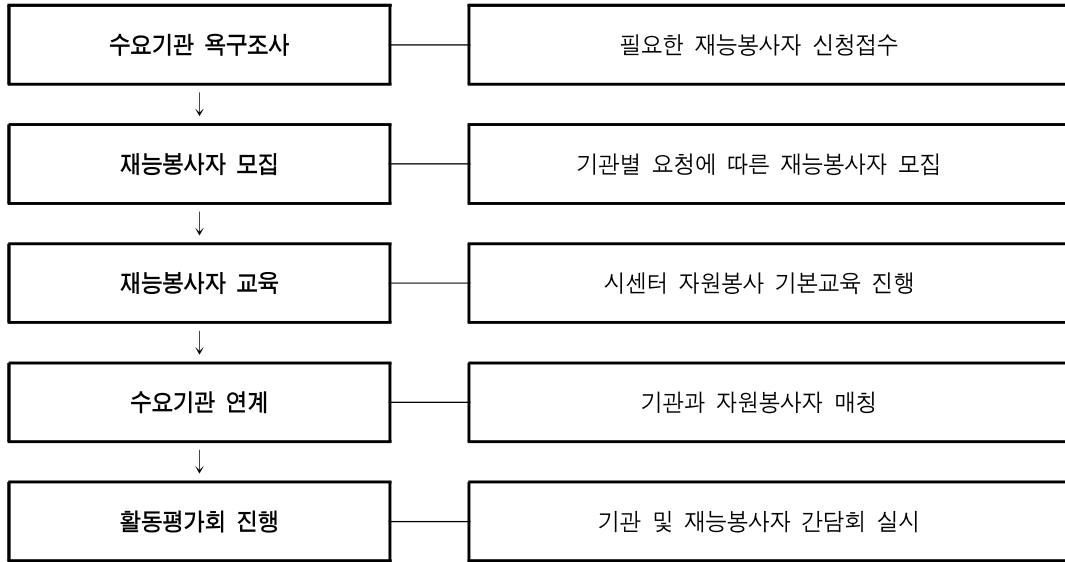
재능기부 유형	수요처	유형별 비중
교육	지역아동센터	19.4%
	종합복지관	10.4%
	청소년독서실/문화의집	10.4%
	장애인복지시설	6.0%
	자원봉사센터	6.0%
	주민센터(동캠프)	4.5%
	정신보건센터	4.5%
	방과후교실	4.5%
	두리하나(탈북청소년)	4.5%
	기타	30.0%
기술	자원봉사센터	22.0%
	복지관/복지시설	14.7%
	노인지원센터/요양시설	13.2%
	데이케어/주간보호/단기보호센터	11.8%
	시니어플라자(노인회관)	4.4%
	정신보건센터	4.4%
	주민센터(동캠프)	4.4%
	기타	23.5%
문화예술	국제교류문화진흥원	36.4%
	자원봉사센터	18.2%
	하트하트재단	9.1%
	건강지원센터	9.1%
	기타	27.3%
보건의료	노인지원센터/치매센터/노인복지관	45%
	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	15%
	자원봉사센터	15%
	정신보건센터	10%
	공공기관(구청,보건소)	10%
	주민센터(동캠프)	5%
홍보디자인	지역아동센터	75%
	공공기관(구청)	25%

(2)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재능봉사활동 DB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2012년 7월부터 재능기부자의 수요처를 사회복지기관과 자치구 자원봉사 센터에 연계시켜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그림 7-2〉와 같이 먼저 수요처의 수요와 욕구를 확인한 다음, 재능기부자를 모집해 수요처에 연결시켜주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사업이 특징이다.

〈그림 7-2〉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재능봉사활동 사업 추진체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재능봉사활동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해(표 7-7), 수요처의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재능봉사자 모집을 진행하였다.

〈표 7-7〉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재능봉사 활동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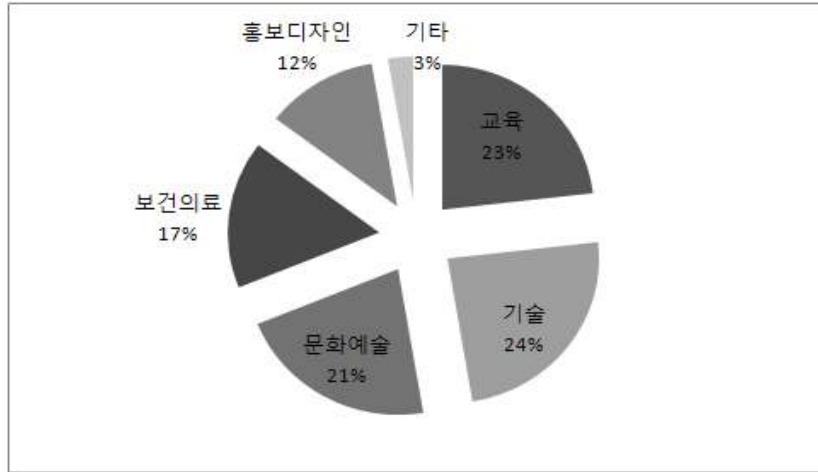
분야	세부 영역
교육	멘토링 활동, 학습지도, 외국어, 컴퓨터, 특수교육 등
기술	집수리(전기,도배,장판 등), 이미용, 풍선아트, 종이접기, 조리, 꽃꽂이 등
문화예술	문화공연, 예체능 활동(태권도,악기,미술 등)
보건의료	치과,한의원,약과,간호과,물리치료,심리,언어치료, 안마,수지침 등
홍보	사진촬영, 디자인, 마케팅 등

이같은 분류에 따라 수요처의 수요조사를 전체 유형과 내용, 수요처별로 분석해보면 〈표 7-8〉과 같다.

(가) 재능기부 유형과 내용

수요처인 사회복지기관들이 요청하는 400개 활동유형 중 기술(24%), 이어서 교육(23%), 문화예술 (21%), 보건의료 (17%), 홍보디자인 (12%), 기타 (3%) 등이다.

〈그림 7-3〉 서울시 사회복지기관의 재능기부 수요 유형



한편 각 유형별로 세부 유형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 교육

- 전체 90건의 수요 가운데,
- 학습지도가 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47%)을 차지,
 - 외국어 교육이 21건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며,
 - 컴퓨터 교육이 10건으로 뒤를 이으며,
 - 특수교육과 멘터링이 각기 7건으로 같으며.
 - 기타 도서지도(3건), 글쓰기 1건 등이다.

(B) 기술

- 전체 97건의 수요 가운데
- 이미용이 22건으로 가장 많으며,
 - 집수리 21건이 뒤를 이으며,
 - 조리(11건)과 풍선아트(8건)이 뒤를 이으며,
 - 기타 공예, 꽃꽂이, 뜨개질, 서예, 만들기 등이 1건씩 있었다.

(C) 문화예술

- 전체 86건의 수요 요청 가운데
- 악기지도 수요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 미술교육 (9건), 문화공연(7건)이 뒤를 이으며,
 - 레크리에이션(5건), 체육활동(4건), 노래지도(3건)가 그 다음이며,
 - 태권도(2건), 베드민턴(2건)이 있으며,
 - 단일 요청으로는 성악, 미화, 댄스지도, 악기공연, 마술, 무예, 풍 물, 중창/합창 등이 있다.

(D) 보건의료

전체 65건의 수요 요청 가운데

- 언어치료와 심리치료 수요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 안마와 한의원 진단치료가 각기 10건으로 뒤를 이으며,
- 치과 8건, 물리치료 7건으로 수요가 적지 않으며
- 재활치료(2건)을 포함한 각종 치료 수요가 적지 않다. 단일 수요로 놀이 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웃음치료, 작업치료 등이 있다.

(E) 홍보디자인

전체 48건의 수요 가운데

- 사진촬영(15건)이 가장 수요가 많으며,
- 웹디자인 14건과 홈페이지 제작(8건)으로 다음으로 많고,
- 동영상 제작(5건), 마케팅(2건) 등이 있으며,
- 단일 수요로는 디자인/마케팅, 사진교육, PPT 작성 등이 있다.

(F) 기타

전체 11건 수요 가운데

- 모두 단일의 수요로 번역, 비보이, 원예치료, 자녀 양육, 점자번역, 방법활동, 동아리 지도, 도서관 관리, 클레이 점토, 문화교육이 있다.

(나) 재능기부 수요처

서울시 재능봉사 사업은 일차 사회복지기관을 수요처로 조사한 것으로, 재능기부유형별 수요처 현황은 <표 7-8>과 같다.

<표 7-8> 서울시 재능기부 유형별 수요처 복지기관

재능기부 유형	주요 수요기관
교육	지역아동센터(40%) 종합사회복지관(31%) 장애인복지시설(24%), 치매센터, 사회재활시설
기술	장애인복지시설(27%), 종합사회복지관(23%) 지역아동센터(13%), 노인복지시설(12%) 아동복지시설, 치매센터
문화예술	종합사회복지관(34%), 장애인복지시설(28%) 지역아동센터(20%), 노인복지시설(8%), 주간보호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의료	노인복지시설(31%), 장애인복지시설(28%), 종합사회복지관(12%), 치매센터, 주간보호센터, 사회재활시설, 직업훈련원

홍보디자인

종합사회복지관(27%), 장애인복지시설(21%), 노인복지시설(14%), 지역아동센터(8%)

자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2012. "재능봉사활동 리스트" 분석.

(3) 자치구별 수요처 분석

다음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재능기부 수요처를 활동 유형별로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9〉 자치구 사회복지기관의 수요요청 재능기부 유형

	합계	교육	기술	문화예술	보건의료	홍보디자인
종로구	2	0	1	0	1	0
중구	9	1	1	2	2	3
용산구	7	0	2	3	1	1
성동구	0	0	0	0	0	0
광진구	10	5	1	3	1	0
동대문구	4	0	1	0	3	0
중랑구	26	5	4	9	5	3
성북구	19	2	2	5	5	5
강북구	24	6	6	2	7	3
도봉구	0	0	0	0	0	0
노원구	31	7	8	5	7	4
은평구	22	7	4	6	2	3
서대문구	2	0	1	1	0	0
마포구	12	3	4	3	1	1
양천구	3	0	1	1	1	0
강서구	22	8	5	6	0	3
구로구	6	3	0	3	0	0
금천구	4	3	0	1	0	0
영등포구	15	4	5	2	3	1
동작구	16	3	6	1	4	2
관악구	15	1	6	2	2	4
서초구	23	8	6	6	0	3
강남구	18	1	2	5	8	2
송파구	16	2	5	4	4	1
강동구	9	4	4	0	0	1

자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2012. "재능봉사활동 리스트" 분석.

전체적으로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에서 많은 재능기부 요청이 있었고, 반대로 재능기부 수요가 없거나 수요조사 비협조 문제가 있는 자치구로는 성동구와 도봉구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종로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에서 매우 미흡한 수요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소개된 전문봉사단 운영 현황을 소개하면 <표 7-10>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표 7-10〉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현황

자원봉사센터	주요 재능기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특징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동행프로젝트 운영	800여개 초중고교와 지역아동센터 대상, 대학생 연간 11,000명 참여
	마을(아파트) 봉사단 운영	24개 캠프 설치
	전문상담 지도자 양성	캠프 상담가 양성, 활동
종로구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재난재해 발생시 전기*수도 시설 복구나 도배 등 집수리 봉사
중구자원봉사센터	에듀 멘터링(학습지도, 상담등)	저소득층 학생 대상 대학생, 전직교사 재능기부
성동구자원봉사센터	하이비전 멘터링 (학습지도)	저소득층 아동 대상, 고교생 학습지도 재능기부
	교육강사 전문봉사단	중고교생 대상, 교육 재능기부
	사랑의 멜로디 봉사단	악기연주자들의 재능기부
광진구자원봉사센터	무지개빛봉사단	네일아트, 풍선아트 전문봉사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	문화예술전문봉사단	국악, 대중가요, 발리댄스, 풍선아트 기능자의 재능기부
	교육전문봉사단	동화구연, 종이접기 전문가의 재능기부
중랑구자원봉사센터	전문소그룹 운영	발사랑, 미용, 수지침봉사단
성북구자원봉사센터	15개 전문봉사단 운영	동화구연 등,
강북구자원봉사센터	멘터링 봉사단	청소년 대상 1:1 학습지도 멘터링
	집수리 봉사단	저소득층 도배, 장판, 집수리
도봉구자원봉사센터	재해재난봉사단	재난 가정을 지원하는 기술봉사
	자원봉사교육강사	자원봉사교육 강사 양성
	문화예술봉사단	예술인의 문화예술 공연
노원구자원봉사센터	기업봉사단	관내 기업의 전문봉사활동
	끼살림봉사단	특기와 재능 활용 전문봉사활동
	교육봉사단	자원봉사교육 담당 재능기부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전문교육봉사	종이접기,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	문화봉사단	대학, 기업 연계 전문봉사활동
마포구자원봉사센터	마포게릴라콘서트	예능인의 콘서트 공연 재능기부
	상담봉사단	상담전문교육 수료자들의 고민상담, 민생상담
	캘리그래퍼학교	장애인 대상 캘리그래퍼 교육
	프로보노 사업	법률상담, 영어, 일어 전문교육, 사회적기업 컨설팅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대학 및 상담가	전문봉사자 양성교육
강서구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 운영	수화, 손뜨개, 차량, 전기점검, 풍선아트, 도배장판
	강서 재능뱅크 운영	맥가이버뱅크 : 기술, 집수리, 이미지 힐링뱅크 : 의료, 보건, 건강분야 홈케어뱅크 : 법률, 상담, 멘토, 학습 예능뱅크 : 예술, 문화분야
	1365 재능기부 릴레이	재능기부 참여단체 릴레이 행사

구로구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 운영	발마사지, 이미용, 수지침, 청혈, 소독, 문화
금천구자원봉사센터	기업전문봉사 활동	관내 기업 임직원 재능기부
	전문봉사 소그룹 운영	수지침, 아코디언, 동화구연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기업전문봉사 활동	다양한 테마 주제로 재능기부
동작구자원봉사센터	기업전문봉사 활동	기업의 전문봉사활동
	대학생동아리봉사단	어르신컴퓨터교육, 아동 멘터링
	동작 러브하우스	도배, 장판, 집수리 재능기부
	전문활동 소그룹	의료, 상담, 외국어 지원 등
관악구자원봉사센터	기업봉사단	기업의 전문봉사활동
	전문 소그룹 봉사단 운영	이미용, 의료, 사진작가, 수지침, 발마사지봉사단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서초전문봉사단	“찾아가는 전문봉사단” 운영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기업자원봉사 브랜드매칭	기업의 전문 ‘업’에 맞는 전문활동
	강남구자원봉사대학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전문봉사활동 소그룹 전문교육
강동구자원봉사센터	은퇴자 자원봉사학교	은퇴자 전문직 활용 전문교육
	기업봉사 365	기업 전문직의 맞춤형 전문봉사

자료: 서울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검색.

3) 재능기부 수요와 공급 분석결과 요약

이상과 같이 1365 자원봉사 포털 “자원봉사 모집” DB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재능봉사 수요조사” DB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수요처 개발과 수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1) 대학생의 학습지도 등 요청

수요분석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습지도나 기술 등의 재능 기부자로 대학생이 가장 많은 요청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생은 학습지도 등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비교적 탄력적인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수요가 많다. 또 대학에는 사회봉사센터 등의 조직이 갖춰져 있고, 동아리 활동 등 자치활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공급자로 하는 수요처의 욕구 충족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2009년부터 대학생의 재능과 특기를 활용하는 재능기부 프로젝트로 “동행 프로젝트”를 시행해,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완벽한 수요와 공급을 맞춰 학습지도 등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해왔다. 따라서 이번 재능기부 프로젝트에서도 기존의 “동행 프로젝트”를 확대 개편해 더 많은 수요욕구 충족의 프로젝트를 추진해볼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프로젝트 사업으로 서술한다.

(2) 직장인, 전문가 활용 미흡

사실 많은 직장이나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재능이나 특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몰라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홍보가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이들의 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변에서 ‘누군가의 요청’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주변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찾아내는 것도 가장 효과적인 참여확대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나 복지관 등의 중개기관이 기존의 봉사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 기업, 사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사회 재능기부 자원조사”를 시행해 지역사회의 수요처에서 요청한 재능기부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공급처 확보를 추진해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재능기부 뱅크’ DB 구축은 이제 필수적인 제도 방안이 되고 있다.

(3) 은퇴자 참여와 활용 미흡

은퇴자는 여러모로 우수한 재능기부자라고 볼 수 있다. 평생 직장 일을 통해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고 있고, 또 은퇴를 해서 시간적 여유도 많기 때문이다. 은퇴자의 재능기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향후 재능기부의 활용에 관건이 될 것이다.

은퇴자는 일반보다 자원봉사 참여율도 낮고, 서울시 재능기부자 분석에서도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 있다.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은퇴자의 노후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서울시니어봉사단”과 같은 특별한 고령사회 대비용 재능기부 조직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복지수혜자 수요 충족 미흡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곳으로 복지기관과 시설에 주목해보면, 여전히 많은 복지 수혜자들이 전문봉사자의 재능기부를 기다리고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많은 복지수혜자들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하는 복지기관들은 우수한 재능기부자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일부 봉사자들만이 참여하고 많은 봉사자들이 활동을 꺼리는 영역이 복지영역이다.

복지기관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개인 봉사자들의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중개기관인 자원봉사센터나 복지관의 역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으로는 복지기관 전문봉사단을 조직해 봉사자를 충원하는 방법이다. 이는 직장, 대학, 지역의 단체 등 조직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집단 봉사활동 형식이 바람직하다. 대학생 봉사자들의 충원은 대학내 키비탄 등의 장애인 동아리의 단체적 참여가 가장 돋보이지만, 다른 동아리나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학 교직원 노조 등의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중개처의 수요처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캠프, 복지관 등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배치, 관리하는 중개조직으로 재능기부 수요처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가장 잘 개발할 수 있는 조직들이다.

특히 지역의 대학, 기업 등 재능기부 공급처와의 협력관계,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공급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일차적

으로 중요하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노인지원센터 등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에서 많은 요청이 있지만, 참여하는 재능기부자 공급을 맞춰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멘터링, 미술치료, 심리치료 등 특정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수요를 맞춰주는 중개기관 역할이 있다. 일부 모범적인 자원봉사센터들은 이런 교육이나 기술 교육 양성과정을 거쳐 일반봉사자들은 전문봉사자들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재능기부를 요청하는 수요처의 욕구를 상당부분 충족해주고 있다.



8. 서울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 1) “동행 프로젝트” 확대
- 2) 마을공동체 재능기부 모형
- 3) 희망온돌 프로젝트 확대 : 서울희망나눔
- 4) 생애주기별 재능기부 모형
- 5) 서울시 재능기부 프로젝트 비교
- 6)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확대와 제도적 개선

8. 서울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서울형 재능기부 모형에 대해서는 다음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해 프로젝트 단위로 조직화를 거쳐 추진해볼 만하다. 기존의 동행과 희망온돌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재능기부와 현물기부를 통합하는 “서울희망나눔”으로 발전시켜, 생애주기별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1. 기존의 모범 프로젝트 확대 : “서울동행 프로젝트”
2. 마을공동체 재능기부 프로젝트 : LETS, 기술, 소외층봉사
3. 희망온돌의 재능기부 프로젝트 : “서울희망나눔”
4. 생애주기별 재능기부 프로젝트 : 학생, 직장인, 은퇴자, 주부

1) “동행 프로젝트” 확대

위의 수요처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재능기부 활동이 대학생의 봉사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대학 사회봉사센터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동행 프로젝트”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기존의 수요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방안과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등록금 지급 장학특전을 고려해 볼 만하다.

(1) 기존의 “서울동행 프로젝트”

서울동행 프로젝트는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서울동행봉사단」이 초·중·고 동생들을 위해 교과목 학습지도와 예체능 교실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순수한 교육봉사 활동으로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동행봉사단 운영은 연2회(1, 2학기) 실시되며, 한 학기마다 40시간 이상 활동하며, 봉사자는 한 주에 1~2회 초·중·고 및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방문시 2시간 이상 재능나눔을 실천한다.

서울동행 프로그램은 ▶교과목 학습지도, ▶초등 돌봄교실,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특기적성지도, ▶체험학습 지원, 그리고 대학생과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인 ▶기획봉사등 대학생들이 재능에 맞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 “서울동행 프로젝트” 사업추진 실적

2009-2012년 기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대상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수년도 매년 증가해 2012년 약 1,500개가 넘을 것이며, 참여 봉사자의 수는 매년 증가해, 2012년에는 13,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표 8-1〉 서울동행 프로젝트 사업실적 : 수요처와 참여 대학생

	2012년(1학기)	2011년	2010년	2009년
학교지원 초·중·고학교	816개	1,354개	1,380개	724개
참여 대학생수	6,619명	11,478명	10,564명	5,785명
기획봉사	30개교	22개교	9개교	-
교육사업 기본교육	5,012명(26회)	8,168명(43회)	8,144명(42회)	4,598명(27회)
대학생특강	2,120명(5회)	1,078명(10회)	1,753명(6회)	643명(3회)
봉사단운영 간담회	1,472명(20회)	3,034명(40회)	1,689명(30회)	1,689명(30회)
해외봉사활동	84명(1회)	100명(2회)	100명(2회)	87명(2회)

자료: 서울동행프로젝트 <https://donghaeng.seoul.kr/> 각연도.

(나) 서울동행 프로젝트 재능기부 활동 유형

서울동행의 활동 유형을 보면, 교과목 학습지도에 과반수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특기 분야도 점차 늘고 있다.

〈표 8-2〉 “서울동행 프로젝트” 재능기부 활동분야

	〈2012년 1학기〉	〈2011년〉	〈2010년〉	〈2009년〉
교과목학습지도	4,057명	6,850명	7,072명	2,941명
초등학교돌봄교실	1,181명	1,993명	1,058명	1,292명
특기적성	868명	1,161명	626명	
도서관활동지원	-	676명	1,260명	1,119명
중등공부방지원	166명			
체험학습지원	347명	386명	348명	117명
토요예체능교실				296명
특수교육대상지원		412명		

자료: 서울동행프로젝트 <https://donghaeng.seoul.kr/> 각연도. * 도서관학습지원

(다) “서울동행 프로젝트” 협력기관

위와 같이 “서울동행 프로젝트”는 협력기관들의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추진되어 높은 사업실적을 올리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먼저 공급처로 대학의 사회봉사센터에서 대학생 모집을 담당해, 대학생들은 대부분 학점(1학점) 신청으로 한 학기 단위로 참여한다. 한양대 등 많은 대학들은 여름과 겨울 방학에도 시행하는 1년 4학기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수요처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고교와 협력해서 수요가 있는 학교들을 프로그램별로 선정해 서울시청 담당과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중개역할과 관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동생 행복도우미

우린 함께하는 동행 친구!

동생행복도우미는?

서울동행프로젝트는 재능나눔 활성화 및 공교육강화를 위해 대학생 봉사자들이 초·중·고 동생들에게 학습 및 예·체능 활동 등을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입니다.

동행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대학생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의 가치 인지 및 지속적인 봉사활동 ·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감사, 사랑하는 마음을 체득함 ·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 및 예비교사로서 학생지도의 사전체험 ·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생들을 보며 본인의 열정을 재충전
초·중·고교생들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 언니인 대학생들과 어울릴 속에서 자연스런 학습 분위기 조성 · 공부할 이유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 대학생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롤모델 발견
초·중·고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들이 선생님들의 학습 지도, 도서관, 공부방, 보육교실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간의 교육격차 해소 · 자기주도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동행 프로젝트의 협력기관



(2) “동행 프로젝트” II : 장기봉사자 등록금 지원

이상과 같은 기존의 “서울동행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대상은 대학생들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한 참여확대를 위해 수요처를 확대하는 것이다.

(가) 지역아동센터 등 수요처 확대

“서울동행”의 수요처인 초중고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현재의 50%이상 연차적으로 향후 3년간 확대한다. 수요는 많지만 대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장학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프로그램, 토요 예체능 프로그램에는 참여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들의 이어지면서 혼자 방치된 아동들의 돌봄 서비스 욕구가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 등이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신설을 지원하면서 아동센터들이 늘어날 것이며, 여기에서 학습지도, 멘터링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의 봉사활동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7장 수요분석에서도 확인했듯이 지역아동센터의 학습지도 등의 수요는 매우 높지만,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수요-공급 괴리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나) 장기활동 대학생 등록금 지원

“서울동행”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는 학생들 가운데 등록금 문제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특전으로 등록금을 전액 또는 반액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들은 한 학기(6개월) 이상 장기간 매주 10시간 가량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의미있는 재능기부활동을 할 수 있다. 대학이나 사회봉사센터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체계 구축 등의 재정소요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서도 중고교 학습지도 프로그램(Learn & Serve Program)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AmeriCorps)가 미국 국가지역사회봉사단(CNCS)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주성수 2006).

(3) “동행 프로젝트” III : 고교생의 초등학생 지도

또한 “서울동행 프로젝트”에 고교생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봉사 수요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교생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고교생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활동, 학습지도, 특기지도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성동구청소년문화센터 등지에서는 고교생들이 토요일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 서울시 일부 자원봉사센터와 캠프에서도 고교생들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이

린 학습지도와 특기지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1).

또 성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고교생이 초등학생을 1:1로 가정방문을 통해 학습지도를 하는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봉사자는 동사무소에 자원봉사 신청을 해서 같은 동네에 거부하는 초등학생의 가정을 방문에 학습지도를 하는 봉사활동을 한다. 월2회, 주1회 등으로 활동시간을 많지 않지만, 봉사자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고교생 사이에서는 해볼 만한 문화로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이다(포커스그룹 인터뷰).

또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동사무소를 경유해, 고교생들이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관내 초등학생 학습지도를 하는 시범사업이 3개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중인데, 고교생 학부모가 동행해, 장소와 간식 제공 등 역할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포커스그룹 인터뷰).

고교생들의 모집과 관리는 고교가 직접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나 동단위에 설치된 주민센터나 다른 자원봉사캠프가 될 수 있으며, 또 청소년문화센터 등의 청소년기관이 중개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서울시의 각 지역 교육청이 “서울동행” 협력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고교생 “서울동행”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히 예산지원이나, 조직체계 구축 등의 부담은 없지만, 고교생들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사전 교육 등의 관리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고교생의 “서울동행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2) 마을공동체 재능기부 모형

다음으로 고려해볼 만한 재능기부 모형들로는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에 재능기부를 주요 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자치구 단위로 마을지원센터가 설립되어 풀뿌리 공동체 차원에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이 진행될 예정으로, 여기에 재능기부가 장기 추진전략이 될 수 있다(유창복 2012).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도 단위에서 활성화되어 온 주요 사업이다.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년도와 설치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2,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08,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2009,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2, 서울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2, 인천 부평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2010,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06, 경기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2011, 경기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08, 강원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08, 충북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 녹색청주협의회 2012, 전남 순천시 생활공동체 지원센터 2011 등이다.

마을공동체는 풀뿌리 생활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상호와 유대를 중시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은퇴 직장인들의 LETS 사업을 비롯해, 소외층 보호 등의 프로그램을 재능기부 응용 프로그램으로 시행해볼 만하다.

(1) LETS 지역사회공헌

(가) 희망제작소 LETS 모형

희망제작소가 운영하는 LETS는 Life(인생), Experience(경험), Talent(재능) Share(나눔)을 상징한다. 수십여년의 직장 생활과 기업 경영 등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보노(재능 나눔) 운동이다. 미국의 은퇴 경영인들의 재능기부 활동인 SCORE를 벤치마킹한 프로젝트이다.

LETS는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시니어들의 경륜과 전문성을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나눔으로써 사회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시니어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자들에게 단순한 자원봉사 개념이 아닌 인생 양코르를 위한 바람직한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활동 분야 및 서비스 내용으로는, 공익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원을 요청하면 사안별로 검토해 LETS 단원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외국어, 국제 서비스 분야에는 통역, 번역, 국제행사 기획 및 준비, 행사 진행, 외국인 안내, 국제 협력, 해외자료조사 등이 포함된다. 또 콘텐츠, 홍보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보도자료 작성 안내, 행사 탐방 취재, 인터뷰 요령과 기사 작성 지도, 홈페이지 및 블로그 제작관리, 각종 간행물 발간, 콘텐츠 제작 등이 있다.

(나) 서울시 마을공동체 LETS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에서 전문 경영, 금융, 회계, 부동산, 법률 등의 재능과 특기를 기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거주 지역내에서 찾아 연계시켜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최근 수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고, 수많은 비영리단체가 조직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사회적 기업과 NPO는 재무, 노무, 법무 등 경영컨설팅을 비롯하여 프로보노들의 다양한 재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다.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마을기업 지원 재능기부 사업이 있다. 2011년 행정안전부는 경영·회계·법무·디자인·산업안전·특허·금융·마케팅·판로확대 등 10개 분야에 13개 기관⁴⁾과 MOU를 체결하였다.

서울시 자치구의 실정으로는 자치구 차원에서 당장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서울 LETS"를 기획해, 일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볼 만하다.

(다) 서울시 행복설계아카데미

서울 LETS의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보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농협중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리사회,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련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함께일하는재단

이를 위해 희망제작소 모델인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참고할 수 있다(<http://happy.makehope.org>). 관악구에서는 자치구 차원의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조직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나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기술전문봉사

위의 LETS가 복지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해 마을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일조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기술전문봉사는 마을 구성원들 사이의 품앗이 형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나눔활동이라고 구분해볼 수 있다.

(가) 다산콜 전문상담

마을공동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한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취업, 복지서비스, 인생 고민 등 다양한 상담 전문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성공적인 다산콜 사업을 연장하는 형태로 다산콜 상담센터 하부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하는 전문상담가들은 전문상담기관들에서 별도의 전문상담 교육을 이수한 다음 활동하며, 분기별 보수교육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 기술

그밖에 다양한 기술과 재능이 마을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미용은 가장 많은 욕구가 있는 재능기부 유형이며, 그밖에 요리, 컴퓨터, 공연, 악기지도 등 제7장의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해볼 수 있다.

그런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실정은 전문봉사단을 조직해, 다양한 특기의 전문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제대로 활동배치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요처가 없어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심각한 경우 예산만 낭비하고 참여한 교육생들에게는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주는 문제도 있다(포커스그룹 인터뷰).

(다) 지역문화와 놀이터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우리동네 역사문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의 터줏대감 어른들이 참여해 교육강사로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으로, 다른 모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도 확대해, 은퇴자 또는 베이비부머 재능기부 활동으로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또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 어른들이 참여해 보호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도 일부 자치구에서 진행중인 좋은 공동체 프로그램이다(포커스그룹 인터뷰). 놀이터뿐 아니라 학교운동장, 공터 등지에서 아동들의 놀이, 체육활동을 지도해줄 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은퇴자,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어른들이 재능기부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코치, 튜터, 멘터가 성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활동이다(주성수 2006).

3) 희망온돌 재능기부 프로젝트 : “서울희망나눔”

서울시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희망온돌” 사업을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집수리, 도배와 장판 등은 취약층 가정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일부 지역에서는 활성화된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전역에서 자치구별로 조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주민센터뿐 아니라 자치구에 설치될 마을지원센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어려운 이웃돕기

집수리, 이미용, 요리 등의 재능기부 활동은 주로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아래에서는 특히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취약층 보호사업을 재능기부와 접목시켜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가) 독거노인

최근 한국 노인의 퇴직 당시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이 45%로 OECD 평균의 3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OECD 2011), 취약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활동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많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활동이 복지기관들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들의 욕구충족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독거노인의 수는 점차 증가해, 2010년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17.6%를 차지한다. 또 독거노인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대상은 약 13%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보건복지부 2011).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활동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보건복지부 2011). 모델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볼 수 있다.

- 1) 노인 돌봄미 : 주 1회 방문, 주 2~3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확대, 공공 돌봄서비스를 지속 확충하는 것이며,
- 2)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하며,
- 3) 콜센터를 활용해, 민간 및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원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1:1 결연을 맺고, 주 2~3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제공한다.

서울시는 다산콜 상담센터의 전문상담 프로그램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의 희망온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이웃 수요 파악, 물품과 재능 기부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연계를 위해서도 다산콜 상담센터 창구를 활용할 가치가 높다.

(나) 취약아동

최근 홀로 방치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면서, 취약아동 보호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설명한 지역아동센터를 늘려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대학생뿐 아니라 마을의 일반 봉사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을지원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서울동행”의 대학생 장기봉사자들을 주축으로 취약아동 돌봄을 위한 멘터링 사업을 “서울동행 프로젝트”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추진해볼 수 있다. 복지수요는 복지기관·시설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복지기관·시설이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 및 재가 복지대상)에 있으므로 이를 찾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원봉사 캠프 설치 및 상담가 육성, 자원봉사 프로젝트 리더 육성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2) 물품 및 재능기부 확대

희망온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주민센터들이 희망온돌 사업의 전달체계로 구축되어, 센터들을 통해 희망온돌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들, 기업들, 단체들의 물품 기부와 재능기부를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등록처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프라인으로는 센터의 입구에 “서울희망나눔 기부처” 현판을 내걸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센터의 홈페이지에 배너 등을 구축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연말이 가까워지는 11월 한 달 기간에 걸쳐 “서울희망나눔 기부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희망온돌 사업은 어려운 이웃 보호대책으로서, 우리 고유의 온돌이 상징하는 따스함과 같이 지역사회의 기부·나눔을 활성화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기부·나눔의 온정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특징은 시민 참여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풀뿌리 시민단체, 자생적 봉사조직, 종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에서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1. 풀뿌리 시민단체, 자생봉사조직 등을 발굴과 시민단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민간자원 활용의 토대형성에서 '한 데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진행해온 박원순 시장의 복지정책이다.

- 분산되어 활동하는 다양한 풀뿌리시민단체, 자생봉사조직 등을 교육, 지원, 성장시킴으로써 지역 네트워크 형성
- 풀뿌리시민단체, 복지관 등 거점기관, 동복지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공적지원에 한계가 있던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민간기금 등을 활용하여 심층 지원 기초 생활수급자는 물론이고, 차상위계층, 기타 위기가정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주거비 등 지원

- 기존공적지원의 한계가 있었던 사각지대 취약계층 사례발굴 및 제도개선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에 대해 긴급구호 뿐만 아니라,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안을 강구·추진

3. 커뮤니티맵(Community Map)운영으로 일반시민 및 풀뿌리시민단체 등의 On-Line 통한 지역 복지공동체 형성

-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풀뿌리시민단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나눔의터를 On-Line을 이용하여 실현
- 어려운 이웃을 알게 된 시민은 누구나 커뮤니티맵을 통하여 알릴 수 있으며, 도움을 주고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현금,재능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희망 온돌 사업에 참여 가능

희망나눔 지역 공동체

희망나눔단체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분포지도



기부나눔내용

기부물품이나
재능에 대한
분포지도



도움이필요한이웃

어려움이 있는
이웃에 대한
분포지도

3) 생애주기별 재능기부 모형

나아가 서울형 재능기부 모형에는 재능기부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참여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중고교생 -> 대학생 -> 직장인 -> 은퇴자에 이르는 생애주기에서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1) 재능기부 프로젝트

재능기부 프로젝트는 위에서 제시한 것들로, 여기에 “서울 bbb”(외국어 통번역)을 추가해볼 수 있다. 한국 bbb(before babel brigade: 휴대전화를 통한 언어·문화 봉사단)운동 본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휴대전화)와 아날로그적 봉사를 접목시킨 대표적인 디지로그(digilog) 시스템인 bbb 운동은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창안한 언어 재능나눔 활동이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방한 외국인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월드컵 경기 전후 2달간 2만여 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bbb운동은 17개 외국어에 능통한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언어통역 서비스-내·외국인간 언어 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1588-5644로 전화하면 ARS를 통해 통역봉사자와 연결한다.

서울시 관광유적지에서 문화해설사나 통역으로 재능기부자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울시 또는 공공기관들이 주관하는 국제행사나 축제 등에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 bbb 프로젝트를 서울시에 적용한 “서울 bbb” 등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서울시는 2010년 G20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외국어 재능기부자들을 활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재능기부를 적극 활용하는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G20자원봉사단은 언어 및 교육 평가와 활동분야별 직무교육을 거쳐 교통에 3,253명, 마케팅투어 운영 반에 1,443명, 숙소안내 등 기타에 1,133명으로 나뉘어 배치, 활동했는데, 성별로는 여자가 전체의 74%, 연령별로는 20대가 69%로 대다수였고, 언어별로 영어가 가장 많은 3,945명, 일본어 769명, 중국어 617명이었다(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1).

서울시가 추진할 만한 생애주기별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요약하면 <표 8-3>과 같다. 먼저 재능기부자를 생애주기별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서울시가 추진할 만한 8개의 재능기부 프로젝트별로 각각의 수요기관과 공급기관, 그리고 중개기관을 검토해볼 만하다.

〈표 8-3〉 서울시 재능기부 생애주기별 모형 : 수요, 공급, 중개 기관

재능기부자	재능기부프로젝트	공급기관	수요기관	중개기관
고교생	고교동행	고교	초등학교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대학자원봉사센터
대학생	대학동행	대학	초중고교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대학사회봉사센터
직장인	서울 bbb	개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시/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재능봉사단	기업봉사단	NPO	다산콜센터
	다산콜상담	LETS	서울시민	서울시/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공직자 은퇴자	서울 bbb	개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NPO
	재능봉사단	공직봉사단	NPO	노인복지관
주 부	시니어봉사단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서울시/자치구 자원봉사센터/마을공동체
	서울 LETS	LETS	NPO	서울시/자치구 다산콜센터
	서울 bbb	개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시/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다산콜 상담	LETS	서울시민	서울시/자치구 자원봉사센터/마을공동체
	재능봉사단	자원봉사캠프	NPO	서울시/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서울 LETS	LETS	NPO	서울시/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서울 bbb	개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시/자치구 자원봉사센터

(2)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가) 고교생 프로그램

앞에서 설명한 “서울동행 프로젝트”에 고교생의 참여를 확대해, 고교생의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대학생 프로그램

대학생은 재능기부에서 가장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진행중인 “서울 동행 프로젝트”뿐 아니라 앞서 제시한 장기활동자 장학생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서울 동행” 프로젝트뿐 아니라 〈표 8-3〉에서처럼 서울 bbb의 전문 외국어 통번역으로 재능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다) 직장인 프로그램

직장인의 경우, 직장을 통해 단체 차원의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거주지 중심의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캠프에 참여해 자신의 재능과 기술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는 직장의 전문봉사단, 서울 bbb, 그리고 전문 상담자 활동으로 다산콜센터의 연장형인 상담봉사활동 등이다.

(라) 은퇴자 프로그램

은퇴자들은 아직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공급원이라고 볼 수 있다. 생애를 통해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고 있지만, 이런 재능과 특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 참여하지 않는 은퇴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참여의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서울시의 책무가 된다.

은퇴자의 전문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복지관 중심의 시니어봉사단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시켜 우선 은퇴자의 참여를 점차 확대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시니어봉사단’으로 조직을 확대시켜,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조직화와 관리를 전담하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봉사자의 모집과 교육 및 배치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특별 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의 담당과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시니어봉사단”, “LETS”, “서울 bbb”와 “다산콜 전문상담”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하다.

(마) 주부 프로그램

주부들도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고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많아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많다. 특히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들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많이 개발되어 있다.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다산콜 상담”, “서울 bbb” 등이 있고,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소외층 지원”과 “집수리 등 “기술봉사” 프로그램들이 있다.

특히 지치구의 전문봉사단에는 대부분 주부들이 참여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기술 교육훈련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한 다음, 수요처에 배치하는 연계 활동을 지원한다.

5) 서울시 재능기부 프로젝트 장단점 비교

서울시 재능기부 프로젝트의 성패 요인들은 다양하다.

특히 수요처와 공급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프로젝트 성공률은 크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 여기에 관리와 비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용 부분은 사업의 중요성이 많은 비용을 소용 할 정도로 중요한지를 정책 차원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관리 차원도 비용을 수반하지만, 크히 협력기관들 사이의 공조적 노력이 제도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수요처, 공급처, 관리, 비용 차원에서 서울시 재능기부 프로젝트들을 평가해보면 <표 8-4>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8-4〉 서울시 재능기부 프로젝트 장단점 비교 : 수요-공급처, 관리, 비용

프로젝트	공급	수요	관리	비용	성패 요인
1. 고교 동행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적음	고교생 교육과 관리
2. 대학 동행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많음	장기봉사자 장학금지급
3. 재능봉사단	안정적	유동적	유동적	적음	수요처 개발이 중요
4. 다산콜 상담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적음	전문상담가 교육훈련
5. 시니어봉사단	안정적	유동적	안정적	많음	수요처 다양화
6. 서울 LETS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적음	NPO 수요와 관리
7. 서울 bbb	안정적	유동적	유동적	적음	수요처 개발 및 관리
8. 서울희망나눔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약간	중개처 관리

(1) “고교 동행” 프로젝트

고교생들의 재능기부 참여 욕구는 매우 높으며,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인 초등학교나 지역 아동센터 등의 욕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청소년문화센터 등의 사례에서는 적절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범사업으로 1차연도 시행한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 사업의 성패는 수요처개발뿐 아니라 참여하는 고교생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있다. 일선 고교에서는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중개기관인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캠프 등에서 관리와 교육, 모니터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성동구와 중구의 사례처럼 자원봉사센터와 주민센터(자원봉사캠프)가 중개와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대학 동행” 프로젝트

이 사업은 기존의 “서울 동행”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요-공급 협력, 관리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성패 요인은 등록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들의 참여 열기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대학내 사회봉사센터에 별도의 조직을 두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조직을 장학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자치조직으로, 자체 관리와 프로그램 개선 등을 학생자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일한 큰 부담은 서울시의 재정부담이다. 대학생 1인당 한 학기 등록금(약 400만원)을 총 240시간 (일주 10시간, 월 40시간, 6개월 활동)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는 일반 아르바이트 급여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참여 학생들에게는 6개월 장기 활동하는 장점이 있다.

(3) 직장 재능봉사단

직장 재능봉사단은 대기업 중심으로 사회봉사단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면 별다른 부담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 공급체와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

해서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요처 대상자 프로그램을 갖추고 개별 기업들을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서울시 소재 향토기업들에 대한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모임을 가지고 서울 시장이 기업대표들과의 “서울나눔 행사”를 추진해볼 만하다. 여기에 대학 총장들도 같이 자리해, “서울시, 기업, 대학의 나눔협력 MOU” 체결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4) 다산콜 전문상담

서울시의 다산콜 사업은 여러모로 성공작이다. 이를 활용해 서울시민들 다양한 계층들이 복지서비스뿐 아니라 일자리, 인생, 고민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다산콜 전문상담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고, 공급처는 안정적인 다산콜센터를 확대하기 때문에 제도화 방안의 장점을 갖고 있다.

성공요인으로는 전문상담가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대학 소재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의 전문상담 자격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 상담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경력자를 우대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되어, 서울시내의 여러 상담센터와 우선 연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상담교육을 실시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배지,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서울시니어봉사단

시니어봉사단은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가 추진해온 모범적인 노인전문자원봉사 사업이다. 서울시 자치구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에서 활동하며, 노인들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에 다양한 형태의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자들이 많다. 시니어봉사단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클럽’ 활동비를 지원받으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관내 26개 노인종합복지관의 봉사대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은 보건의료·문화예술·외국어통역·전문상담·학습지도·언론취재·케어봉사·정보기술(IT)봉사 등 8개 분야에서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출범 당시 1000여명이었던 단원은 이제 16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봉사도 늘어나고 있다.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3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위 캔 시니어봉사대’가 예술·연구·안내도·우미·글로벌 시니어 봉사대 등 8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복지관 생활 등을 돕는 등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은퇴자의 전문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복지관 중심의 시니어봉사단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시켜 우선 은퇴자의 참여를 점차 확대시키는 방안이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니어봉사단’으로 조직을 확대시켜,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조직화와 관리를 전담하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봉사자의 모집과 교육 및 배치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특별 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의 담당과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니어의 활동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성패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니어들이 기존의 복지관 중심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여할 수 있으며, 초중고교에서도 학교보안관, 학습지도, 상담지도 등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교육분야 은퇴자들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다.

(6) 서울 LETS

서울 LETS는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로 준비할 것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볼 만하다. 먼저 공급처로는 자치구 단위의 자원봉사센터나 마을지원센터, 주민센터 등이 주축이 되므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수요측 또한 서울에 소재한 복지기관들과 비영리 시민사회단체(해피시니어 DB에는 서울시에 598개가 있음 http://happy.makehope.org/03npo/03_02.php?divi=&area=4)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성공 요인은 안정적인 수요측과 공급측을 연계시켜주는 중개기관의 역할에 있다. 활동 전에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활동 관리는 수요측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LETS 리더십 양성을 통해 리더들로 하여금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리더십 양성을 위해 희망제작소의 행복설계아카데미 과정을 자치구 단위로 점차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7) 서울 bbb

전문 외국어 봉사자는 많기 때문에 공급측은 안정적이며, 수요측 또한 국제행사 주최측이나 복지기관 등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성공의 요인으로는 역시 외국어 봉사자의 관리에 있다. 수요와 공급을 잘 연계시켜주는 일이 일차적으로 중요한데, 일부 봉사자들은 복지기관 등의 수요처를 꺼려하고 국제행사 등의 참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수요-공급 연계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관리자가 전담하는 “서울 bbb” 사업을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

(8) 서울희망나눔

서울희망나눔 사업은 기존의 희망온돌 사업을 풀뿌리 차원까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서울시민과 단체와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공급처이자 중개처인 자원봉사센터와 주민센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관건이 된다. 사업 관리에 필요한 약간의 관리 비용, “서울희망나눔 기부처” 현판,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홍보관 구축 등 비용이 필요하다.

6) 서울시자원센터 확대 개편과 제도적 개선

마지막으로 제도화 방안과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다. 제도화 방안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8개의 프로젝트를 연차적으로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이다.

(1)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재능기부 역할 강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위에 제시한 8대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기존의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사령탑 역할을 포용하면서 새로운 8개의 재능기부 프로젝트들을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중개기관이며 관리기관의 역할을 맡는다.

자치구에서는 다양한 전문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치구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밝혀지고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이런 전문봉사단(재능기부단)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내실있는 재능기부 활동 프로그램, 일감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어느 자치구센터의 경우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 외국어 봉사단을 운영했지만 단 한 건의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포커스그룹 인터뷰).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조직에서 재능기부 전담 조직(실 또는 팀)을 개설해, “서울재능기부뱅크”에 재능기부자와 수요처 정보를 구축해, 수요와 공급의 연계 원활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서울시 각 부서가 추진하는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관련 업무와의 긴밀한 공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 전반을 개편하는, “서울시와 자자원봉사센터 업무공조 활성화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2) “서울재능기부뱅크”와 “서울희망나눔” 구축과 관리 방안

서울시 차원의 “서울재능기부뱅크” 구축이 시급하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도 뱅크가 없으므로 해서 재능기부 수요와 공급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고충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능기부뱅크”는 먼저 재능기부자의 활동유형, (외국어 등 필요한 경우) 재능의 수준 또는 자격증 등급, 활동 경험 등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요처 정보를 별도로 등록해 재능기부 참여자가 서울시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 시간, 활동 유형 등을 참고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user-friendly)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기부자 모집에서도 서울시가 2012년 제시한 재능기부 분류 유형을 참고해, 보다 세분화된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해볼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중인 재능기부(전문봉사)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2012년 새로 제시한 수요조사를 통한 재능기부자 활동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처의 욕구 중심으로 재능기부 봉사단의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모집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자원봉사센터 캘린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김현옥 2010). 캘린더는 월별 또는 주별 수요와 공급 정보를 구축하는 것으로, 먼저 전문분야별, 일정별, 지역별 일감이 등재되면 재능나눔 사람들이 시스템 상에서 선택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뿐 아니라 물품과 현금 기부 등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서울희망나눔”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주민센터 중심의 “서울희망나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치구와 마을공동체의 재능기부 교육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능기부(전문봉사)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능기부 교육은 지역사회 수요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어야 하므로, 자치구별로 먼저 지역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에 맞추는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현옥 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자문). 따라서 기존의 전문교육 교육후 수요처 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봉사자를 대상으로 재능나눔 교육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자원봉사단체 대상 재능기부 공급조사

재능기부 수요 측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급 차원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자 현황과 재능기부 참여 잠재인력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 재능기부 수요와 공급 단체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볼 만하다.

(5) “서울 재능기부와 희망나눔” 전시관(체험관) 설치

서울시 차원에서 재능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으로 “서울희망나눔 전시관” 또는 체험관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서울 광장 근처 등 시민들이 자주 모이거나 왕복이 잦은 곳에 공간을 전시하거나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서울시민이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참여의 방법, 연락처 등을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포커스그룹 인터뷰). 온라인 “서울희망나눔 홍보관” 개설도 검토해볼 만하다.

(6) 재능기부와 희망나눔 통계조사

서울통계 조사에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세분화해 조사를 실시한다. 지금의 5대 유형(일반인 대상, 환경보전과 범죄예방, 자녀교육, 국가 및 지역행사, 재해지역 복구) 분류는 재능기부의 수요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분류이며, 자원봉사 분석에서도 잘 활용하지 않은 오래된 분류 방식이다. 이는 통계청이

1999년부터 유지해온 분류 방식으로 새로운 수요처 중심의 분류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재능기부 유형을 세분화해서 서울통계 조사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능기부 유형에 대해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2011), 볼런티어21(2011), 통계청(2011)의 분류를 참고해 조합한 <표 8-5>의 분류를 참고할 수 있다.

〈표 8-5〉 재능기부 유형 분류

교육	학습지도
	기술교육
기술	이미용
	요리
	사진
	집수리
	재난구조
	소방
	안전예방
	기능/기술
보건	상담
	치료
	멘터링
문화	통번역
	공연
	연주
	문화해설
	스포츠/여가지도(코치)
기타	위원회
	조사연구
	모금

또한 서울시 자치구 차원의 재능기부와 희망나눔 수요조사를 일제히 실시해, 조사결과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기부뱅크에 등록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만하다.

〈참고문헌〉

- 김현옥. 2010. '기부와 재능나눔 활성화 방안 - 봉사과 나눔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자원봉사 포럼 토론문.
- 블런티어21. 2004. 「자원봉사관리사 자격과정 개발 연구보고」 .
- 블런티어21, 2011.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연구」 .
- 서울대학교 두뇌한국21 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연구단. 2002. “봉사학습을 위한 봉사활동실태 조사연구.”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1. “2011 자원봉사캠프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 활동보고서.”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2. “재능봉사활동 분류표 및 리스트.”
- 세스넷((사)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2012. “새로운 자원봉사의 영역, 프로보노(pro bono).”
- 유창복. 2012. “서울시 마을만들 사업의 현황과 과제.”
- 전경련. 2011. 『사회공헌백서 2010』 .
- 주성수, 2006. 『자원봉사 : 이론, 제도, 정책』 . 도서출판 아르케.
- 주성수, 2010. 『사회적 경제 : 이론, 제도, 정책』 . 한양대 출판부.
- 통계청, 2011. 「2011년 사회조사결과 (나눔문화)」 .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09. 자원봉사단체관리자교육 자료집
- 한국자원봉사협의회·한국자원봉스포럼, 2010. “지속가능한 재능나눔운동의 발전모형 연구 - 재능을 나누시다 캠페인을 중심으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1. “한국사회의 섹터별 재능기부(나눔)활동 현황분석 및 향후 협력방안 연구.”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1. ‘재능을 나누시다’ 캠페인 협력단체 워크샵자료집.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1. 기업형 재능나눔포럼 자료집.
- 행정안전부, 2012. “2011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 CECP(Committee Encouraging Corporate Philanthropy). 2011. “Giving in Numbers 2011.”
http://www.corporatephilanthropy.org/pdfs/giving_in_numbers/GivinginNumbers2011.pdf
- CNCS, 2008a. “Capitalizing on Volunteers’ Skills : Volunteering by Occupation in America.”
http://www.nationalservice.gov/pdf/08_0908_rpd_volunteer_occupation.pdf
- ILO. 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stat/documents/publication/wcms_162119.pdf
-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www.oecd.org/els/social/pensions/PAG.
- UK Cabinet Office(UKCO). 2008. *Helping Out: A National Survey of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USBLS). 2011.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2010.” <http://www.bls.gov/news.release/volun.t01.htm>

〈 별첨 〉

1365 자원봉사 포털 “서울시 재능기부” 분석결과

- 제1차 검색: 508건 중 82건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 (검색일: 2012. 9.12~15)
- 제2차 검색: 378건 중 104건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 (검색일: 2012. 10.28~30)

〈 교육 〉

- 교육실 청소년 국어학습지도 / 돈보스코 직업훈련원
- 학습지도 봉사 / 암미지역아동센터 3개월
- 컴퓨터 프로그램 강 / 강남구치매지원센터 3개월
- 평생교육 성인 컴퓨터 강의(기초급) /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캠프 3개월
- 하모니카 선생님을 구합니다. / 암미지역아동센터 1개월
- 초등 고헌년, 중1 영어회화 / 암미지역아동센터 3개월
- 중학 수학 봉사자 암미지역아동센터 3개월
- 지역주민 행복특강 재능기부 봉사자 모집 /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3개월
- 방과후 활동지도 /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3개월
- 장애인학습지도 / 강서히지노공동생활가정 3개월
- 학습멘토링 자원봉사자 모집 /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3개월
- 초등학생 학습지도 및 멘토링 / 물뎨동산난곡지역아동센터 3개월
- 대학생 멘토링 / 서대문구정신보건센터 3개월
- 청소년 학습지도 /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3개월
-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영어 지도 / 나래지역아동센터 3개월
-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 구로구정신보건센터 1일
- 1:1 학습멘토링 봉사자 / 점프문화센터 2개월
- 초등학생 학습지도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2개월
- 학교밖 청소년 멘토링 / 구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개월
- 주민자치방과후 교실 초등학생 학습지도 / 삼전종합사회복지관 3개월
- 중고생 영수 학습지도봉사 / 사단법인강북마을학교 3개월
- 탈북청소년대안학교 교사모집 / 두리하나 3개월
- 초등영어 교사 모집합니다. / 나래지역아동센터 3개월
- 안전교육활동강사 자원봉사 /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터 3개월
- 소아청소년 멘토 자원봉사자 / 영등포구정신보건센터 3개월
- 베트남어 교육 / 송파정신보건센터 3개월

- 서울중대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체육활동 진행 / 서울중대초등학교 3개월
- 대입검정고시 학습봉사자 모집 / 성동청소년문화의집 3개월
- 탈북청소년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 두리하나 3개월
- 탈북청소년들에게 기타, 드럼, 피아노 등 재능나눔 / 두리하나 3개월
-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지도 / 신광지역아동센터 3개월
- 생활제조 자원봉사자 모집 / 천사노인요양원 2개월
- 청소년 멘토링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3개월
- 통번역자원봉사 / 마포구자원봉사센터 3개월
- 서울우면초등학교 방과후학습지도 / 서초구자원봉사센터 2개월
- 다문화가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육 / 마포지역자활센터 1개월
- 지역주민 행복특강 재능기부 /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3개월
- 아동 방과후 꿈송이 교실 학습지도 /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3개월
- 고등학생 후배멘토링 학습지도 / 상계2동공부방 3개월
- 청소년자원봉사 / 꿈씨어린이작은도서관 2개월
-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2기 모집 / 성동구립도서관 2개월
- 평생교육-영어강사 / 살구여성회캠프 3개월
- 평생교육-컴퓨터 강사 / 살구여성회캠프 3개월
- 학교밖 청소년 멘토링 상담 /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개월
- 주민자치방과후 교실 초등학생 학습지도 / 삼전종합사회복지관 3개월
- 중고생영수학습지도봉사 / 사단법인강북마을학교 3개월
-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봉사 / 달마학교지역아동센터 3개월
- 학습자원봉사자를 구합니다. / 꿈둥지지역아동센터 2개월
- 안전교육활동강사 자원봉사 /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터 3개월
- 방과후 돌봄교실 체육활동 진행 / 서울중대초등학교 3개월
- 초등학생 실내체육 안전지도 / 신광지역아동센터 3개월
- 서울주말행복투어 보조선생님 /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3개월
- 초등영어 교사 모집 / 나래지역아동센터 3개월
- 방과후 학습지도 재능기부 / 창1동주민센터 3개월
- 초,중,고 학습지도 및 예체능선생님 모집 / 두리하나 3개월
- 멘토링스쿨(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 및 멘토링) / 혜화동 캠프 3개월
- 고입 검정고시 학습지도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월
- 장애아동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보조교사 / 서울시장애아동사회적응센터 3개월
- 대입검정고시 학습봉사자 모집 / 성동청소년문화의집 3개월
- 학습지도 / 성산방과후교실 3개월
-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지도 / 신광지역아동센터 3개월
- 화요일 북카페 컴퓨터 자원봉사자 / 서초여성회관 2개월

- 중1 영어,수학 학습지도 대학생 봉사자 / 성동구립금호청소년독서실 3개월
- 야간공부방 봉사자 모집 / 일원청소년독서실 3개월

〈기술〉

- 도배장판 봉사활동 / 동작자원봉사센터 2주간
- 이미용전문봉사자 모집 / 강남시니어플라자 3개월
- 중화복지관 이미용 정기봉사자 모집v구립중화경로복지관 3개월
- 머리미용 봉사 /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3개월
-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모집 / 천사노인요양원 2개월
- 소외계층을 위한 도배v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 3개월
- 이미용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3개월
- 거북경로당 보드게임 및 네일아트 / 북가좌2동캠프 3개월
- 이미용봉사 / 은평구자원봉사센터 2개월
- 배드민턴 자원봉사활동 모집 / (사)한국전문자원봉사센터 3개월
- 컴퓨터 전반 (포토샵 일러스트 방송편집,기술) / 기린청소년지역아동센터 3개월
- 이미용 자원봉사 / 동작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 3개월
-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봉사자 / 동작실버센터 3개월
- 무료집수리 봉사활동 / 희망의 리브하우스 3개월
- 미술치료 자원봉사자 구합니다 / 가톨릭서울형데이케어센터(행운동) 3개월
- 이미용 봉사자 모집 / (사)굿하트금천재가노인지원센터 3개월
- 사랑의 발 마사지 자원봉사 / 공덕동주민센터 1일
- 서예봉사자 모집 / 서초구자원봉사센터 3개월
- 페이스페인팅 자원봉사자 /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일
- 차량운전 봉사자 / 가톨릭서울형데이케어센터 3개월
- 풍선아트 자원봉사자 /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일
- 사진 재능기부 /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1일
- 이미용 봉사 / 관악구자원봉사센터 1개월
- 한국문화유산에 관한 내용 번역 봉사활동 / 국제교류문화진흥원 3개월
- 내외부 벽 벽화가능 봉사 /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1개월
- 이미용 봉사 / 여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3개월
- 선유도 한강공원 중국어 안내 / 선유도안내 2개월
- 목동연세병원 음악치료봉사 / 목동연세요양병원 3개월
- 사진동아리 봉사자 모집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3개월
- 차량운전 봉사 / 가톨릭서울형데이케어센터(행운동) 3개월
- 강남구연합회장 배 럭비대회 통역(영어)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1일
- 한강수중정화 활동 / (사)환경과사람들 금천지회 1일

- 성인 건강관리실 어르신을 위한 발마사지 / 양천노인종합복지관 (교육수료자) 3개월
- 발마사지 & 테이핑 전문교육 / 관악구자원봉사센터 3개월
- 도배, 장판 주거환경개선사업 / 상도종합사회복지관 1일
- 학생 생활안전지킴이 모니터링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2개월
- 옥상텃밭 가꾸기 / 신수동주민센터 1개월
- 경로문화센터 장수사진촬영, 헤어, 메이크업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1일
- 머리미용 봉사자 /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3개월
- 볼링자조모임 봉사 / 강서구정신보건센터 3개월
- 생활제조 및 발마사지 봉사자 / 우리마포복지관 3개월
-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 우리마포복지관 3개월
- 소방안전교육 전문봉사 / 구의3동캠프
- 이미용봉사 / 은평구자원봉사센터 3개월
- 주거환경 / 굿네이버스성동좋은이웃 지역아동센터 3개월
-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덧신 만들기 /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1일
- 선유도 공원 도시정원사 자원봉사 / 선유도안내 2개월
선유도 공원 온실, 수목, 초화 수생식물 등을 활용 관리 번식 육종 등 도시정원을 가꾸는 도시전문지식을 교육받고 선유도 공원 관리운영참여
- 이미용 자원봉사 / 동작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 3개월
- 시각장애인 점자책 인쇄 / 새빛맹인재활원 2개월
- 신생아모자만들기 / 서초구자원봉사센터 1일
- “새콤달콤 정 나눔” 요리체험 봉사자 모집 / 연희동주민센터(캠프)
- 폐현수막으로 힐링백(시장가방) 만들기 / 소잉팩토리 1개월
신촌, 영등포, 을지로점
- 장애인 나들이활동 운전봉사자 모집 / 금천양문교회VC 1개월
- 베트남어 교육 / 송파정신보건센터 3개월
- 소외 아동을 위한 양말 인형 만들기 /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1개월
- 즐거운 텃밭 가을작물 가꾸기 / 우양재단 2개월
- 장애인 손작업(머리핀, 토끼 볼펜 만들기) 봉사 / (사)기능장애인협회중로구지부 2개월
-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동작실버센터 3개월
- 도배장판 봉사활동 / 동작자원봉사센터 3개월
- 무료집수리 봉사활동 / 희망의러브하우스 3개월
소외된 이웃의 집을 무료로 고쳐주는 집수리 봉사단체로 매주 토요일 집수리 봉사가 진행
- 모금 및 후원아이디어 제공 및 컨설팅 “당신의 아이디어를 기부하세요!”
/ 가락복지관 대학생 후원서포터즈 가락종합사회복지관 3개월
- 영화상영 준비, 영화상영 봉사자 / 강남시니어플라자 2개월
- 북카페 운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3개월

- 이미용 재능봉사 / 로댐하우스장애인단기보호센터 3개월
- 전문봉사 교육후 봉사활동 / 시흥3동주간보호센터 3개월
성교육,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미술활동(단순색칠, 종이접기, 클레이아트, 미술치료 등)
원예활동(텃밭가꾸기, 꽃꽂이, 원예관련활동)
기타: 비누공예, 풍선아트, 도자기공예 등
체력단련관련봉사: 태권도, 음악줄넘기,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교통, 소방, 위생 부분 안전관련 교육 및 지도, 안전장구
- 밑반찬 조리 및 배달 / 송파노인복지센터 3개월
- 밑반찬 조리 자원봉사자 모집 / (사)굿하트금천 재가노인지원센터 3개월
- 이미용 봉사 / (사)굿하트금천 재가노인지원센터 3개월
- 밑반찬 배달 차량 봉사자 모집 / 행복창조노인복지센터 3개월

〈문화예술〉

- 어르신 합창교실(재능기부) /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3개월
- 신반포 보육지원 센터 동화구연 / 서초보육정보센터 3개월
- 강남(강남스타일 한류) 관광명소 안내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 목동연세병원 이미용 자원봉사 / 양천구자원봉사센터 1개월
- 공연봉사자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협회] 2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_합창단원모집 /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월
- 오케스트라 합주연습 서포터즈 모집 / 하트하트재단 3개월
- 보훈문예물 Festival 재능 자원봉사 / 국제교류문화진흥원 2개월
- 공연 등 예술활동 /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2개월
- 오카리나 교육 후 재능기부 /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2개월
- 2012 서울등축제 진행 자원봉사자 / 서울관광마케팅 2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_합창단원모집 /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월
- [2012 보훈문예물 Festival] 재능봉사 / 국제교류문화진흥원 1개월
- 오케스트라 합주연습 서포터즈 모집 / 하트하트재단 3개월
- 연극, 무용, 악기연주, 노래부르기 등 공연활동 / 시흥3동주간보호센터 3개월
- 지역안전 안전모니터링 신고활동 / 연세대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3개월
- 문화유적지 청소년 해설지도 자원봉사 / 국제교류문화진흥원 3개월
- [왕릉] 청소년 영어 문화유산해설사 / 국제교류문화진흥원 3개월
- [서대문] 청소년 영어 문화유산해설 / 국제교류문화진흥원 3개월
- [덕수궁] 청소년 영어 문화유산해설사 / 국제교류문화진흥원 3개월
- [남산한옥마을] 남산한옥마을 외국인관광객 문화해설 / 국제교류문화진흥원 3개월
- [경복궁]경복궁 외국인관광객 문화해설 / 국제교류문화진흥원 3개월

〈보건의료〉

- 소외노인을 위한 의료(의사) 자원봉사자 모집 / 강동구청 1일
- 재가암환자 대상 자원봉사 서비스 / 금천구보건소건강증진과 3개월
- 어르신 상담 봉사자 모집 / 양천노인종합복지관 3개월
- 사랑을 전하는 해피콜(전화) 봉사자 / 동작자원봉사센터 3개월
- 치매전문자원봉사 / 광진구치매지원센터 3개월
- 독거노인 어르신 생활지원 자원봉사 / 상록재가노인지원센터 2개월
- 회복프로그램 보조진행자 / 강서구정신보건센터 3개월
-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재능봉사 / 창천데이케어센터 4개월
- 장애인 외부활동하실분 모집 /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센터 다솜 3개월
-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카페레인보우) / 태화해뜨는샘 3개월
-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상담봉사자 / 양천노인종합복지관 3개월
- 사랑을 전하는 해피콜(전화) 봉사자 / 동작구자원봉사센터 3개월
-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대상 봉사활동 / 장수복지센터 3개월
- 치매전문자원봉사 / 광진구치매지원센터 3개월
- 장애 청소년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 종로장애인복지관 2개월
- 홀몸어르신 방문 및 말벗봉사 / 상계3,4동주민센터캠프 3개월
- 유아 심리치료 및 상담해주실 자원봉사자 /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 3개월
- 독거노인 멘토링(가사지원, 말벗)봉사활동 / (사)굿하트금천재가노인지원센터 3개월
- 미술치료 자원봉사자 구합니다 / 가톨릭서울형데이케어센터(행운동) 3개월
어르신들께 매주 1회 미술치료 자원봉사
- 아동청소년 학습, 정서지원 멘토링 / 강서구정신보건센터 3개월

〈홍보디자인〉

- 소식지 제작 기사작성, 편집, 레이아웃 / 동대문구청 1일
- 컴퓨터 포맷 및 윈도우 재설치 / 신광지역아동센터 3개월
- 아동센터 로고 제작 / 신광지역아동센터 3개월
- 포토샵 일러스트 방송편집, 기술 재능기부 / 기린청소년지역아동센터 3개월

〈기타〉

- 사)프로보노 국제협력재단 재능기부 과목
 - 바리스타,로스팅,커피머신 수리
 - 컴퓨터 조립, 수리, 프로그램관리
 - 홈페이지 관리,마스터,디자인,스마트관리
 - 네일아트
 - 제과제빵

- 스토리텔링(역사인물, 역사 및 지역명소)
 - 디자인(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 사무(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 회계(기업, NGO,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 예쁜 손글씨
- 금천구 시흥동주간보호센터 전문교육 후 봉사활동
- 성교육,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 미술활동(단순색칠, 종이접기, 클레이아트, 미술치료 등)
 - 원예활동(텃밭가꾸기, 꽃꽂이, 원예관련활동)
 - 기타 : 비누공예, 풍선아트, 도자기공예 등
 - 체력단련관련봉사 : 태권도, 음악줄넘기,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 교통, 소방, 위생 부분 안전관련 교육 및 지도, 안전장구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능기부 활동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판1쇄 발행 2012년 12월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발행처 |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서울시청 4층

전 화 02) 2133-7375

팩 스 02) 2133-0719

연구기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소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전화 063) 290-1291

팩스 063) 290-1304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서울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